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책임연구원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강지현(동덕여자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김혜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인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Ⅰ : 조사결과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연구위원	모상현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지현 교수(동덕여자대학교)
협력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연구위원	김미숙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은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정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북대학교	이호근 교수	김영문 교수(전북대학교) 정혜주 교수(고려대학교)

국 문 초 록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2011년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1년차 조사이며 2012~13년까지 2번 연속 반복 횡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조사방법은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표집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16개 사·도의 초등학교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이며, 최종 분석 대상자는 9,435명이었다.

본 설문도구를 구성하는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및 학교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 영역 중 개인영역은 다시 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부정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긍정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영역의 경우는 부모의 지원, 가족관계 질 변인들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 영역은 지역사회 지원과 지역사회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영역은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 등의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횡단자료로 축적됨과 동시에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주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로서 효율적 정책수립과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정신건강실태, 반복횡단조사, 변화양상, 표집조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 정책수립과 추진방향을 제고하고자 함
- 반복횡단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는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로서 변화양상과 추이를 파악·분석하여 중장기적 정책수립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우리나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함

3. 주요결과

1) 조사개요

- 2010 교육통계연보를 표집 틀로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모집단을 다층화하여 분류함
-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8,500명으로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1\%P$ 로 예상되며, 최종 조사 표본 수는 9,435명이었음
-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및 학교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2) 조사결과

- 우울, 불안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줌

- 게임중독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양부모가정보다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서 높은 점수경향을 나타냄
-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자살계획은 중학생이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높은 점수경향을 보여줌
- 스트레스 요인별 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모든 스트레스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형제·자매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에서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임
- 비행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양부모 및 조손가정보다 높게 나타났음
- 생활만족도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양부모가정이 다른 가족구성보다 높게 나타남
- 개인 내 적응적 심리요인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는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가족구성별은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관계는 남자가 여자보다 낮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양부모가정이 더 높게 나타남

4. 정책제언

- 실태조사 결과의 심층 분석 및 활용을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정책수립 방향을 제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변화양상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추진방향의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1
1. 모집단 분석	3
2. 표본설계	4
1) 표본크기 및 층화	4
2) 표본배분	6
3) 표본추출	6
3. 실사설계	7
1) 리스트 정제 및 사전 접촉	7
2) 학교 방문 조사원 모집 및 교육	7
3) 실사 진행	8
4) 조사표 검증 및 자료 처리	8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9
5. 조사내용	10
제 2 장 조사결과	13
1. 개인영역	15
1) 부정적 요인	15
(1) 우울	15
(2) 불안	38
(3) 게임 중독	61
(4) 자살	83
(5) 스트레스	89
(6) 비행	104
2) 긍정적 요인	117
(1) 생활만족도	117
(2)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정서조절/낙관주의)	128

2. 가족영역	144
1) 부모의 지원	144
2) 가족관계 질	160
3. 지역사회 영역	168
1) 지역사회 지원	170
2) 지역사회 상호작용	173
4. 학교영역	176
1) 학교수업	178
2) 교사관계	181
3) 친구관계	184
4) 학교생활	187
 부 록	 191

표 목 차

〈표 Ⅰ-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3
〈표 Ⅰ-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4
〈표 Ⅰ-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5
〈표 Ⅰ-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5
〈표 Ⅰ-5〉 조사 표본 수	9
〈표 Ⅰ-6〉 응답자 특성	10
〈표 Ⅰ-7〉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11
〈표 Ⅱ-1〉 우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15
〈표 Ⅱ-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요인별 차이 분석	16
〈표 Ⅱ-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17
〈표 Ⅱ-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18
〈표 Ⅱ-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19
〈표 Ⅱ-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20
〈표 Ⅱ-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21
〈표 Ⅱ-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벌	22
〈표 Ⅱ-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23
〈표 Ⅱ-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24
〈표 Ⅱ-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25
〈표 Ⅱ-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26
〈표 Ⅱ-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27
〈표 Ⅱ-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28
〈표 Ⅱ-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29
〈표 Ⅱ-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30
〈표 Ⅱ-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31
〈표 Ⅱ-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32
〈표 Ⅱ-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33

〈표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34
〈표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35
〈표 II-2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36
〈표 II-2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37
〈표 II-24〉 불안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38
〈표 II-2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요인별 차이 분석	39
〈표 II-26〉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40
〈표 II-27〉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41
〈표 II-28〉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42
〈표 II-29〉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43
〈표 II-30〉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44
〈표 II-31〉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45
〈표 II-32〉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46
〈표 II-33〉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47
〈표 II-34〉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48
〈표 II-35〉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49
〈표 II-36〉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50
〈표 II-37〉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51
〈표 II-38〉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52
〈표 II-39〉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53
〈표 II-40〉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54
〈표 II-41〉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55
〈표 II-42〉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56
〈표 II-43〉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57
〈표 II-44〉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58
〈표 II-45〉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59

〈표 II-46〉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60
〈표 II-47〉 게임 중독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61
〈표 II-48〉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의 요인별 차이 분석	62
〈표 II-49〉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63
〈표 II-50〉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64
〈표 II-51〉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65
〈표 II-52〉 게임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66
〈표 II-53〉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67
〈표 II-54〉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68
〈표 II-55〉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69
〈표 II-56〉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70
〈표 II-57〉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71
〈표 II-58〉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72
〈표 II-59〉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73
〈표 II-60〉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74
〈표 II-61〉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75
〈표 II-62〉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건디기 힘든 일이다	76
〈표 II-63〉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77
〈표 II-64〉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78
〈표 II-65〉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79
〈표 II-66〉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80
〈표 II-67〉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81
〈표 II-68〉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82
〈표 II-69〉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83
〈표 II-70〉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의 항목별 차이 분석	84
〈표 II-70-1〉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의 항목별 세부 분석	85

〈표 II-71〉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86
〈표 II-72〉 최근 1년간 자살 계획 경험	87
〈표 II-73〉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88
〈표 II-74〉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89
〈표 II-7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항목별 차이 분석	90
〈표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의 관계	92
〈표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93
〈표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94
〈표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95
〈표 II-8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96
〈표 II-8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97
〈표 II-8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98
〈표 II-8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99
〈표 II-8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100
〈표 II-8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101
〈표 II-8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102
〈표 II-8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103
〈표 II-88〉 비행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104
〈표 II-89〉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의 항목별 차이 분석	105
〈표 II-90〉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07
〈표 II-9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08
〈표 II-92〉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09
〈표 II-93〉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10
〈표 II-94〉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11
〈표 II-95〉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12
〈표 II-9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3

〈표 II-97〉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114
〈표 II-98〉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115
〈표 II-9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16
〈표 II-100〉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117
〈표 II-1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차이 분석	118
〈표 II-10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0
〈표 II-103〉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121
〈표 II-104〉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2
〈표 II-105〉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123
〈표 II-106〉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4
〈표 II-107〉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125
〈표 II-108〉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126
〈표 II-109〉 건강에 대한 만족도	127
〈표 II-110〉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128
〈표 II-111〉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129
〈표 II-11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30
〈표 II-11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31
〈표 II-11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132
〈표 II-11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33
〈표 II-11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34
〈표 II-11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135
〈표 II-11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136
〈표 II-11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37
〈표 II-12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138
〈표 II-12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139
〈표 II-12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40

〈표 II-12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41
〈표 II-12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42
〈표 II-12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143
〈표 II-126〉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144
〈표 II-127〉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145
〈표 II-128〉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146
〈표 II-129〉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147
〈표 II-130〉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148
〈표 II-131〉 고민을 들어 주신다	149
〈표 II-13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150
〈표 II-13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151
〈표 II-13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152
〈표 II-13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153
〈표 II-136〉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154
〈표 II-137〉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155
〈표 II-138〉 용돈을 주신다	156
〈표 II-139〉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157
〈표 II-140〉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158
〈표 II-141〉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159
〈표 II-142〉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160
〈표 II-143〉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161
〈표 II-144〉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163
〈표 II-145〉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164
〈표 II-146〉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165
〈표 II-147〉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166
〈표 II-148〉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67

〈표 II-149〉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168
〈표 II-150〉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169
〈표 II-15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170
〈표 II-15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71
〈표 II-15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172
〈표 II-15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	173
〈표 II-15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74
〈표 II-15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175
〈표 II-157〉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176
〈표 II-158〉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177
〈표 II-15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78
〈표 II-16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179
〈표 II-161〉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180
〈표 II-162〉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81
〈표 II-163〉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82
〈표 II-164〉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83
〈표 II-165〉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184
〈표 II-166〉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85
〈표 II-167〉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186
〈표 II-168〉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187
〈표 II-169〉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188
〈표 II-170〉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189

그림 목 차

【그림 II-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17
【그림 II-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18
【그림 II-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19
【그림 II-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20
【그림 II-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21
【그림 II-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별	22
【그림 II-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23
【그림 II-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24
【그림 II-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25
【그림 II-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26
【그림 II-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27
【그림 II-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28
【그림 II-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29
【그림 II-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30
【그림 II-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31
【그림 II-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32
【그림 II-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33
【그림 II-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34
【그림 II-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35
【그림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36
【그림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37
【그림 II-22】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	40
【그림 II-23】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41
【그림 II-24】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42
【그림 II-25】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43
【그림 II-26】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44

【그림 II-27】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45
【그림 II-28】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46
【그림 II-29】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47
【그림 II-30】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48
【그림 II-31】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49
【그림 II-32】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50
【그림 II-33】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51
【그림 II-34】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52
【그림 II-35】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53
【그림 II-36】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54
【그림 II-37】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55
【그림 II-38】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56
【그림 II-39】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57
【그림 II-40】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58
【그림 II-41】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59
【그림 II-42】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60
【그림 II-43】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63
【그림 II-44】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64
【그림 II-45】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65
【그림 II-46】 게임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66
【그림 II-47】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67
【그림 II-48】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68
【그림 II-49】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69
【그림 II-50】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70
【그림 II-51】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71
【그림 II-52】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72

【그림 II-53】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73
【그림 II-54】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74
【그림 II-55】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75
【그림 II-56】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76
【그림 II-57】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77
【그림 II-58】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78
【그림 II-59】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79
【그림 II-60】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80
【그림 II-61】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81
【그림 II-62】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82
【그림 II-63】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83
【그림 II-64】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86
【그림 II-65】 최근 1년간 자살 계획 경험	87
【그림 II-66】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88
【그림 II-67】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89
【그림 II-6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의 관계	92
【그림 II-6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93
【그림 II-7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94
【그림 II-7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95
【그림 II-7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96
【그림 II-7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97
【그림 II-7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98
【그림 II-7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99
【그림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100
【그림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101
【그림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102

【그림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103
【그림 II-80】 비행의 항목별 평균	104
【그림 II-8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07
【그림 II-8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08
【그림 II-8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09
【그림 II-8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10
【그림 II-8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11
【그림 II-8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12
【그림 II-8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3
【그림 II-88】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114
【그림 II-8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115
【그림 II-9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16
【그림 II-91】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117
【그림 II-9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0
【그림 II-93】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121
【그림 II-94】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2
【그림 II-95】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123
【그림 II-96】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124
【그림 II-97】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125
【그림 II-98】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126
【그림 II-99】 건강에 대한 만족도	127
【그림 II-100】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항목별 평균	128
【그림 II-10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30
【그림 II-10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31
【그림 II-10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132
【그림 II-10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33

【그림 II-10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34
【그림 II-106】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135
【그림 II-107】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136
【그림 II-108】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37
【그림 II-109】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138
【그림 II-110】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139
【그림 II-11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40
【그림 II-112】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41
【그림 II-11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42
【그림 II-11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143
【그림 II-115】 부모의 지원의 항목별 평균	144
【그림 II-116】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146
【그림 II-117】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147
【그림 II-118】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148
【그림 II-119】 고민을 들어 주신다	149
【그림 II-120】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160
【그림 II-121】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151
【그림 II-122】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152
【그림 II-123】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153
【그림 II-124】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154
【그림 II-125】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155
【그림 II-126】 용돈을 주신다	156
【그림 II-127】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157
【그림 II-128】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158
【그림 II-129】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159
【그림 II-130】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160

【그림 II-13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163
【그림 II-13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164
【그림 II-13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165
【그림 II-13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166
【그림 II-13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67
【그림 II-136】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168
【그림 II-137】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170
【그림 II-138】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71
【그림 II-139】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172
【그림 II-140】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173
【그림 II-141】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74
【그림 II-142】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175
【그림 II-143】 학교영역의 항목별 평균	176
【그림 II-144】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78
【그림 II-14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179
【그림 II-146】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180
【그림 II-147】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81
【그림 II-148】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82
【그림 II-149】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83
【그림 II-150】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184
【그림 II-151】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85
【그림 II-152】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186
【그림 II-153】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187
【그림 II-154】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188
【그림 II-155】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189

제 1 장

조사개요

1. 모집단 분석
2. 표본설계
3. 실사설계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5. 조사내용

제 1 장 조사개요

1.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먼저 16개 광역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1>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5,738,731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821,490명(31.7%), 중학교 1,963,789명(34.2%), 고등학교 1,953,452명(34.1%)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1,490,496명(26.0%), 전문계 고등학교 462,956명이다(8.1%).

표 I-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016,117	103,690	101,828	105,684	111,511	113,841	118,508	100,703	99,789	101,788	19,843	19,174	19,758
부산	375,267	36,188	36,189	38,178	40,638	43,055	44,933	33,492	33,911	34,414	11,079	11,269	11,921
대구	310,395	30,708	31,256	31,969	34,687	35,530	37,371	28,651	28,750	28,810	7,619	7,356	7,688
인천	325,321	33,349	33,434	34,312	36,257	36,817	38,464	29,778	29,121	29,485	8,001	8,127	8,176
광주	202,266	21,444	21,134	22,184	23,188	22,995	23,859	18,022	17,386	17,102	5,004	5,015	4,933
대전	189,814	19,859	19,536	20,520	21,278	21,757	22,431	17,948	17,516	17,698	3,887	3,751	3,633
울산	150,316	15,003	15,205	15,915	16,799	17,217	17,942	13,816	13,768	13,849	3,786	3,574	3,442
경기	1,401,548	155,309	152,231	155,605	159,002	158,708	161,549	121,249	115,716	112,464	36,127	36,031	37,557
강원	169,832	18,157	18,170	18,922	19,279	19,203	19,586	11,331	10,854	10,714	7,958	7,784	7,874
충북	181,176	19,095	19,019	19,896	20,546	20,920	21,180	13,592	13,969	13,649	6,742	6,352	6,216
충남	230,244	25,463	24,809	25,706	25,859	25,870	26,212	19,689	19,035	18,744	6,556	6,289	6,012
전북	222,263	23,320	22,942	24,263	24,853	25,400	25,986	17,074	16,852	16,666	8,616	8,222	8,069
전남	215,295	22,917	22,944	23,609	24,151	24,505	25,065	16,605	16,314	16,212	7,836	7,568	7,569
경북	285,611	30,448	30,461	30,341	32,118	32,026	32,849	23,288	22,742	22,581	9,567	9,397	9,793
경남	390,559	41,778	41,616	42,923	43,837	45,088	45,860	33,627	33,255	32,740	10,295	9,815	9,725
제주	72,707	8,131	7,879	7,951	8,332	8,266	8,461	5,334	5,260	5,143	2,809	2,610	2,531
합계	5,738,731	604,859	598,653	617,978	642,335	651,198	670,256	504,199	494,238	492,059	155,725	152,334	154,897

2. 표본 설계¹⁾

1) 표본크기 및 층화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표 I -2>와 같이 8,5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1\%P$ 이다.

층화의 경우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광역시·도, 16개)과 학교구분(초·중·일반계고·전문계고 등 4개)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표 I-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604,859	1,821,490 (31.7%)		2,698 (31.7%)		2,326 (27.0%)	
		5	598,653						
		6	617,978						
중학교	중학교	1	642,335	1,963,789 (34.2%)		2,908 (34.2%)		2,657 (30.9%)	
		2	651,198						
		3	670,256						
고등학교	일반계고	1	504,199	1,490,496 (26.0%)	1,953,452 (34.0%)	2,208 (26.0%)	2,893 (34.0%)	2,271 (26.4%)	3,629 (42.1%)
		2	494,238						
		3	492,059						
	전문계고	1	155,725	462,956 (8.1%)	686 (8.1%)	1,358 (15.8%)			
		2	152,334						
		3	154,897						
합계				5,738,731 (100.0%)		8,500 (100.0%)		8,612 (100.0%)	

1) 표본설계는 본원 2011년도 고유과제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의 공동연구원인 강현철 교수가 제안, 작성한 것으로 통합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임.

표 I-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서울	1,505	462	509	448	86	47.2	16.8	14.9	12.4	3.1
부산	556	165	191	151	51	18.5	6.6	5.8	4.3	1.9
대구	460	138	159	128	33	14.2	5.1	4.4	3.5	1.1
인천	482	150	166	131	36	16.0	6.2	4.7	3.9	1.2
광주	300	96	103	78	21	9.1	3.6	2.8	2.1	0.6
대전	281	88	97	79	17	9.0	3.4	2.8	2.2	0.6
울산	223	69	77	61	16	7.1	2.7	2.3	1.6	0.5
경기	2,076	685	709	518	163	64.9	25.7	20.2	14.0	5.0
강원	252	82	86	49	36	12.0	5.2	3.5	1.8	1.5
충북	268	85	92	61	28	10.7	4.5	3.4	1.8	0.9
충남	341	113	115	85	28	14.1	6.3	4.1	2.7	1.1
전북	329	105	113	75	37	15.2	6.5	4.7	2.5	1.5
전남	319	103	109	73	34	15.1	6.5	4.5	2.5	1.6
경북	423	135	144	101	43	19.3	8.1	6.1	3.4	1.7
경남	578	188	200	148	44	23.0	9.5	7.2	4.6	1.6
제주	108	36	37	24	12	4.0	1.7	1.2	0.7	0.4
합계	8,500	2,698	2,908	2,208	687	299.4	118.5	92.6	64.1	24.2

표 I-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서울	1,443	413	512	434	84	45	15(5)	15(5)	12(4)	3(1)
부산	536	149	198	107	82	18	6(2)	6(2)	3(1)	3(1)
대구	388	80	107	108	93	12	3(1)	3(1)	3(1)	3(1)
인천	441	146	107	100	88	15	6(2)	3(1)	3(1)	3(1)
광주	406	80	111	114	101	12	3(1)	3(1)	3(1)	3(1)
대전	376	79	103	107	87	12	3(1)	3(1)	3(1)	3(1)
울산	383	76	102	112	93	12	3(1)	3(1)	3(1)	3(1)
경기	1,732	559	631	444	98	54	21(7)	18(6)	12(4)	3(1)
강원	278	47	74	83	74	12	3(1)	3(1)	3(1)	3(1)
충북	326	57	81	99	89	12	3(1)	3(1)	3(1)	3(1)
충남	366	108	84	95	79	15	6(2)	3(1)	3(1)	3(1)
전북	333	97	72	90	74	15	6(2)	3(1)	3(1)	3(1)
전남	318	95	73	86	64	15	6(2)	3(1)	3(1)	3(1)
경북	409	100	141	90	78	18	6(2)	6(2)	3(1)	3(1)
경남	521	178	166	96	81	21	9(3)	6(2)	3(1)	3(1)
제주	356	62	95	106	93	12	3(1)	3(1)	3(1)	3(1)
합계	8,612	2,326	2,657	2,271	1,358	300	102(34)	84(28)	66(22)	48(16)

* 주: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2) 표본 배분

학생 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16개)×학교급(4개)=64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3>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I-3>과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표본학교는 결론적으로 총 300여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에 21명(학년 당 7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16개)×학교급(4개)=64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 수가 300개가 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30명, 인문계 고등학교 34명, 전문계 고등학교 28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표 I-4>와 같다.

3) 표본 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4>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16개)×학교급(6개)=96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3. 실사 설계²⁾

1) 리스트 정제 및 사전 접촉

이상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표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실사 진행을 위해 먼저 학교별 리스트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학교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의 누락 여부 및 휴교중인 학교 등 조사 대상학교의 적절성, 조사 대상 학교의 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였다. 이후 조사 협조도 제고를 위해 조사 협조 경험이 높은 면접원을 위주로 투입하여 면접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원표본 유지율을 높이고 대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들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협조를 거절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체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컨택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 학교의 교감 선생님 앞으로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한 후 사전 접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 조사에 대해 사전 인지하도록 하여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2) 학교 방문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면접원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 및 교육, 학교 조사 경험자를 중심으로 면접원을 선발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사 담당 연구원이 각 지역별(서울,

2) 실사 설계 부문은 본원의 통합조사의 수행을 맡은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 기술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음.

부산, 대구, 대전, 광주)로 집체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 또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접촉 면접원, 학교 방문 면접원, 코딩 및 에디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 조사 내용, 학교 접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실사 진행

사전 접촉 시 지정된 담당 교사에게 연락하여 방문 약속을 잡았으며, 방문 조사원은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담당 교사의 안내를 받아 직접 학생들을 통솔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문 조사원은 학교의 교급에 따라 2인 1조의 시스템과 1인 1조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도와 이해력이 낮아 학생들을 충분히 통제하기 위해 면접원 2인이 1조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함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설문에 대한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제를 싫어하는 경향을 보여 면접원 1인이 1개 학급의 조사를 진행함

1개 학교에서 완료해야 하는 모든 과제를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만 해당 샘플의 조사 완료로 보고, 일부 과제의 누락 또는 특정 사유로 인해 조사 대상 학급 학생들의 30% 이상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진행한 모든 설문지를 폐기하고, 다른 학교로 대체하였다.

4) 조사표 검증 및 자료 처리

조사표 검증은 총 3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1차는 현장에서 설문지를 회수하기 전에 무응답 여부, 분기 문항 등을 확인하고, 2차 검증은 조사표를 회수한 뒤 학급을 떠나기 전에 검토하고, 3차 검증은 연관 문항을 중심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연관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사표를 재확인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 더블펀치를 실시하여 입력 에러율을 최소화하였으며, 자료 입력 시 설문 로직 등을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설정하여 자료 입력 과정에서 설문지 기입 오류를 확인 및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표를 확인하고, 문항 간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앞서 <표 I-2>와 같이 8,500명으로 결정하였으나, 목표 표본 크기에 따라 단순비례배분에 의해 표본 크기를 할당할 경우 특정층에 너무 작은 표본 크기가 배당되기에 <표 I-4>와 같이 변형비례배분에 의해 표본 크기를 할당하였다. 이후 지역별로 할당된 학교 수에 따라 학교별 1개 학년 1개 학급의 학생 전원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기에 실제 목표로 삼은 크기보다 많은 표본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조사된 최종 조사 표본 수는 <표 I-5>와 같이 9,435명이었다.

표 I-5 조사 표본 수

지역	총계	교급 및 학년별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9,435	972	1,002	969	933	937	974	781	766	755	474	415	457
서울	1,393	148	134	142	147	159	175	136	137	143	23	27	22
부산	536	56	53	51	62	67	65	39	33	29	28	24	29
대구	396	26	29	29	32	27	42	39	39	39	35	26	33
인천	470	49	54	58	39	35	39	36	37	37	27	28	31
광주	383	26	28	30	30	38	38	38	35	24	35	30	31
대전	362	33	31	31	35	33	23	35	36	27	31	21	26
울산	370	34	26	23	38	27	32	33	35	40	25	26	31
경기	1,822	199	216	210	223	223	217	143	154	149	34	24	30
강원	395	30	33	28	34	35	37	38	40	38	32	25	25
충북	348	24	31	20	23	33	36	39	25	39	22	32	24
충남	478	64	58	58	34	33	29	29	35	35	39	32	32
전북	468	51	89	60	32	33	36	30	35	31	31	18	22
전남	450	54	52	56	38	37	35	35	28	31	30	22	32
경북	523	53	57	59	63	67	62	41	36	24	20	23	18
경남	642	91	88	81	65	59	69	35	30	31	30	31	32
제주	399	34	23	33	38	31	39	35	31	38	32	26	39

한편 최종 조사 표본 수에 따른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I-6>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조사 표본 수 중 남자가 4,874명(51.7%)이었고, 여자는 4,561명(48.3%)이었다. 또한 초등학생은 2,943명(31.2%), 중학생은 2,844명(30.1%), 고등학생은 3,648명(38.7%)이었다.

표 I-6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9,435	100.0
성별	남자	4,874	51.7
	여자	4,561	48.3
학교급	초등학교	2,943	31.2
	중학교	2,844	30.1
	고등학교	3,648	38.7
학교소재지	서울	1,393	14.8
	광역시	2,432	25.8
	시군	5,610	59.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8,513	90.2
	한부모가정	743	7.9
	조손가정	82	0.9
	기타	91	1.0
	무응답	6	0.1
경제적 수준	상	1,834	19.4
	중	7,089	75.1
	하	466	4.9
	무응답	46	0.5

5. 조사내용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개발은 1차적으로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에서 개발한 심리건강 영역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존 조사도구에서 조사영역 및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된 사항³⁾은 개인내적 영역 중 부정적 요인에 대한 부분인데, 아동·청소년이 많이 경험하는 우울, 불안, 게임중독과 비행에 관한 세부영역이 포함되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에 관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조사도구에서 수정·보완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문헌검토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후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영역과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통계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진회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영역과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3) 우울, 불안의 경우 기존 조사에서도 실시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문항 수를 추가하여 조사하였음.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및 학교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 영역 중 개인영역은 다시 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부정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긍정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영역의 경우는 부모의 지원, 가족관계 질 변인들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영역은 지역사회 지원과 지역사회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영역은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 등의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조사 영역과 조사 내용 그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에 대한 사항은 <표 I-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7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α
개인영역	부정적 요인	우울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의 정도	21	.898
		불안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불안의 정도	21	.883
		게임중독	게임지향적 생활, 내성과 통제력 상실, 금단과 정서경험 경향성	20	.927
		자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의 경험	3	-
		스트레스	부모, 형제자매, 외모, 건강, 경제, 친구, 이성, 선후배, 선생님 관계, 진로, 학업문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12	.903
		비행	흡연, 음주, 절도, 폭행, 강탈,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도박, 공공기물 파손 경험	10	.797
	긍정적 요인	생활만족도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여가 생활,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의 만족도 정도	8	.833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	5	.904
		자기효능감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	3	.862
		정서조절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	3	.800
		낙관주의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보고, 또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	3	.791
가족영역	부모의 지원		정서, 정보, 경제적 지원의 정도	14	.975
	가족관계 질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	5	.925
지역사회영역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이외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의 정도	3	.836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의 단체나 기관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3	.759
학교영역	학교수업		학업에 대한 유능감을 갖고 있는 정도	3	.825
	교사관계		교사와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를 하는 정도	3	.892
	친구관계		친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3	.848
	학교생활		학교시설과 물건을 아끼고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정도	3	.713

* 주: 각 변인에 대한 세부 문항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제 2 장

조사결과

1. 개인영역
 - 1) 부정적 요인
 - 2) 긍정적 요인
2. 가족영역
 - 1) 부모의 지원
 - 2) 가족관계 질
3. 지역사회 영역
 - 1) 지역사회 지원
 - 2) 지역사회 상호작용
4. 학교영역
 - 1) 학교수업
 - 2) 교사관계
 - 3) 친구관계
 - 4) 학교생활

1. 개인영역

1) 부정적 요인

(1) 우울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우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M=0.4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M=0.42)', '죄책감/자기혐오(M=0.40)', '신체적 측면(M=0.37)'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1 우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죄책감 /자기혐오	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슬픔	0.31	0.57
	3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실패	0.35	0.67
	5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죄책감	0.31	0.55
	6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벌	0.44	0.70
	7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0.48	0.66
	8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책	0.47	0.65
	9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살	0.46	0.65
소계			0.40	0.44
부정적 자기상 /정신운동 지연	12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0.38	0.60
	13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결정	0.55	0.67
	14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0.51	0.79
	15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일할 의욕	0.40	0.61
	2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성욕	0.27	0.69
소계			0.42	0.44
신체적 측면	16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잠	0.33	0.59
	17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피곤함	0.74	0.67
	18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식욕	0.32	0.65
	19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체중변화	0.22	0.54
	20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0.24	0.49
소계			0.37	0.36
정서적인 표현 /부정적 인지	2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0.42	0.63
	4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0.55	0.75
	10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울기	0.24	0.60
	1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짜증	0.69	0.71
소계			0.48	0.48
우울 영역(전체)			0.41	0.36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우울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울의 세부요인을 구성하는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부정적자기상/정신운동지연, 죄책감/자기혐오, 신체적 측면 모두에서 거주지 변인만 제외한 성별, 교급별, 그리고 가족구성별 변인의 각 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세부요인에서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교급별로는 초·중·고등학생 순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든 세부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네 가지 우울요인 모두에서 한부모가정의 응답자가 양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우울별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거주지변인을 제외한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 수준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죄책감 /자기혐오		부정적 자기상 /정신운동지연		신체적 측면		정서적인 표현 /부정적 인지		우울(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874)	0.37 (0.43)	-8.430 ***	0.40 (0.43)	-5.161 ***	0.36 (0.37)	-3.202 ***	0.41 (0.45)	-13.753 ***	0.38 (0.35)	-9.220 ***
	여자 (n=4561)	0.44 (0.45)		0.44 (0.45)		0.38 (0.35)		0.55 (0.51)		0.45 (0.37)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0.28 (0.38)	209.081 *** (ab,ac, bc)	0.31 (0.40)	151.176 *** (ab,ac, bc)	0.30 (0.35)	124.069 *** (ab,ac, bc)	0.35 (0.44)	192.560 *** (ab,ac, bc)	0.30 (0.33)	250.371 *** (ab,ac, bc)
	중학교 (n=2844)	0.42 (0.44)		0.43 (0.43)		0.36 (0.35)		0.48 (0.47)		0.42 (0.36)	
	고등학교 (n=3648)	0.49 (0.46)		0.50 (0.45)		0.44 (0.37)		0.58 (0.50)		0.50 (0.37)	
거주지	서울 (n=1393)	0.41 (0.43)	0.333	0.42 (0.43)	1.695	0.37 (0.35)	0.206	0.48 (0.48)	0.776	0.41 (0.35)	0.210
	광역시 (n=2432)	0.41 (0.44)		0.41 (0.44)		0.37 (0.36)		0.47 (0.48)		0.41 (0.36)	
	사군 (n=5610)	0.40 (0.44)		0.43 (0.44)		0.37 (0.37)		0.48 (0.48)		0.41 (0.3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0.39 (0.43)	17.983 *** (gh)	0.41 (0.43)	9.380 *** (gh)	0.36 (0.36)	14.122 *** (gh)	0.46 (0.48)	14.129 *** (gh)	0.40 (0.36)	20.050 *** (gh)
	한부모가정 (n=743)	0.53 (0.50)		0.51 (0.48)		0.45 (0.40)		0.60 (0.52)		0.52 (0.40)	
	조손가정 (n=82)	0.42 (0.44)		0.44 (0.45)		0.45 (0.45)		0.47 (0.51)		0.45 (0.40)	
전체 <i>M</i> (<i>SD</i>)		0.40(0.44)		0.42(0.44)		0.37(0.36)		0.48(0.48)		0.4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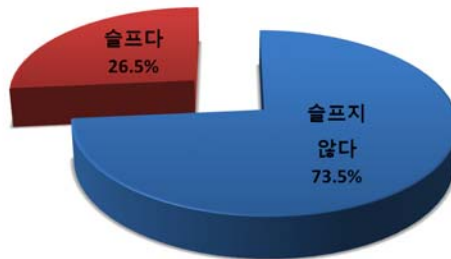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슬픔'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3.5%가 '슬프지 않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슬픔'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73.5%가 '슬프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26.5%는 '슬프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32.2%)이 남학생들(21.1%)보다 슬프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5.8%)에서 고등학교(35.3%)로 올라갈수록 슬픔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36.9%)이 슬프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조손가정(19.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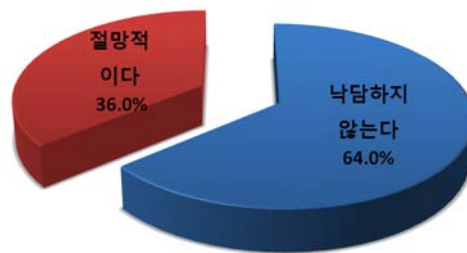
표 II-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슬프지 않다	슬프다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73.5	22.8	2.7	0.9	0.0
성별	남자	100(4,874)	78.9	17.6	2.5	1.0	0.0
	여자	100(4,561)	67.8	28.3	2.9	0.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4.1	13.1	1.7	1.0	0.0
	중학교	100(2,844)	73.8	23.1	2.3	0.7	0.0
	고등학교	100(3,648)	64.7	30.3	3.9	1.1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2.5	23.5	3.2	0.7	0.0
	광역시	100(2,432)	73.2	23.2	2.8	0.7	0.1
	시군	100(5,610)	73.9	22.4	2.6	1.1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4.4	22.1	2.5	0.9	0.0
	한부모가정	100(743)	63.0	30.4	5.0	1.5	0.1
	조손가정	100(82)	80.5	15.9	2.4	1.2	0.0

(1)-②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앞날에 대한 기대'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4.0%가 '낙담하지 않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앞날에 대한 기대'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4.0%가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6.0%는 '절망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앞날에 대해 낙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8.8%)에서 고등학생(48.9%)으로 올라갈수록 앞날에 대해 절망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43.9%)이 절망적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조손가정(31.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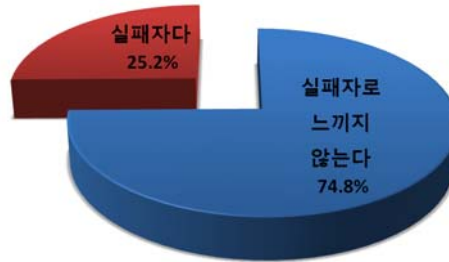
표 II-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4.0	30.7	4.3	1.0	0.1
성별	남자	100(4,874)	67.5	26.8	4.4	1.3	0.1
	여자	100(4,561)	60.2	34.8	4.3	0.7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1.1	14.2	3.6	1.0	0.1
	중학교	100(2,844)	62.9	31.3	4.7	1.1	0.1
	고등학교	100(3,648)	51.0	43.4	4.6	0.9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4.1	30.7	4.3	0.9	0.0
	광역시	100(2,432)	64.2	30.1	4.4	1.2	0.1
	시군	100(5,610)	63.8	30.9	4.3	0.9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4.7	30.2	4.1	1.0	0.1
	한부모가정	100(743)	56.0	35.3	7.1	1.5	0.1
	조손가정	100(82)	68.3	28.0	2.4	1.2	0.0

(1)-③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실패'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4.8%가 '실패자로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실패'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74.8%가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25.2%는 '실패자이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16.7%)에서 고등학생(30.6%)으로 올라갈수록 실패자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34.1%)이 실패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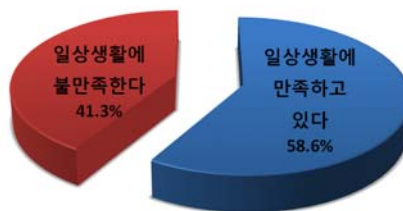
표 II-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보통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다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이다	무응답
전체		100(9,435)	74.8	15.8	8.6	0.7	0.1
성별	남자	100(4,874)	75.7	16.4	6.9	0.9	0.1
	여자	100(4,561)	73.8	15.2	10.5	0.4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3.2	12.7	3.5	0.5	0.1
	중학교	100(2,844)	73.0	18.2	8.0	0.7	0.0
	고등학교	100(3,648)	69.4	16.5	13.3	0.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4.9	15.9	8.5	0.6	0.0
	광역시	100(2,432)	72.6	17.1	9.5	0.7	0.1
	시군	100(5,610)	75.7	15.3	8.3	0.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5.6	15.7	8.0	0.6	0.0
	한부모가정	100(743)	65.7	17.9	14.7	1.5	0.3
	조손가정	100(82)	73.2	18.3	6.1	2.4	0.0

(1)-④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상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8.6%가 '만족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상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41.3%가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58.6%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43.8%)이 남학생들(39.0%)보다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27.3%)에서 고등학교(51.7%)으로 올라갈수록 불만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불만족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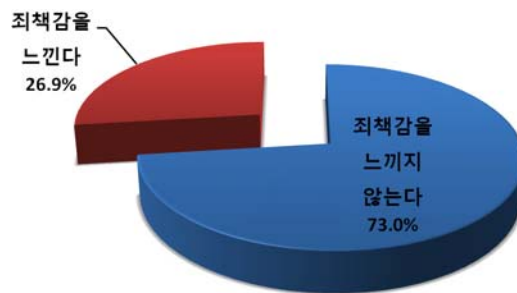
표 II-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무응답
전체		100(9,435)	58.6	30.4	8.5	2.4	0.1
성별	남자	100(4,874)	60.9	30.0	6.7	2.2	0.2
	여자	100(4,561)	56.1	30.8	10.3	2.7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2.6	21.8	3.5	1.9	0.1
	중학교	100(2,844)	57.3	32.1	7.8	2.6	0.1
	고등학교	100(3,648)	48.2	36.0	13.0	2.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7.4	31.0	9.3	2.3	0.0
	광역시	100(2,432)	57.4	31.3	8.2	2.7	0.3
	시군	100(5,610)	59.3	29.9	8.4	2.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9.5	30.1	8.0	2.3	0.1
	한부모가정	100(743)	49.0	34.1	13.5	3.2	0.3
	조손가정	100(82)	62.2	26.8	6.1	3.7	1.2

(1)-⑤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죄책감'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3.0%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죄책감'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6.9%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73.0%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20.5%)에서 고등학교(31.7%)으로 올라갈수록 죄책감 수준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37.3%)이 양부모가정(25.9%)과 조손가정(26.8%)에 비해 죄책감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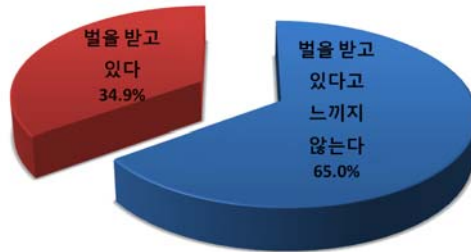
표 II-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무응답
전체		100(9,435)	73.0	23.6	2.5	0.7	0.1
성별	남자	100(4,874)	71.7	24.8	2.7	0.7	0.1
	여자	100(4,561)	74.5	22.4	2.3	0.7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9.4	18.3	1.8	0.4	0.1
	중학교	100(2,844)	72.5	24.1	2.4	0.8	0.1
	고등학교	100(3,648)	68.3	27.6	3.2	0.9	0.0
거주지	서울	100(1,393)	73.9	22.2	3.0	0.8	0.1
	광역시	100(2,432)	72.6	24.2	2.4	0.7	0.1
	시군	100(5,610)	73.0	23.8	2.4	0.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4.0	22.7	2.5	0.7	0.1
	한부모가정	100(743)	62.6	33.2	3.5	0.5	0.1
	조손가정	100(82)	73.2	26.8	0.0	0.0	0.0

(1)-⑥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별'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5.0%가 '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별에 대한 느낌'관련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34.9%가 '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65.0%는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32.3%)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별에 대한 느낌 수준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42.0%)이 양부모가정(34.2%)과 조손가정(39.0%)에 비해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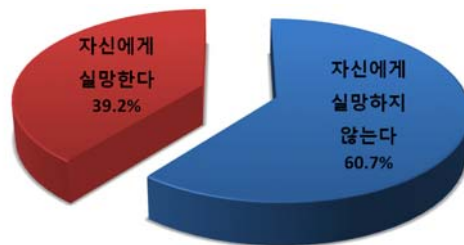
표 II-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어쩌면 별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별을 받을 것 같다	지금 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5.0	28.3	3.9	2.7	0.1
성별	남자	100(4,874)	65.6	27.8	3.9	2.6	0.1
	여자	100(4,561)	64.3	28.9	3.9	2.7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7.6	26.6	3.7	2.0	0.1
	중학교	100(2,844)	63.8	29.0	4.4	2.6	0.1
	고등학교	100(3,648)	63.8	29.2	3.7	3.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5.0	28.4	3.8	2.7	0.0
	광역시	100(2,432)	65.1	27.7	3.8	3.1	0.2
	시군	100(5,610)	64.9	28.6	4.0	2.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5.7	27.8	3.8	2.6	0.1
	한부모가정	100(743)	57.9	33.4	5.0	3.6	0.1
	조손가정	100(82)	61.0	32.9	4.9	1.2	0.0

(1)-⑦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0.7%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0.7%가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9.2%는 '실망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44.2%)이 남학생들(34.6%)보다 실망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실망 수준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49.7%)이 자신에 대한 실망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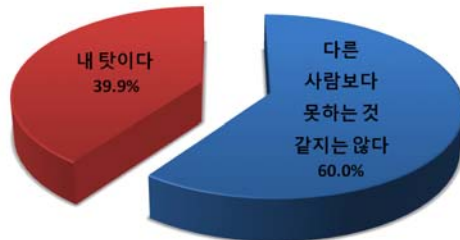
표 II-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나 자신을 증오했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0.7	31.9	6.3	1.0	0.1
성별	남자	100(4,874)	65.3	28.1	5.3	1.1	0.1
	여자	100(4,561)	55.8	35.8	7.4	0.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1.8	14.2	3.1	0.7	0.1
	중학교	100(2,844)	57.7	34.5	6.5	1.2	0.1
	고등학교	100(3,648)	46.0	44.1	8.8	1.1	0.0
거주지	서울	100(1,393)	60.3	32.5	6.0	1.1	0.1
	광역시	100(2,432)	60.7	32.4	6.1	0.7	0.1
	시·군	100(5,610)	60.8	31.5	6.5	1.1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1.6	31.3	6.1	0.9	0.1
	한부모가정	100(743)	50.2	38.6	8.9	2.2	0.1
	조손가정	100(82)	63.4	28.0	7.3	1.2	0.0

(1)-⑧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책’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0.0%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책감’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9.9%가 ‘내 탓이다’라고 응답하였고, 60.0%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44.2%)이 남학생들(36.0%)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책을 보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자책에 대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자책감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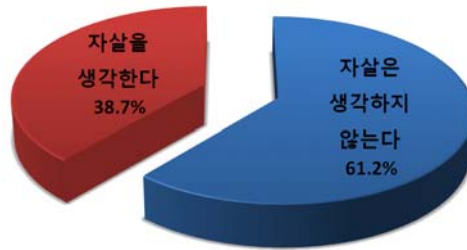
표 II-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내가 한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언제나 나를 탓한다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모두 내 탓이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0.0	33.7	5.0	1.2	0.1
성별	남자	100(4,874)	64.0	30.4	4.5	1.1	0.1
	여자	100(4,561)	55.7	37.3	5.5	1.3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3.3	22.2	3.1	1.2	0.1
	중학교	100(2,844)	59.0	35.1	4.8	1.1	0.1
	고등학교	100(3,648)	49.9	41.9	6.7	1.3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1.4	32.8	4.5	1.4	0.0
	광역시	100(2,432)	59.4	33.8	5.4	1.3	0.0
	시군	100(5,610)	59.8	33.9	5.0	1.1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0.5	33.6	4.7	1.1	0.1
	한부모가정	100(743)	54.9	34.7	8.6	1.5	0.3
	조손가정	100(82)	56.1	36.6	3.7	3.7	0.0

(1)-⑨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살’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1.2%가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자살’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61.2%가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8.7%는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46.2%)이 남학생들(31.7%)보다 자살 생각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고,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자살 생각에 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자살 생각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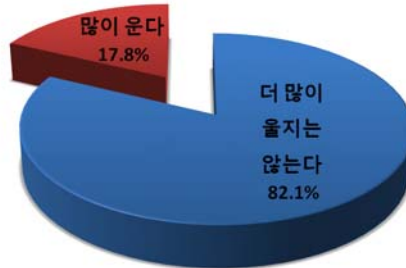
표 II-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자살 같은건 생각하지 않는다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진 않을 것이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1.2	32.5	4.9	1.4	0.1
성별	남자	100(4,874)	68.2	26.8	3.8	1.1	0.1
	여자	100(4,561)	53.7	38.5	6.1	1.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0.7	24.3	4.1	0.9	0.1
	중학교	100(2,844)	56.6	36.4	5.5	1.5	0.1
	고등학교	100(3,648)	57.2	36.0	5.1	1.6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9.2	34.5	5.3	1.1	0.0
	광역시	100(2,432)	61.6	32.2	4.5	1.6	0.1
	시군	100(5,610)	61.6	32.1	5.0	1.3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2.1	31.9	4.6	1.3	0.0
	한부모가정	100(743)	53.6	36.1	8.1	2.2	0.1
	조손가정	100(82)	53.7	39.0	3.7	2.4	1.2

(1)-⑩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울기'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2.1%가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울기'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2.1%가 '평소보다 많이 울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17.8%는 '많이 운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26.4%)이 남학생들(9.7%)보다 울기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24.1%)이 울기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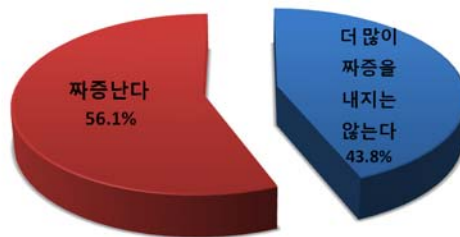
표 II-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평소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전 보다 더 많이 운다	요즘은 항상 운다	전에는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 기력조차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82.1	13.2	2.6	2.0	0.1
성별	남자	100(4,874)	90.2	6.7	1.3	1.7	0.1
	여자	100(4,561)	73.6	20.1	4.0	2.3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2.9	12.4	2.9	1.7	0.1
	중학교	100(2,844)	82.5	13.6	2.4	1.4	0.1
	고등학교	100(3,648)	81.2	13.4	2.5	2.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83.1	12.8	2.1	1.9	0.0
	광역시	100(2,432)	83.9	12.2	2.1	1.7	0.1
	시군	100(5,610)	81.1	13.7	2.9	2.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2.7	12.8	2.5	1.9	0.1
	한부모가정	100(743)	75.6	16.8	4.0	3.2	0.3
	조손가정	100(82)	82.9	12.2	1.2	3.7	0.0

(1)-⑪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짜증'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6.1%가 '짜증이 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짜증'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56.1%가 '전보다 더 짜증이 난다'라고 응답하였고, 43.8% 만이 '평소보다 짜증을 내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대체로 여학생들(62.7%)이 남학생들(50.0%)보다 '짜증이 난다'라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초등학교(46.7%)에서 중학교(58.2%), 고등학교(62.0%)으로 올라갈수록 '짜증이 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가정과 양부모가정에서 보다는 한부모가정에서 짜증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II】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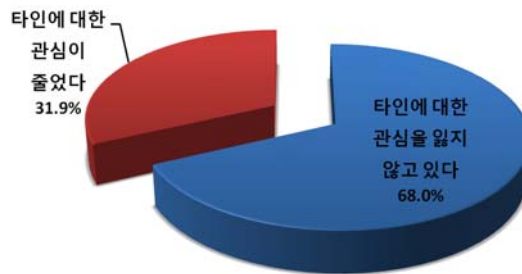
표 II-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전보다 더 쉽게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3.8	45.1	9.4	1.7	0.1
성별	남자	100(4,874)	49.9	41.3	7.4	1.3	0.1
	여자	100(4,561)	37.3	49.1	11.5	2.1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3.3	38.7	6.7	1.3	0.0
	중학교	100(2,844)	41.6	47.2	9.6	1.4	0.1
	고등학교	100(3,648)	37.9	48.5	11.3	2.2	0.0
거주지	서울	100(1,393)	42.9	46.7	8.7	1.7	0.0
	광역시	100(2,432)	46.3	42.8	9.0	1.8	0.1
	시군	100(5,610)	43.0	45.6	9.7	1.7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4.7	44.5	9.2	1.6	0.0
	한부모가정	100(743)	35.3	51.0	10.9	2.7	0.1
	조손가정	100(82)	41.5	46.3	8.5	3.7	0.0

(1)-⑫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타인에 대한 관심'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8.0%가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타인에 대한 관심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8.0%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31.9%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녀 성별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고, 초등학생(24.8%)에서 중학생(31.9%), 고등학생(37.8%)으로 올라갈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타인에 대한 관심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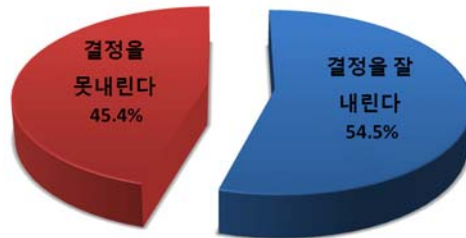
표 II-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전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8.0	27.3	3.9	0.8	0.1
성별	남자	100(4,874)	69.3	26.2	3.4	0.9	0.1
	여자	100(4,561)	69.3	26.2	3.4	0.9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5.1	20.8	3.0	1.0	0.1
	중학교	100(2,844)	68.0	27.6	3.5	0.7	0.1
	고등학교	100(3,648)	62.2	32.2	4.9	0.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9.0	25.8	3.9	1.2	0.1
	광역시	100(2,432)	68.5	27.1	3.7	0.5	0.1
	시군	100(5,610)	67.5	27.7	4.0	0.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8.5	26.9	3.7	0.8	0.1
	한부모가정	100(743)	61.8	31.6	5.8	0.7	0.1
	조손가정	100(82)	67.1	29.3	3.7	0.0	0.0

(1)-⑬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결정'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4.5%가 '결정을 잘 내린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의 결정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중 54.5%가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라고 응답하였고, 45.4%는 '결정을 잘 못 내린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결정을 잘 내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초등학생(37.1%)에서 중학생(46.4%), 고등학생(51.4%)으로 올라갈수록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평소 결정을 잘 내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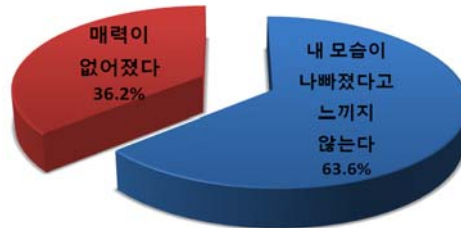
표 II-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결정을 이루는 대가 전보다 더 많다	전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54.5	37.1	7.6	0.7	0.1
성별	남자	100(4,874)	55.8	37.3	5.8	0.9	0.1
	여자	100(4,561)	53.1	36.8	9.5	0.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2.8	31.1	4.9	1.1	0.1
	중학교	100(2,844)	53.6	38.7	7.1	0.6	0.1
	고등학교	100(3,648)	48.6	40.6	10.3	0.5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5.3	36.5	7.5	0.7	0.0
	광역시	100(2,432)	57.0	35.3	6.8	0.8	0.1
	시군	100(5,610)	53.2	38.0	8.0	0.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5.2	36.5	7.5	0.7	0.0
	한부모가정	100(743)	46.4	43.7	9.0	0.7	0.1
	조손가정	100(82)	59.8	31.7	4.9	3.7	0.0

(1)-⑭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의 매력'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3.6%가 '자신의 모습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의 매력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중 63.6%가 '내 자신의 모습이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고, 36.2%는 '매력이 없어졌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69.9%)이 여학생들(57.0%)보다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초등학생(77.6%)에서 중학생(62.3%), 고등학생(53.4%)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매력정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자신의 매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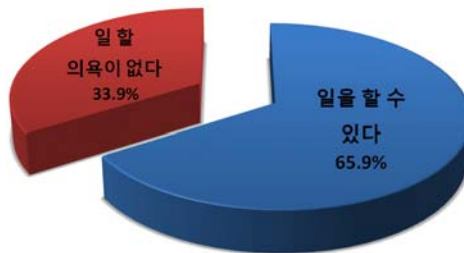
표 II-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내 모습이 매력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3.6	24.4	8.6	3.3	0.1
성별	남자	100(4,874)	69.9	21.3	6.0	2.6	0.1
	여자	100(4,561)	57.0	27.7	11.3	4.0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7.6	15.7	4.3	2.2	0.1
	중학교	100(2,844)	62.3	26.2	7.9	3.4	0.2
	고등학교	100(3,648)	53.4	30.0	12.5	4.0	0.0
거주지	서울	100(1,393)	62.7	24.5	10.3	2.4	0.1
	광역시	100(2,432)	64.8	24.1	7.8	3.2	0.1
	시군	100(5,610)	63.4	24.5	8.5	3.5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4.4	24.0	8.2	3.2	0.1
	한부모가정	100(743)	55.0	29.5	11.8	3.5	0.1
	조손가정	100(82)	69.5	13.4	11.0	4.9	1.2

(1)-⑮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 할 의욕'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5.9%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 할 의욕'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중 65.9%가 '전 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33.9%는 '일 할 의욕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69.1%)이 여학생들(62.6%)에 비해 일할 의욕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초등학생(77.0%)에서 중학생(65.4%), 고등학생(57.5%)으로 올라갈수록 일 할 의욕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았으며, 한부모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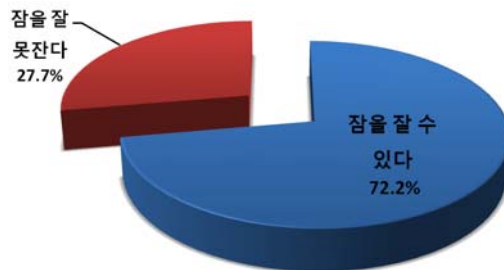
표 II-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많은 노력이 든다	무슨 일이든 하려면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 한다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5.9	29.4	3.6	0.9	0.1
성별	남자	100(4,874)	69.1	26.7	3.3	0.8	0.2
	여자	100(4,561)	62.6	32.2	4.1	1.1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7.0	20.4	1.8	0.7	0.1
	중학교	100(2,844)	65.4	30.5	3.2	0.7	0.1
	고등학교	100(3,648)	57.5	35.7	5.5	1.3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7.0	28.1	3.8	1.0	0.1
	광역시	100(2,432)	67.1	28.3	3.6	0.9	0.1
	시군	100(5,610)	65.2	30.1	3.6	0.9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6.5	29.0	3.5	0.8	0.1
	한부모가정	100(743)	60.0	32.8	5.2	1.7	0.1
	조손가정	100(82)	64.6	30.5	3.7	1.2	0.0

(1)-⑯ 우울 - 신체적 측면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잠'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잠을 잘 수 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숙면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72.2%가 '평소처럼 잠을 잘 잔다'라고 응답하였고, 27.7% 만이 '잠을 잘 못 잔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녀 성별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5.3%)에서 중학생(73.0%), 고등학교(68.9%)으로 올라갈수록 잠을 잘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조손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보다는 양부모가정에서 숙면을 잘 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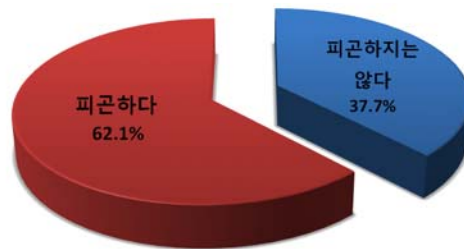
표 II-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72.2	23.6	3.2	1.0	0.1
성별	남자	100(4,874)	72.7	22.5	3.5	1.2	0.1
	여자	100(4,561)	71.6	24.8	2.9	0.7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5.3	19.0	4.2	1.5	0.1
	중학교	100(2,844)	73.0	23.6	2.5	0.8	0.1
	고등학교	100(3,648)	68.9	27.3	3.0	0.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3.7	22.9	2.3	1.0	0.1
	광역시	100(2,432)	71.1	24.8	3.1	0.8	0.2
	시군	100(5,610)	72.2	23.2	3.5	1.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2.8	23.3	3.0	0.9	0.1
	한부모가정	100(743)	66.8	26.1	5.4	1.5	0.3
	조손가정	100(82)	58.5	32.9	7.3	1.2	0.0

(1)-⑰ 우울 - 신체적 측면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피곤함’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2.1%가 ‘피곤하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피곤함’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62.1%가 ‘전 보다 피곤하다’라고 응답하였고, 37.7% 만이 ‘평소보다 피곤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42.6%)이 여학생들(32.5%)보다 전보다 피곤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52.9%)에서 중학생(36.0%), 고등학교(26.8%)으로 올라갈수록 피곤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에, 양부모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에서 피곤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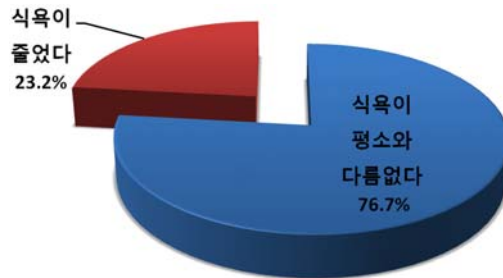
표 II-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7.7	51.8	9.1	1.2	0.1
성별	남자	100(4,874)	42.6	48.3	7.7	1.1	0.2
	여자	100(4,561)	32.5	55.6	10.6	1.3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2.9	42.0	4.3	0.6	0.1
	중학교	100(2,844)	36.0	54.0	8.7	1.1	0.2
	고등학교	100(3,648)	26.8	58.0	13.2	1.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5.7	54.3	9.3	0.6	0.1
	광역시	100(2,432)	38.0	51.4	9.3	1.0	0.3
	시군	100(5,610)	38.1	51.4	9.0	1.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8.7	51.2	8.8	1.2	0.1
	한부모가정	100(743)	27.1	59.9	11.7	1.2	0.1
	조손가정	100(82)	43.9	39.0	13.4	3.7	0.0

(1)-⑱ 우울 - 신체적 측면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식욕'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6.7%가 '식욕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식욕'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76.7%가 '평소와 다름없다'라고 응답하였고, 23.2% 만이 '식욕이 줄었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녀 성별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식욕이 줄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손가정(68.3%)보다는 한부모가정(72.7%)이, 한부모가정보다는 양부모가정(77.2%)에서 식욕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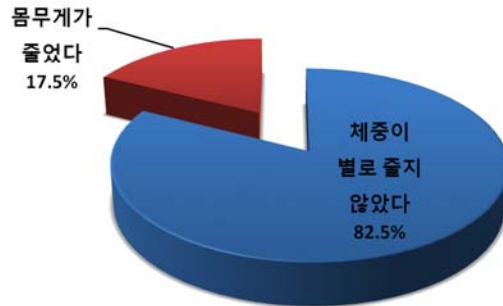
표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내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76.7	16.0	5.8	1.4	0.1
성별	남자	100(4,874)	76.6	16.0	5.9	1.3	0.2
	여자	100(4,561)	76.7	16.0	5.7	1.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0.0	13.5	4.4	1.9	0.2
	중학교	100(2,844)	76.4	15.8	6.5	1.2	0.2
	고등학교	100(3,648)	74.2	18.2	6.3	1.3	0.0
거주지	서울	100(1,393)	77.0	15.7	5.9	1.4	0.1
	광역시	100(2,432)	76.4	16.9	5.7	0.9	0.2
	시군	100(5,610)	76.7	15.7	5.8	1.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7.2	15.8	5.5	1.4	0.1
	한부모가정	100(743)	72.7	17.6	7.5	2.0	0.1
	조손가정	100(82)	68.3	19.5	9.8	2.4	0.0

(1)-⑬ 우울 - 신체적 측면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체중변화'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체중변화'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82.5%가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고, 17.5%는 '평소보다 체중이 줄었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80.4%)에 비해 여학생들(84.7%)에게서 체중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고, 초·중·고등학생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조손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는 양부모가정에서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



【그림 II-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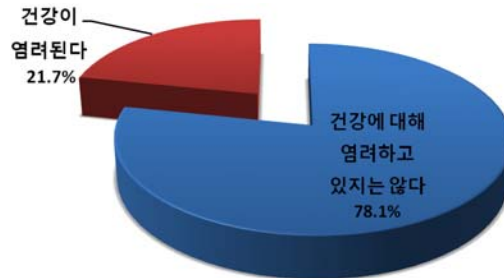
표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무응답
전체		100(9,435)	82.5	13.7	2.7	1.0	0.1
성별	남자	100(4,874)	80.4	14.2	3.7	1.6	0.1
	여자	100(4,561)	84.7	13.2	1.7	0.4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1.2	14.9	2.9	0.9	0.0
	중학교	100(2,844)	82.8	13.7	2.6	0.8	0.1
	고등학교	100(3,648)	83.2	12.7	2.7	1.4	0.0
거주지	서울	100(1,393)	80.9	14.6	3.2	1.3	0.0
	광역시	100(2,432)	82.8	13.1	2.9	1.2	0.1
	시군	100(5,610)	82.7	13.7	2.6	0.9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2.8	13.5	2.7	1.0	0.0
	한부모가정	100(743)	79.4	15.7	3.2	1.5	0.1
	조손가정	100(82)	78.0	17.1	3.7	1.2	0.0

(1)-㉔ 우울 - 신체적 측면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건강에 대한 염려'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8.1%가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78.1%가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21.7%는 '염려된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남학생(15.4%)에 비해 여학생(24.6%)에게서, 양부모·조손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26.2%)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동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림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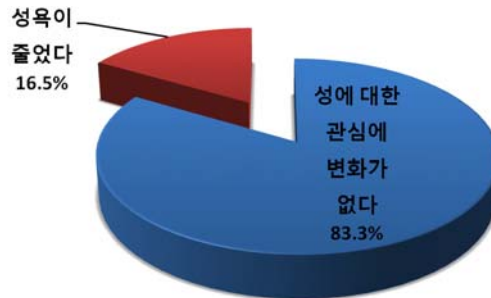
표 II-2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78.1	19.9	1.3	0.5	0.3
성별	남자	100(4,874)	81.9	15.4	1.6	0.7	0.4
	여자	100(4,561)	73.9	24.6	1.1	0.3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9.4	8.6	1.2	0.5	0.3
	중학교	100(2,844)	80.3	18.1	0.9	0.2	0.4
	고등학교	100(3,648)	67.2	30.3	1.8	0.6	0.2
거주지	서울	100(1,393)	80.4	17.7	1.0	0.5	0.4
	광역시	100(2,432)	78.1	20.0	1.5	0.3	0.1
	시·군	100(5,610)	77.5	20.3	1.4	0.5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8.8	19.3	1.3	0.4	0.2
	한부모가정	100(743)	70.3	26.2	2.2	0.8	0.5
	조손가정	100(82)	80.5	15.9	2.4	1.2	0.0

(1)-㉑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성욕'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3.3%가 '성에 대한 관심이 변화가 없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성에 대한 욕구'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83.3%가 '성에 대한 관심이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16.5%는 '관심이 줄었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21.2%)에 비해 여학생들(11.6%)에게서 성욕구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초·중·고등학생 간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에서 성욕구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표 II-2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무응답
전체		100(9,435)	83.3	9.4	3.8	3.4	0.2
성별	남자	100(4,874)	78.5	12.1	5.1	4.0	0.3
	여자	100(4,561)	88.3	6.4	2.3	2.8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5.3	7.4	2.5	4.6	0.1
	중학교	100(2,844)	81.5	9.1	5.3	3.7	0.4
	고등학교	100(3,648)	83.0	11.2	3.5	2.3	0.1
거주지	서울	100(1,393)	81.0	10.8	4.5	3.4	0.2
	광역시	100(2,432)	82.9	9.5	3.9	3.5	0.2
	시군	100(5,610)	84.0	9.0	3.5	3.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3.6	9.4	3.6	3.3	0.1
	한부모가정	100(743)	80.6	9.2	5.2	4.6	0.4
	조손가정	100(82)	78.0	13.4	2.4	6.1	0.0

(2) 불안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불안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M=0.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불안요인(M=0.43)’,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M=0.41)’, ‘공황적 불안요인(M=0.25)’ 순으로 나타남

표 II-24 불안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신경 생리학적 불안요인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45	0.62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50	0.70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69	0.82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0.60	0.75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0.26	0.59
	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0.27	0.57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0.11	0.39
소계			0.41	0.40
주관적 불안요인	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45	0.72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53	0.76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57	0.80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0.51	0.78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17	0.49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0.33	0.64
소계			0.43	0.51
자율 신경계적 불안요인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39	0.60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0.52	0.79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33	0.68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0.85	0.95
소계			0.52	0.48
공황적 불안요인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51	0.73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0.16	0.48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0.20	0.52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13	0.44
소계			0.25	0.40
불안 영역(전체)			0.40	0.3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불안 세부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2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불안의 하부요인인 자율신경계적 불안, 주관적 불안, 신경생리학적 불안, 공황적 불안 모두에서 성별, 교급별, 그리고 가족구성별 변인의 각 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율신경계적 불안의 경우에만 거주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자율신경계적 불안을 제외한 세부요인에서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교급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든 세부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네 가지 불안요인 모두에서 한부모가정의 응답자가 양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불안별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거주지변인을 제외한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 수준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2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2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주관적 불안요인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공황적 불안요인		불안(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874)	0.39 (0.39)	-3.876 ***	0.38 (0.48)	-9.063 ***	0.53 (0.47)	2.843**	0.23 (0.39)	-4.523 ***	0.38 (0.35)	-5.492 ***
	여자 (n=4561)	0.43 (0.41)		0.47 (0.54)		0.51 (0.49)		0.27 (0.41)		0.42 (0.39)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0.29 (0.35)	207.577 *** (ab,ac, bc)	0.31 (0.44)	156.565 *** (ab,ac, bc)	0.43 (0.44)	98.150 *** (ab,ac, bc)	0.18 (0.34)	75.791 *** (ab,ac, bc)	0.30 (0.33)	201.385 *** (ab,ac, bc)
	중학교 (n=2844)	0.43 (0.40)		0.42 (0.49)		0.51 (0.48)		0.25 (0.40)		0.41 (0.36)	
	고등학교 (n=3648)	0.49 (0.42)		0.52 (0.55)		0.60 (0.50)		0.30 (0.44)		0.48 (0.40)	
거주지	서울 (n=1393)	0.42 (0.42)	0.523	0.44 (0.51)	1.631	0.55 (0.49)	3.672* (df)	0.26 (0.40)	0.351	0.42 (0.38)	1.910
	광역시 (n=2432)	0.41 (0.40)		0.41 (0.50)		0.52 (0.49)		0.25 (0.39)		0.40 (0.37)	
	시·군 (n=5610)	0.41 (0.40)		0.43 (0.51)		0.51 (0.47)		0.25 (0.40)		0.40 (0.3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0.40 (0.40)	10.679 *** (gh)	0.41 (0.50)	10.246 *** (gh)	0.51 (0.48)	5.120 *** (gh)	0.24 (0.39)	7.300 *** (gh)	0.39 (0.37)	11.214 *** (gh)
	한부모가정 (n=743)	0.50 (0.44)		0.54 (0.58)		0.59 (0.50)		0.32 (0.47)		0.49 (0.42)	
	조손가정 (n=82)	0.49 (0.47)		0.43 (0.49)		0.56 (0.50)		0.25 (0.44)		0.44 (0.41)	
전체 M(SD)		0.41(0.40)		0.43(0.51)		0.52(0.48)		0.25(0.40)		0.40(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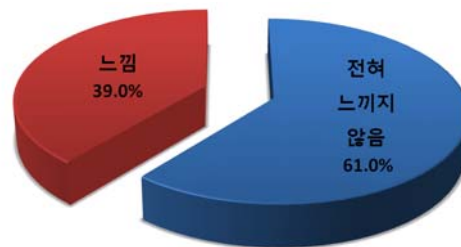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①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9.0%,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1.0%로 응답

-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서, 응답자의 61.0%가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9.0%는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37.7%)에 비해 여학생들(40.3%)에게서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고, 초등학생(28.0%)에서 중학생(41.5%), 고등학생(45.8%)으로 올라갈수록 동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그림 II-22】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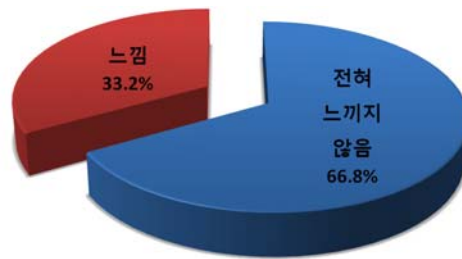
표 II-26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61.0	33.8	4.3	0.8	0.0
성별	남자	100(4,874)	62.3	32.6	4.1	1.0	0.0
	여자	100(4,561)	59.7	35.1	4.5	0.7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2.0	24.7	2.6	0.7	0.0
	중학교	100(2,844)	58.5	36.4	4.4	0.7	0.0
	고등학교	100(3,648)	54.1	39.1	5.6	1.1	0.0
거주지	서울	100(1,393)	60.2	34.2	4.8	0.9	0.0
	광역시	100(2,432)	61.2	33.8	4.3	0.7	0.0
	시군	100(5,610)	61.2	33.7	4.2	0.9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1.4	33.5	4.3	0.9	0.0
	한부모가정	100(743)	56.4	37.8	5.0	0.7	0.1
	조손가정	100(82)	58.5	35.4	3.7	2.4	0.0

(2)-②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3.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6.8%로 응답

-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66.8%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3.2%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25.3%)에 비해 남학생들(40.5%)에게서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초·중·고등학생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양부모 및 한부모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에서 상기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23】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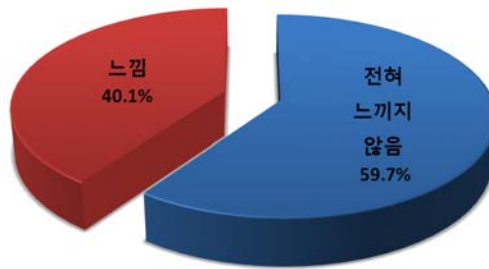
표 II-27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66.8	28.6	3.7	0.8	0.1
성별	남자	100(4,874)	59.4	34.4	4.8	1.3	0.1
	여자	100(4,561)	74.6	22.5	2.5	0.4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6.8	28.7	3.5	0.8	0.0
	중학교	100(2,844)	67.8	28.0	3.6	0.6	0.2
	고등학교	100(3,648)	66.0	29.1	3.9	1.1	0.0
거주지	서울	100(1,393)	62.0	32.2	4.7	1.1	0.1
	광역시	100(2,432)	67.8	27.8	3.3	1.0	0.1
	시·군	100(5,610)	67.5	28.1	3.6	0.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6.7	28.8	3.6	0.9	0.1
	한부모가정	100(743)	68.2	26.4	4.8	0.5	0.0
	조손가정	100(82)	72.0	26.8	1.2	0.0	0.0

(2)-③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40.1%,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59.7%로 응답

-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59.7%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40.1%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38.7%)에 비해 남학생들(41.3%)에게서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고, 초·중고등학생 간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본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4】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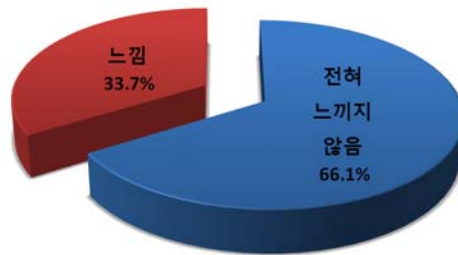
표 II-28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59.7	31.6	6.9	1.6	0.2
성별	남자	100(4,874)	58.4	32.1	7.5	1.7	0.3
	여자	100(4,561)	61.2	31.0	6.2	1.5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3.5	29.3	5.5	1.4	0.3
	중학교	100(2,844)	56.0	33.6	8.2	1.9	0.2
	고등학교	100(3,648)	59.6	31.8	7.0	1.6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9.3	31.2	7.5	1.8	0.2
	광역시	100(2,432)	58.8	32.4	7.3	1.3	0.2
	시군	100(5,610)	60.2	31.3	6.5	1.7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0.3	31.3	6.6	1.6	0.2
	한부모가정	100(743)	54.6	34.2	9.7	1.3	0.1
	조손가정	100(82)	50.0	35.4	9.8	3.7	1.2

(2)-④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3.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6.1%로 응답

-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66.1%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3.7%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32.0%)에 비해 여학생들(35.4%)에게서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고,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편하게 쉴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본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5】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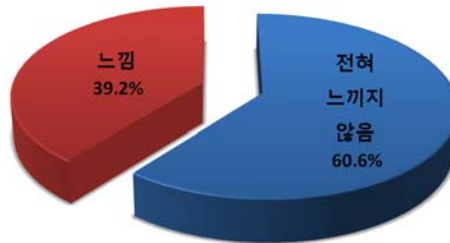
표 II-29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66.1	24.1	7.5	2.0	0.2
성별	남자	100(4,874)	67.7	23.2	6.5	2.3	0.2
	여자	100(4,561)	64.3	25.0	8.7	1.7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7.8	16.0	3.9	1.9	0.4
	중학교	100(2,844)	66.8	24.9	6.6	1.4	0.2
	고등학교	100(3,648)	56.1	30.1	11.2	2.6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5.8	24.8	7.0	2.2	0.3
	광역시	100(2,432)	65.4	25.1	7.3	1.9	0.3
	시군	100(5,610)	66.5	23.5	7.8	2.0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6.7	23.8	7.3	1.9	0.2
	한부모가정	100(743)	59.6	27.5	9.6	3.0	0.4
	조손가정	100(82)	62.2	26.8	6.1	4.9	0.0

(2)-⑤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9.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0.6%로 응답

-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0.6%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39.2%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37.7%)에 비해 여학생들(40.7%)에게서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고,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기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정한 경향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본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6】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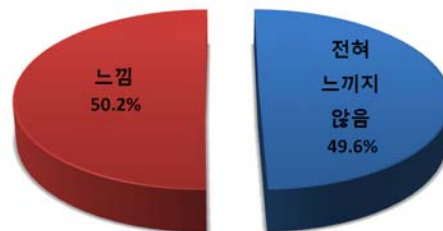
표 II-30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60.6	28.5	7.7	2.9	0.2
성별	남자	100(4,874)	62.1	27.3	7.0	3.4	0.2
	여자	100(4,561)	59.0	29.8	8.4	2.5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8.4	23.5	5.3	2.4	0.3
	중학교	100(2,844)	58.0	30.5	8.3	3.2	0.1
	고등학교	100(3,648)	56.4	31.0	9.2	3.2	0.2
거주지	서울	100(1,393)	58.3	28.8	9.1	3.7	0.1
	광역시	100(2,432)	61.8	27.8	7.0	3.1	0.2
	시군	100(5,610)	60.7	28.7	7.6	2.7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1.6	28.1	7.3	2.8	0.2
	한부모가정	100(743)	51.0	32.0	11.7	5.2	0.0
	조손가정	100(82)	57.3	30.5	8.5	3.7	0.0

(2)-⑥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50.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49.6%로 응답

- ‘나는 현기증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9.6%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50.2%는 ‘느낀다’라고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44.2%)에 비해 여학생들(56.8%)에게서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어지러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27】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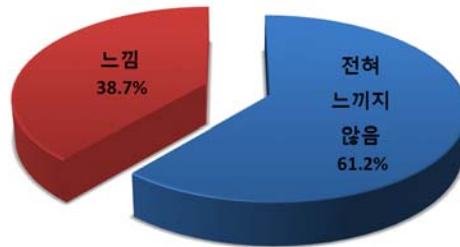
표 II-31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49.6	35.4	11.0	3.9	0.1
성별	남자	100(4,874)	55.7	31.9	9.2	3.1	0.2
	여자	100(4,561)	43.2	39.1	12.9	4.8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6.5	25.7	5.6	2.1	0.1
	중학교	100(2,844)	45.7	37.3	12.1	4.7	0.1
	고등학교	100(3,648)	39.1	41.7	14.4	4.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49.2	34.6	11.6	4.6	0.1
	광역시	100(2,432)	49.3	35.6	10.9	4.0	0.0
	시군	100(5,610)	49.9	35.5	10.8	3.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0.4	35.1	10.7	3.8	0.1
	한부모가정	100(743)	40.5	39.3	14.5	5.5	0.1
	조손가정	100(82)	50.0	35.4	12.2	2.4	0.0

(2)-⑦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8.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1.2%로 응답

-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1.2%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38.7%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36.4%)에 비해 여학생들(41.2%)에게서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교급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기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본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8】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표 II-32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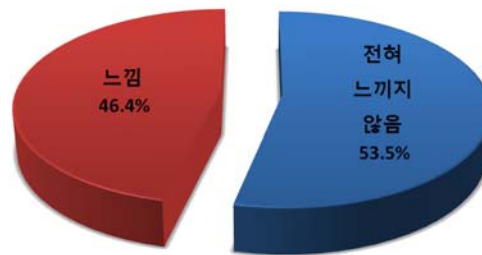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61.2	28.8	7.8	2.2	0.1
성별	남자	100(4,874)	63.4	27.2	7.1	2.1	0.1
	여자	100(4,561)	58.8	30.4	8.6	2.2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1.8	22.1	4.7	1.3	0.1
	중학교	100(2,844)	60.3	29.5	8.0	2.1	0.1
	고등학교	100(3,648)	53.3	33.6	10.2	2.9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0.3	28.6	8.5	2.4	0.2
	광역시	100(2,432)	61.6	28.3	8.0	2.0	0.0
	시군	100(5,610)	61.2	29.0	7.5	2.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1.7	28.6	7.5	2.1	0.1
	한부모가정	100(743)	54.5	31.1	10.9	3.5	0.0
	조손가정	100(82)	63.4	25.6	11.0	0.0	0.0

(2)-⑧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46.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53.5%로 응답

○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3.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46.4%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녀 성별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교급별로는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침착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양부모가정(54.1%)이 한부모가정(47.6%)과 조손가정(47.6%)에 비해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29】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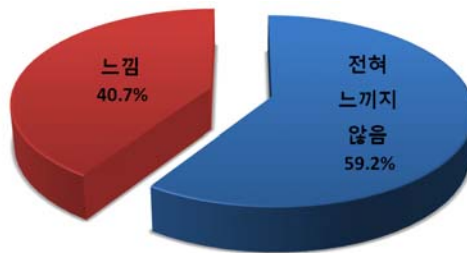
표 II-33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53.5	35.0	8.9	2.4	0.1
성별	남자	100(4,874)	53.1	34.8	9.2	2.8	0.1
	여자	100(4,561)	54.1	35.2	8.6	2.0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4.5	28.8	5.0	1.7	0.1
	중학교	100(2,844)	53.5	35.3	8.8	2.4	0.1
	고등학교	100(3,648)	44.8	39.8	12.2	3.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4.7	33.5	9.6	2.2	0.0
	광역시	100(2,432)	53.9	33.7	9.9	2.4	0.1
	시군	100(5,610)	53.1	36.0	8.3	2.5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4.1	35.0	8.5	2.3	0.1
	한부모가정	100(743)	47.6	35.7	12.7	4.0	0.0
	조손가정	100(82)	47.6	39.0	11.0	2.4	0.0

(2)-⑨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40.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59.2%로 응답

-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9.2%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40.7%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54.1%)에 비해 남학생들(64.0%)에게서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61.8%)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0】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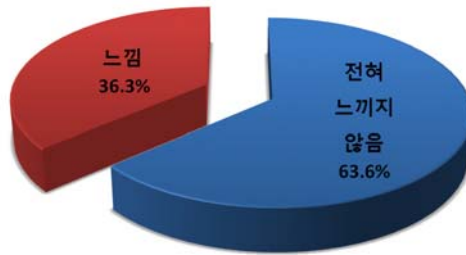
표 II-34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59.2	28.2	8.9	3.5	0.1
성별	남자	100(4,874)	64.0	26.4	6.8	2.6	0.2
	여자	100(4,561)	54.1	30.1	11.2	4.5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1.8	26.3	7.3	4.3	0.2
	중학교	100(2,844)	57.9	29.1	9.5	3.3	0.1
	고등학교	100(3,648)	58.1	29.0	9.7	3.1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9.2	27.6	9.3	3.9	0.0
	광역시	100(2,432)	60.2	28.7	8.2	2.7	0.2
	시·군	100(5,610)	58.8	28.1	9.1	3.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9.7	27.9	8.9	3.5	0.1
	한부모가정	100(743)	54.6	30.4	10.4	4.3	0.3
	조손가정	100(82)	58.5	31.7	4.9	4.9	0.0

(2)-⑩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6.3%,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3.6%로 응답

-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3.6%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36.3%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58.0%)에 비해 남학생들(68.8%)에게서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양부모가정(35.4%)과 조손가정(36.6%)에 비해 한부모가정(45.6%)에서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1】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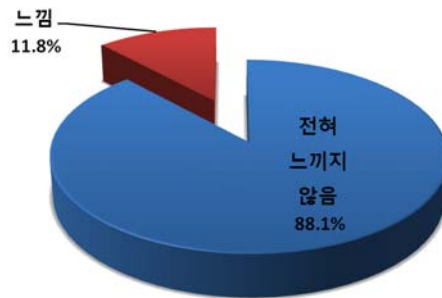
표 II-35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63.6	24.5	8.9	3.0	0.1
성별	남자	100(4,874)	68.8	21.9	7.0	2.2	0.1
	여자	100(4,561)	58.0	27.2	10.9	3.8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9.3	15.3	3.6	1.8	0.1
	중학교	100(2,844)	65.3	24.4	8.0	2.1	0.2
	고등학교	100(3,648)	49.6	31.9	13.8	4.6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2.8	24.8	10.1	2.2	0.1
	광역시	100(2,432)	64.0	24.1	8.9	2.8	0.1
	시군	100(5,610)	63.6	24.5	8.5	3.3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4.5	24.0	8.5	2.9	0.1
	한부모가정	100(743)	54.4	29.7	12.1	3.8	0.0
	조손가정	100(82)	63.4	29.3	6.1	1.2	0.0

(2)-⑪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11.8%,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8.1%로 응답

-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88.1%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11.8%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86.6%)에 비해 남학생들(89.4%)에게서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고, 초(7.3%)·중(11.4%)·고(15.7%)로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기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그림 II-32】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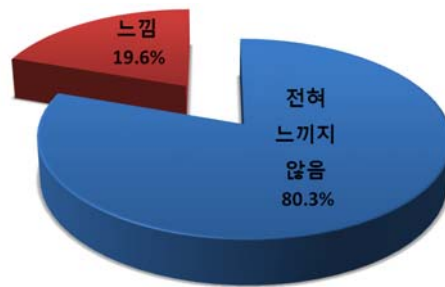
표 II-36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88.1	8.8	2.2	0.8	0.1
성별	남자	100(4,874)	89.4	7.9	1.6	0.9	0.2
	여자	100(4,561)	86.6	9.8	2.8	0.8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2.6	5.8	1.1	0.4	0.2
	중학교	100(2,844)	88.5	8.5	2.0	1.0	0.1
	고등학교	100(3,648)	84.2	11.5	3.2	1.1	0.1
거주지	서울	100(1,393)	87.1	9.4	2.6	0.7	0.2
	광역시	100(2,432)	88.0	9.3	2.0	0.6	0.1
	시군	100(5,610)	88.4	8.5	2.1	1.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8.3	8.7	2.1	0.8	0.1
	한부모가정	100(743)	86.4	9.4	2.4	1.7	0.0
	조손가정	100(82)	85.4	12.2	1.2	1.2	0.0

(2)-⑫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19.6%,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0.3%로 응답

-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80.3%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19.6%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에게서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초(12.3%)·중(20.3%)·고(24.9%)로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기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손이 떨리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33】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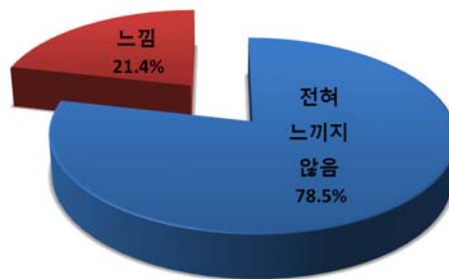
표 II-37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80.3	14.6	3.6	1.4	0.1
성별	남자	100(4,874)	81.4	13.7	3.4	1.3	0.1
	여자	100(4,561)	79.2	15.6	3.7	1.5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7.7	9.8	1.8	0.7	0.0
	중학교	100(2,844)	79.6	15.0	3.7	1.6	0.2
	고등학교	100(3,648)	75.0	18.2	4.9	1.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80.5	13.7	4.0	1.7	0.0
	광역시	100(2,432)	81.0	13.9	3.7	1.3	0.1
	시군	100(5,610)	80.0	15.1	3.4	1.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1.0	14.3	3.3	1.3	0.1
	한부모가정	100(743)	74.2	17.6	5.8	2.4	0.0
	조손가정	100(82)	72.0	19.5	8.5	0.0	0.0

(2)-⑬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21.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8.5%로 응답

-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78.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21.4%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양부모가정(79.1%)이 한부모가정(72.7%)과 조손가정(73.2%)에 비해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4】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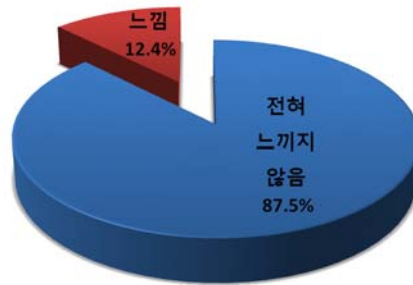
표 II-38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78.5	17.0	3.3	1.0	0.1
성별	남자	100(4,874)	78.7	16.9	3.1	1.2	0.1
	여자	100(4,561)	78.4	17.2	3.5	0.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4.8	12.5	1.9	0.6	0.1
	중학교	100(2,844)	78.3	17.2	3.2	1.2	0.1
	고등학교	100(3,648)	73.6	20.6	4.5	1.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8.8	16.9	3.3	1.1	0.0
	광역시	100(2,432)	79.3	16.7	3.2	0.8	0.1
	시군	100(5,610)	78.2	17.3	3.4	1.1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9.1	16.8	3.0	1.0	0.1
	한부모가정	100(743)	72.7	20.6	5.7	1.1	0.0
	조손가정	100(82)	73.2	17.1	8.5	1.2	0.0

(2)-⑭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12.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7.5%로 응답

-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87.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12.4%만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85.8%)에 비해 남학생들(89.1%)에게서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초(8.0%)·중(12.8%)·고(15.7%)로 교급 수준이 높을수록 상기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5】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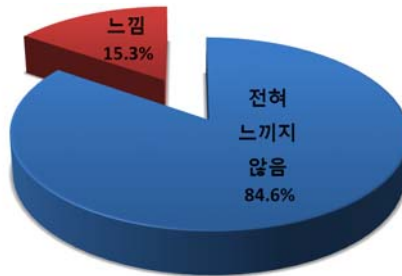
표 II-39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87.5	9.1	2.3	1.0	0.1
성별	남자	100(4,874)	89.1	8.1	1.7	1.0	0.1
	여자	100(4,561)	85.8	10.2	3.0	0.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1.9	5.6	1.7	0.7	0.1
	중학교	100(2,844)	87.1	9.7	2.0	1.1	0.1
	고등학교	100(3,648)	84.3	11.5	3.2	1.0	0.0
거주지	서울	100(1,393)	86.7	9.9	2.5	0.8	0.1
	광역시	100(2,432)	87.5	9.1	2.4	0.9	0.0
	시군	100(5,610)	87.7	8.9	2.3	1.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8.0	8.8	2.2	0.9	0.1
	한부모가정	100(743)	82.4	12.4	3.8	1.3	0.1
	조손가정	100(82)	87.8	9.8	2.4	0.0	0.0

(2)-⑮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15.3%,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4.6%로 응답

- ‘나는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4.6%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15.3%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에게서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고, 교급 수준이 높을수록 상기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정(14.8%)과 조손가정(15.9%)에 비해 한부모가정(20.7%)에서 상기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6】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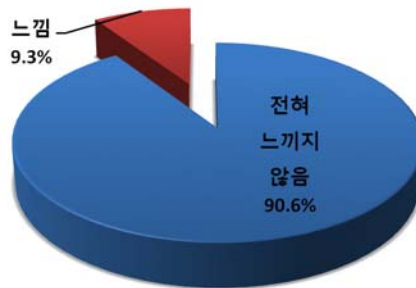
표 II-40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84.6	11.8	2.6	1.0	0.0
성별	남자	100(4,874)	85.7	11.0	2.2	1.0	0.1
	여자	100(4,561)	83.5	12.5	3.0	0.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7.3	10.2	1.8	0.7	0.0
	중학교	100(2,844)	85.4	11.1	2.4	1.0	0.1
	고등학교	100(3,648)	81.9	13.6	3.4	1.1	0.0
거주지	서울	100(1,393)	84.7	11.6	2.4	1.1	0.1
	광역시	100(2,432)	83.6	12.9	2.6	0.9	0.0
	시군	100(5,610)	85.1	11.3	2.6	1.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5.2	11.5	2.4	0.9	0.0
	한부모가정	100(743)	79.1	14.8	4.3	1.6	0.1
	조손가정	100(82)	84.1	12.2	2.4	1.2	0.0

(2)-⑯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9.3%,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90.6%로 응답

-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90.6%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단지 9.3%만이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및 교급 수준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부모가정(13.1%)이 양부모가정(9.0%)과 조손가정(8.5%)에 비해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37】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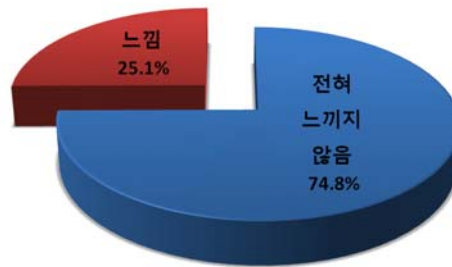
표 II-41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90.6	6.7	1.9	0.7	0.0
성별	남자	100(4,874)	91.3	6.2	1.7	0.8	0.0
	여자	100(4,561)	90.0	7.2	2.1	0.6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1.5	6.0	1.5	0.8	0.0
	중학교	100(2,844)	90.3	6.6	2.3	0.8	0.1
	고등학교	100(3,648)	90.2	7.3	1.9	0.6	0.0
거주지	서울	100(1,393)	90.2	7.2	1.9	0.6	0.1
	광역시	100(2,432)	90.5	6.8	2.0	0.7	0.0
	시군	100(5,610)	90.8	6.5	1.9	0.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90.9	6.5	1.8	0.7	0.0
	한부모가정	100(743)	86.8	9.4	2.6	1.1	0.1
	조손가정	100(82)	91.5	4.9	3.7	0.0	0.0

(2)-⑰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25.1%,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4.8%로 응답

-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74.8%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25.1%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여학생들(28.7%)이 남학생들(21.8%)에 비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기증상을 더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양부모가정(24.5%)과 조손가정(20.7%)에 비해 한부모가정(32.8%)에서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8】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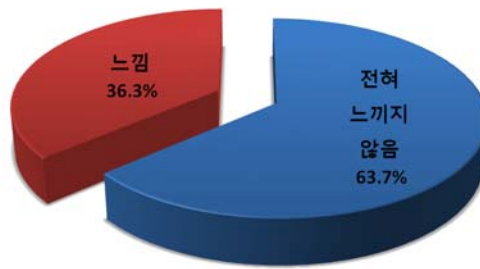
표 II-42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74.8	19.0	4.5	1.7	0.1
성별	남자	100(4,874)	78.1	16.7	3.7	1.4	0.1
	여자	100(4,561)	71.1	21.4	5.3	2.1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4.2	12.5	2.1	1.1	0.1
	중학교	100(2,844)	76.2	17.8	4.4	1.5	0.1
	고등학교	100(3,648)	66.0	25.1	6.4	2.4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3.1	20.5	5.0	1.4	0.1
	광역시	100(2,432)	76.6	17.3	4.1	1.9	0.1
	시군	100(5,610)	74.4	19.3	4.5	1.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5.5	18.5	4.3	1.6	0.1
	한부모가정	100(743)	66.6	24.2	6.1	2.6	0.5
	조손가정	100(82)	79.3	13.4	3.7	3.7	0.0

(2)-⑱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36.3%,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3.7%로 응답

- ‘나는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3.7%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36.3%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여학생들(42.5%)이 남학생들(30.5%)에 비해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기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정(64.4%)이 조손가정(58.5%)과 한부모가정(57.2%)보다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9】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표 II-43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63.7	24.5	8.3	3.5	0.0
성별	남자	100(4,874)	69.5	21.1	7.1	2.4	0.0
	여자	100(4,561)	57.5	28.2	9.6	4.7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6.4	18.5	3.8	1.3	0.0
	중학교	100(2,844)	65.4	23.3	8.3	3.0	0.0
	고등학교	100(3,648)	52.0	30.3	12.0	5.6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3.5	24.9	8.4	3.2	0.0
	광역시	100(2,432)	64.3	23.6	8.8	3.2	0.1
	시군	100(5,610)	63.4	24.8	8.1	3.7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4.4	24.1	8.2	3.3	0.0
	한부모가정	100(743)	57.2	28.4	9.6	4.7	0.1
	조손가정	100(82)	58.5	28.0	8.5	4.9	0.0

(2)-⑬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8.0%,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91.8%로 응답

-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8%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단지 8.0%만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여학생들(9.5%)이 남학생들(6.7%)에 비해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고,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기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양부모가정(92.1%)이 조손가정(87.8%)과 한부모가정(89.2%)보다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0】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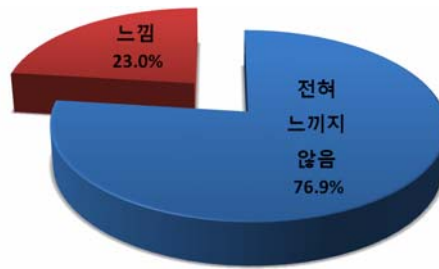
표 II-44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91.8	6.2	1.3	0.6	0.2
성별	남자	100(4,874)	93.1	5.1	1.0	0.6	0.2
	여자	100(4,561)	90.4	7.3	1.6	0.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4.2	4.6	0.8	0.3	0.1
	중학교	100(2,844)	91.5	6.4	1.3	0.6	0.3
	고등학교	100(3,648)	90.1	7.4	1.6	0.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91.0	6.9	1.4	0.6	0.1
	광역시	100(2,432)	91.4	6.5	1.3	0.6	0.2
	시군	100(5,610)	92.2	5.9	1.2	0.6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92.1	6.0	1.2	0.6	0.2
	한부모가정	100(743)	89.2	7.9	2.2	0.7	0.0
	조손가정	100(82)	87.8	8.5	1.2	1.2	1.2

(2)-㉔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23.0%,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6.9%로 응답

-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76.9%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23.0%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여학생들(28.6%)이 남학생들(17.8%)에 비해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기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조손가정(80.5%)이 양부모가정(77.2%)과 한부모가정(73.1%)에 비해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1】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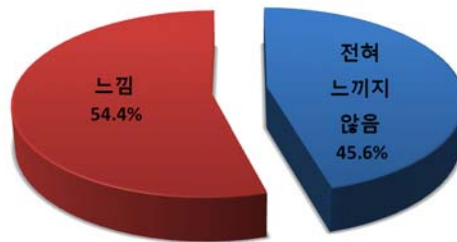
표 II-45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76.9	15.6	5.1	2.3	0.1
성별	남자	100(4,874)	82.1	12.5	3.7	1.6	0.1
	여자	100(4,561)	71.3	19.0	6.5	3.1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3.7	12.1	2.7	1.3	0.1
	중학교	100(2,844)	77.1	15.3	5.2	2.2	0.2
	고등학교	100(3,648)	71.2	18.7	6.8	3.2	0.0
거주지	서울	100(1,393)	77.6	15.2	4.9	2.2	0.1
	광역시	100(2,432)	77.2	14.9	5.2	2.5	0.2
	시군	100(5,610)	76.6	16.1	5.0	2.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7.2	15.5	4.9	2.3	0.1
	한부모가정	100(743)	73.1	17.5	6.5	3.0	0.0
	조손가정	100(82)	80.5	14.6	3.7	1.2	0.0

(2)-㉑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률이 54.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45.6%로 응답

-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5.6%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54.4%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남학생들(59.8%)이 여학생들(48.6%)에 비해 땀을 더 많이 흘린다고 느끼고 있었고, 교급에 따른 초·중·고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본 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2】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표 II-46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전체		100(9,435)	45.6	31.3	15.3	7.8	0.0
성별	남자	100(4,874)	40.1	31.3	18.0	10.5	0.0
	여자	100(4,561)	51.4	31.3	12.3	5.0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46.1	32.3	13.9	7.7	0.0
	중학교	100(2,844)	44.4	31.4	16.0	8.1	0.1
	고등학교	100(3,648)	46.1	30.4	15.8	7.7	0.0
거주지	서울	100(1,393)	42.6	30.7	17.9	8.8	0.0
	광역시	100(2,432)	44.8	31.5	15.7	8.0	0.0
	시군	100(5,610)	46.6	31.4	14.4	7.5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6.0	31.4	15.0	7.6	0.0
	한부모가정	100(743)	41.0	31.4	17.9	9.7	0.0
	조손가정	100(82)	41.5	23.2	18.3	17.1	0.0

(3) 게임 중독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게임 중독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M=1.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 지향적 생활(M=1.25)’,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M=1.17)’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47 게임 중독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게임 지향적 생활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1.42	0.72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1.25	0.60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1.18	0.51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1.16	0.49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1.20	0.53
	6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27	0.58
소계			1.25	0.41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38	0.63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31	0.61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23	0.56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34	0.64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28	0.61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37	0.68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24	0.55
소계			1.31	0.48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1.19	0.52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1.26	0.55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1.07	0.32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1.08	0.33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1.12	0.41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1.28	0.59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1.18	0.50
소계			1.17	0.35
게임 중독 영역(전체)			1.24	0.36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게임 중독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게임 중독의 하부요인인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모두에서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그리고 가족구성별 변인의 각 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게임 중독 세부요인 모두에서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보다 각 세부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광역시, 시·군 순서대로 각 세부 불안 요인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세 가지 게임 중독 요인모두에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게임 중독별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 수준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4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48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 중독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874)	1.32 (0.45)	18,865 ***	1.43 (0.54)	27,491 ***	1.25 (0.42)	26,132 ***	1.33 (0.41)	28,287 ***
	여자 (n=4561)	1.17 (0.34)		1.17 (0.37)		1.07 (0.22)		1.14 (0.26)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1.22 (0.42)	18,759 *** (ab,bc)	1.23 (0.43)	62,852 *** (ab,ac, bc)	1.14 (0.35)	28,086 *** (ab,ac, bc)	1.19 (0.34)	46,953 *** (ab,ac, bc)
	중학교 (n=2844)	1.28 (0.43)		1.36 (0.51)		1.21 (0.38)		1.28 (0.38)	
	고등학교 (n=3648)	1.23 (0.38)		1.33 (0.50)		1.16 (0.33)		1.24 (0.35)	
거주지	서울 (n=1393)	1.28 (0.46)	7,813*** (de,df)	1.34 (0.52)	3,463* (df)	1.20 (0.39)	9,833*** (df,ef)	1.27 (0.39)	7,880*** (df)
	광역시 (n=2432)	1.25 (0.40)		1.31 (0.47)		1.18 (0.35)		1.24 (0.35)	
	시군 (n=5610)	1.23 (0.40)		1.30 (0.48)		1.16 (0.34)		1.23 (0.35)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1.24 (0.40)	6.353*** (gh)	1.30 (0.48)	4.683** (gh)	1.16 (0.35)	2.407* (-)	1.23 (0.35)	5.002** (gh)
	한부모가정 (n=743)	1.31 (0.46)		1.37 (0.53)		1.20 (0.39)		1.29 (0.39)	
	조손가정 (n=82)	1.34 (0.52)		1.39 (0.54)		1.23 (0.41)		1.30 (0.38)	
전체 $M(SD)$		1.25(0.41)		1.31(0.48)		1.17(0.35)		1.24(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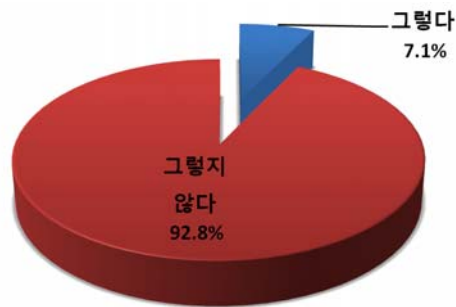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3)-①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7.1%, ‘그렇지 않다’는 92.8%가 응답

-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7.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대다수인 92.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여학생들(79.1%)이 남학생들(57.3%)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서울시 광역시와 시군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빈도가 더 낮았으며,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3】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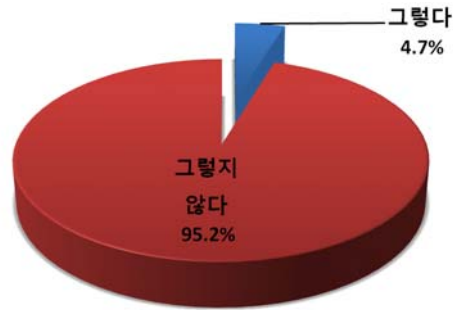
표 II-49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1	4.0	25.0	67.8	0.0
성별	남자	100(4,874)	4.0	5.4	33.3	57.3	0.0
	여자	100(4,561)	2.2	2.6	16.1	79.1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4.4	3.5	21.7	70.3	0.0
	중학교	100(2,844)	3.0	4.9	29.2	62.9	0.0
	고등학교	100(3,648)	2.1	3.8	24.3	69.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4.5	4.7	27.1	63.6	0.1
	광역시	100(2,432)	3.0	3.7	25.5	67.7	0.1
	시군	100(5,610)	2.8	4.0	24.2	68.9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1	3.9	24.8	68.2	0.0
	한부모가정	100(743)	3.8	5.2	25.4	65.4	0.1
	조손가정	100(82)	4.9	4.9	34.1	56.1	0.0

(3)-②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4.7%, ‘그렇지 않다’는 95.2%가 응답

-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7%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대다수인 95.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여학생들(88.0%)이 남학생들(76.0%)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거주지 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에 비해 동 척도에 응답한 빈도가 낮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44】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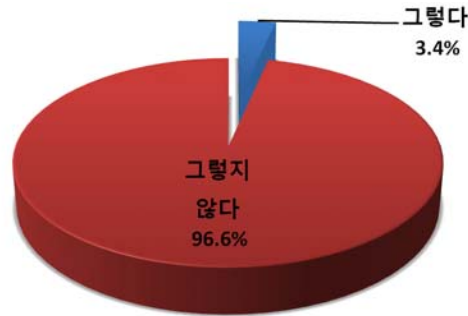
표 II-50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0	2.7	13.4	81.8	0.1
성별	남자	100(4,874)	2.6	3.5	17.8	76.0	0.1
	여자	100(4,561)	1.4	1.8	8.6	88.0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7	2.0	11.9	83.4	0.1
	중학교	100(2,844)	2.1	3.5	16.8	77.4	0.1
	고등학교	100(3,648)	1.4	2.7	11.8	84.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4	3.5	14.7	78.2	0.2
	광역시	100(2,432)	2.0	2.4	13.5	82.0	0.1
	시군	100(5,610)	1.7	2.6	13.0	82.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9	2.7	13.1	82.2	0.1
	한부모가정	100(743)	2.4	3.2	16.2	78.1	0.1
	조손가정	100(82)	7.3	1.2	14.6	76.8	0.0

(3)-③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3.4%, ‘그렇지 않다’는 96.6%가 응답

-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4%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대다수인 96.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전혀 그렇지 않다’를 기준으로 여학생들(89.5%)이 남학생들(84.9%)에 비해 본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83.9%)이 초등학교생(87.6%)과 고등학교생(89.3%)에 비해,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빈도가 낮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5】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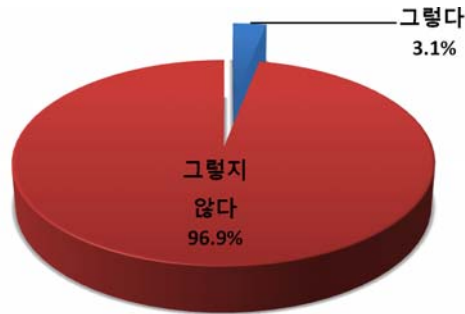
표 II-51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3	2.1	9.4	87.2	0.1
성별	남자	100(4,874)	1.6	2.7	10.7	84.9	0.1
	여자	100(4,561)	0.9	1.4	8.0	89.5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8	1.8	8.7	87.6	0.1
	중학교	100(2,844)	1.3	2.6	12.1	83.9	0.1
	고등학교	100(3,648)	0.8	1.9	7.9	89.3	0.0
거주지	서울	100(1,393)	2.2	2.4	9.3	85.9	0.2
	광역시	100(2,432)	1.2	2.7	9.7	86.3	0.1
	시군	100(5,610)	1.1	1.7	9.3	87.8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3	1.9	9.3	87.4	0.1
	한부모가정	100(743)	1.1	3.4	10.6	84.8	0.1
	조손가정	100(82)	4.9	2.4	11.0	81.7	0.0

(3)-④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3.1%, ‘그렇지 않다’는 96.9%가 응답

-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대다수인 96.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전혀 그렇지 않다’를 기준으로 여학생들(92.2%)이 남학생들(84.9%)에 비해 본 척도점수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46】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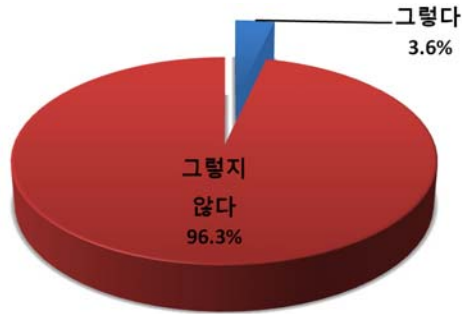
표 II-52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1	1.9	8.5	88.4	0.1
성별	남자	100(4,874)	1.7	2.7	10.6	84.9	0.1
	여자	100(4,561)	0.5	1.0	6.2	92.2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9	1.8	8.2	88.0	0.1
	중학교	100(2,844)	1.1	2.5	10.9	85.5	0.1
	고등학교	100(3,648)	0.6	1.6	6.7	91.1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7	2.2	8.1	88.0	0.1
	광역시	100(2,432)	0.9	2.0	8.5	88.6	0.1
	시군	100(5,610)	1.1	1.8	8.5	88.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1	1.8	8.3	88.7	0.1
	한부모가정	100(743)	1.5	2.4	10.6	85.3	0.1
	조손가정	100(82)	1.2	7.3	8.5	82.9	0.0

(3)-⑤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3.6%, ‘그렇지 않다’는 96.3%가 응답

-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6%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6.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88.9%)이 남학생들(80.4%)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낮았다. 거주지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점수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7】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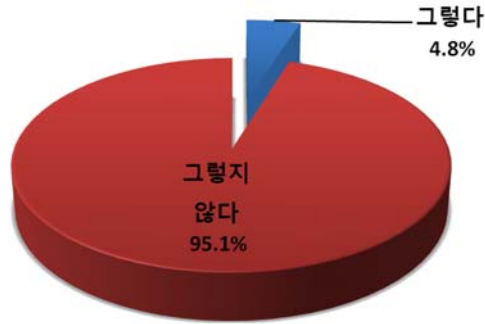
표 II-53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1	2.5	11.8	84.5	0.1
성별	남자	100(4,874)	1.6	3.1	14.7	80.4	0.1
	여자	100(4,561)	0.5	1.8	8.6	88.9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6	2.3	8.9	87.1	0.1
	중학교	100(2,844)	1.1	3.5	14.7	80.5	0.2
	고등학교	100(3,648)	0.6	1.9	11.8	85.6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9	2.3	12.3	83.3	0.3
	광역시	100(2,432)	0.8	3.0	11.5	84.6	0.1
	시군	100(5,610)	1.0	2.3	11.8	84.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0	2.3	11.7	84.9	0.1
	한부모가정	100(743)	1.7	4.2	13.3	80.6	0.1
	조손가정	100(82)	2.4	1.2	13.4	81.7	1.2

(3)-⑥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4.8%, ‘그렇지 않다’는 95.1%가 응답

-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8%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5.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85.7%)이 남학생들(72.2%)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령이 높아질수록 본 척도점수에 응답한 비율이 낮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점수(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48】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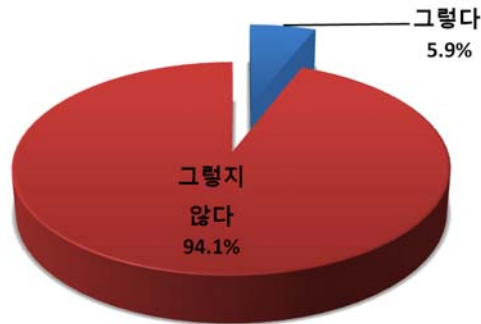
표 II-54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1	3.7	16.4	78.7	0.1
성별	남자	100(4,874)	1.6	5.1	21.1	72.2	0.1
	여자	100(4,561)	0.7	2.1	11.5	85.7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1	1.5	8.9	88.4	0.1
	중학교	100(2,844)	0.8	3.8	17.3	78.0	0.0
	고등학교	100(3,648)	1.4	5.3	21.8	71.4	0.0
거주지	서울	100(1,393)	1.0	4.5	15.9	78.6	0.1
	광역시	100(2,432)	1.3	4.4	16.9	77.4	0.1
	시군	100(5,610)	1.1	3.1	16.4	79.3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0	3.5	15.7	79.7	0.0
	한부모가정	100(743)	2.3	5.1	23.8	68.5	0.3
	조손가정	100(82)	2.4	3.7	25.6	68.3	0.0

(3)-⑦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5.9%, ‘그렇지 않다’는 94.1%가 응답

-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9%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4.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78.2%)이 남학생들(60.3%)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동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49】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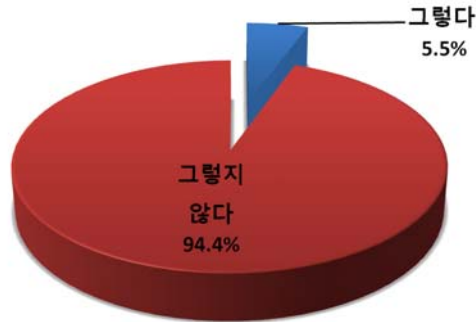
표 II-55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2	4.7	25.1	68.9	0.1
성별	남자	100(4,874)	1.5	6.6	31.5	60.3	0.1
	여자	100(4,561)	0.8	2.6	18.3	78.2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0.8	1.8	16.2	81.2	0.1
	중학교	100(2,844)	1.2	5.5	28.8	64.5	0.0
	고등학교	100(3,648)	1.5	6.4	29.5	62.5	0.0
거주지	서울	100(1,393)	1.7	4.4	25.9	67.8	0.1
	광역시	100(2,432)	1.2	5.1	26.4	67.4	0.0
	시군	100(5,610)	1.1	4.6	24.4	69.9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1	4.5	24.9	69.5	0.0
	한부모가정	100(743)	2.3	7.7	27.9	62.0	0.1
	조손가정	100(82)	1.2	4.9	22.0	72.0	0.0

(3)-⑧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5.5%, ‘그렇지 않다’는 94.4%가 응답

-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5%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4.4%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85.3%)이 남학생들(67.3%)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갈수록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중학생이 가장 높았다. 양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점수(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0】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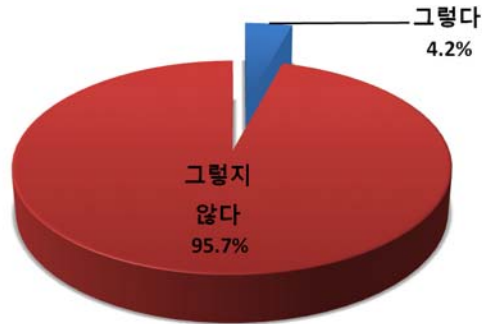
표 II-56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3	4.3	18.4	76.0	0.1
성별	남자	100(4,874)	1.8	6.2	24.6	67.3	0.1
	여자	100(4,561)	0.7	2.2	11.7	85.3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1	2.6	15.0	81.3	0.0
	중학교	100(2,844)	1.3	5.7	22.8	70.0	0.2
	고등학교	100(3,648)	1.4	4.5	17.7	76.5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9	4.2	18.4	75.3	0.2
	광역시	100(2,432)	0.9	3.9	19.2	75.9	0.1
	시군	100(5,610)	1.3	4.4	18.0	76.2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2	4.1	18.1	76.5	0.1
	한부모가정	100(743)	2.0	5.2	21.3	71.2	0.3
	조손가정	100(82)	2.4	7.3	22.0	68.3	0.0

(3)-⑨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4.2%, ‘그렇지 않다’는 95.7%가 응답

-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2%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5.7%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한다고 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4.4%)과 고등학생(84.8%)이 중학생(78.0%)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1】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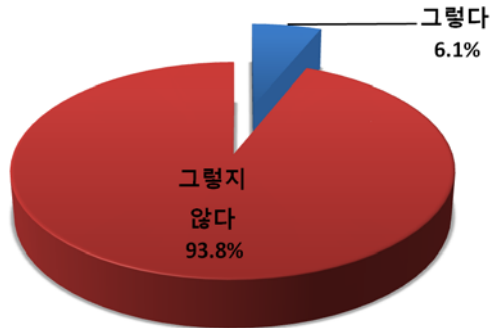
표 II-57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3	2.9	13.1	82.6	0.1
성별	남자	100(4,874)	1.9	4.4	19.6	73.9	0.2
	여자	100(4,561)	0.5	1.3	6.1	92.0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2	2.2	12.0	84.4	0.2
	중학교	100(2,844)	1.5	4.4	15.9	78.0	0.2
	고등학교	100(3,648)	1.1	2.4	11.7	84.8	0.0
거주지	서울	100(1,393)	1.4	3.6	13.9	80.8	0.3
	광역시	100(2,432)	0.9	2.6	13.2	83.1	0.1
	시군	100(5,610)	1.4	2.9	12.8	82.9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2	2.8	12.9	82.9	0.1
	한부모가정	100(743)	1.5	3.6	13.9	80.9	0.1
	조손가정	100(82)	1.2	6.1	18.3	73.2	1.2

(3)-⑩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6.1%, ‘그렇지 않다’는 93.8%가 응답

-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6.1%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3.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84.4%)이 남학생들(64.1%) 보다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 초등학생(79.2%), 고등학생(72.8%), 중학생(69.8%) 순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2】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표 II-58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7	4.4	19.9	73.9	0.1
성별	남자	100(4,874)	2.5	6.6	26.6	64.1	0.2
	여자	100(4,561)	0.8	2.1	12.7	84.4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7	3.2	15.8	79.2	0.2
	중학교	100(2,844)	1.8	5.4	22.8	69.8	0.1
	고등학교	100(3,648)	1.6	4.7	20.9	72.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2	4.9	20.2	72.6	0.1
	광역시	100(2,432)	1.5	4.6	20.7	72.9	0.3
	시군	100(5,610)	1.7	4.2	19.4	74.7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6	4.3	19.7	74.2	0.1
	한부모가정	100(743)	2.2	5.0	21.5	71.1	0.3
	조손가정	100(82)	4.9	6.1	20.7	68.3	0.0

(3)-⑪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 ‘그렇지 않다’는 94.9%가 응답

-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4.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87.7%)이 남학생들(69.9%)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동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 비해 동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II-53】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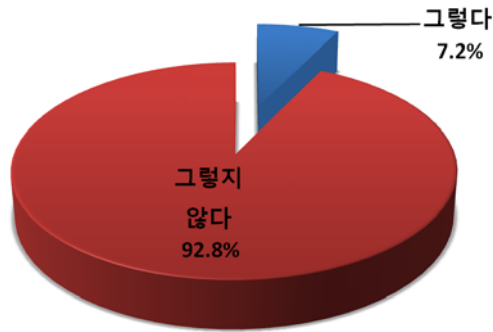
표 II-59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7	3.3	16.4	78.5	0.1
성별	남자	100(4,874)	2.7	4.7	22.6	69.9	0.1
	여자	100(4,561)	0.7	1.7	9.9	87.7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8	2.2	12.7	83.1	0.1
	중학교	100(2,844)	1.6	4.1	19.8	74.5	0.0
	고등학교	100(3,648)	1.9	3.4	16.8	77.9	0.0
거주지	서울	100(1,393)	2.4	4.5	15.6	77.5	0.1
	광역시	100(2,432)	1.5	3.5	18.1	76.9	0.1
	시군	100(5,610)	1.7	2.9	15.9	79.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6	3.2	16.4	78.8	0.1
	한부모가정	100(743)	3.1	4.0	16.6	76.2	0.1
	조손가정	100(82)	3.7	3.7	15.9	76.8	0.0

(3)-⑫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7.2%, ‘그렇지 않다’는 92.8%가 응답

-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2.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84.6%)이 남학생들(60.8%)보다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78.3%)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4】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표 II-60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2	5.0	20.5	72.3	0.0
성별	남자	100(4,874)	3.5	7.6	28.1	60.8	0.0
	여자	100(4,561)	0.9	2.1	12.4	84.6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9	3.0	16.9	78.3	0.0
	중학교	100(2,844)	2.4	6.3	22.7	68.5	0.0
	고등학교	100(3,648)	2.4	5.5	21.7	70.4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2	6.0	19.7	71.1	0.1
	광역시	100(2,432)	1.8	5.2	21.5	71.4	0.1
	시군	100(5,610)	2.1	4.6	20.3	72.9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2	4.9	20.3	72.6	0.0
	한부모가정	100(743)	2.7	5.7	22.2	69.3	0.1
	조손가정	100(82)	3.7	4.9	24.4	67.1	0.0

(3)-⑬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3.8%, ‘그렇지 않다’는 96.1%가 응답

-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8%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6.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동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90.6%)이 남학생들(71.2%)보다 뚜렷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지는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II-55】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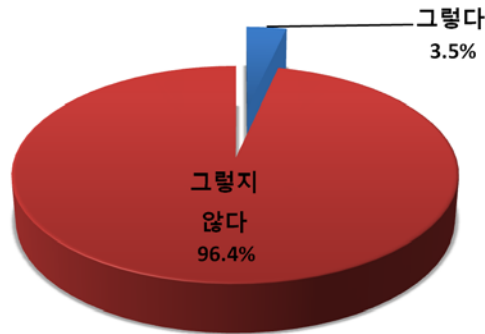
표 II-61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1	2.7	15.6	80.6	0.0
성별	남자	100(4,874)	1.8	4.1	22.8	71.2	0.1
	여자	100(4,561)	0.4	1.2	7.8	90.6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0.8	1.7	10.8	86.6	0.0
	중학교	100(2,844)	1.0	3.2	18.9	76.8	0.1
	고등학교	100(3,648)	1.5	3.2	16.7	78.5	0.0
거주지	서울	100(1,393)	1.9	3.7	16.9	77.3	0.1
	광역시	100(2,432)	0.9	2.8	16.1	80.1	0.0
	시군	100(5,610)	1.1	2.4	15.0	81.6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1	2.6	15.2	81.1	0.0
	한부모가정	100(743)	2.0	3.8	18.2	75.9	0.1
	조손가정	100(82)	0.0	3.7	24.4	72.0	0.0

(3)-⑭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7.1%, ‘그렇지 않다’는 92.8%가 응답

-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5%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6.4%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동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94.6%)이 남학생들(77.1%)보다 뚜렷하게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조손가정에 비해 게임을 못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지는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6】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표 II-62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2	2.4	10.8	85.5	0.1
성별	남자	100(4,874)	2.0	4.0	16.9	77.1	0.1
	여자	100(4,561)	0.3	0.6	4.4	94.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1	1.7	8.0	89.0	0.2
	중학교	100(2,844)	1.5	2.9	13.8	81.7	0.0
	고등학교	100(3,648)	1.0	2.4	10.8	85.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5	3.2	12.8	82.4	0.1
	광역시	100(2,432)	1.2	2.1	11.8	84.8	0.2
	시군	100(5,610)	1.1	2.3	9.9	86.6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2	2.2	10.6	85.9	0.1
	한부모가정	100(743)	1.5	3.6	12.2	82.5	0.1
	조손가정	100(82)	2.4	2.4	18.3	76.8	0.0

(3)-⑮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3.6%, ‘그렇지 않다’는 96.3%가 응답

-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6%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6.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91.7%)이 남학생들(66.4%) 보다 게임을 하지 않을 때 게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게임을 하지 않을 때 게임 생각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았다.



【그림 II-57】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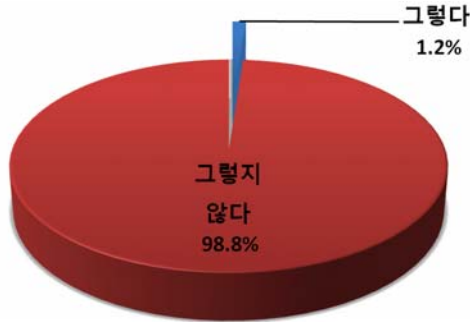
표 II-63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0.9	2.7	17.6	78.6	0.1
성별	남자	100(4,874)	1.6	4.6	27.2	66.4	0.2
	여자	100(4,561)	0.2	0.7	7.3	91.7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2	1.9	14.4	82.3	0.2
	중학교	100(2,844)	0.9	3.6	20.8	74.6	0.0
	고등학교	100(3,648)	0.7	2.7	17.8	78.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4	3.8	18.8	75.8	0.2
	광역시	100(2,432)	0.7	2.7	19.0	77.5	0.1
	시군	100(5,610)	0.9	2.5	16.7	79.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0.9	2.6	17.3	79.1	0.1
	한부모가정	100(743)	1.3	3.9	20.5	73.8	0.5
	조손가정	100(82)	1.2	6.1	18.3	74.4	0.0

(3)-⑯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2%, ‘그렇지 않다’는 98.8%가 응답

-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2%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대다수인 98.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97.7%)이 남학생들(91.1%)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8】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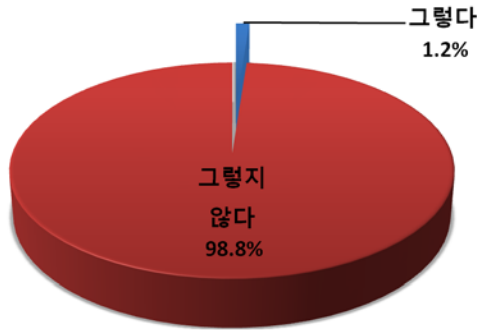
표 II-64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0.4	0.8	4.4	94.4	0.1
성별	남자	100(4,874)	0.7	1.3	6.9	91.1	0.1
	여자	100(4,561)	0.1	0.3	1.7	97.9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0.4	0.4	3.3	95.7	0.1
	중학교	100(2,844)	0.3	1.1	5.1	93.4	0.1
	고등학교	100(3,648)	0.4	0.8	4.7	94.1	0.1
거주지	서울	100(1,393)	0.7	1.0	4.7	93.5	0.1
	광역시	100(2,432)	0.2	0.9	5.3	93.4	0.1
	시군	100(5,610)	0.4	0.7	3.9	95.0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0.4	0.8	4.2	94.6	0.1
	한부모가정	100(743)	0.7	0.7	5.9	92.6	0.1
	조손가정	100(82)	0.0	0.0	8.5	91.5	0.0

(3)-⑰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2%, ‘그렇지 않다’는 98.8%가 응답

-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2%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대다수인 98.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97.6%)이 남학생들(90.0%)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동일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9】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표 II-65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0.4	0.8	5.1	93.7	0.0
성별	남자	100(4,874)	0.6	1.4	7.9	90.0	0.0
	여자	100(4,561)	0.1	0.1	2.1	97.6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0.6	0.6	3.8	94.9	0.0
	중학교	100(2,844)	0.3	1.2	6.5	92.0	0.0
	고등학교	100(3,648)	0.2	0.7	5.0	94.1	0.0
거주지	서울	100(1,393)	0.4	1.3	6.0	92.3	0.1
	광역시	100(2,432)	0.3	1.0	5.8	92.8	0.0
	시군	100(5,610)	0.4	0.6	4.5	94.4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0.4	0.8	4.9	94.0	0.0
	한부모가정	100(743)	0.5	1.1	6.7	91.5	0.1
	조손가정	100(82)	1.2	1.2	11.0	86.6	0.0

(3)-⑱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1.8%, ‘그렇지 않다’는 98.2%가 응답

-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8%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대다수인 98.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95.8%)이 남학생들(85.2%)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92.2%)와 고등학교(91.3%)이 중학교(87.1%)에 비해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시군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점수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0】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표 II-66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0.6	1.2	7.8	90.3	0.1
성별	남자	100(4,874)	0.9	2.0	11.8	85.2	0.1
	여자	100(4,561)	0.2	0.4	3.6	95.8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0.7	1.0	6.0	92.2	0.0
	중학교	100(2,844)	0.5	1.6	10.7	87.1	0.1
	고등학교	100(3,648)	0.5	1.0	7.1	91.3	0.1
거주지	서울	100(1,393)	0.9	1.9	9.8	87.4	0.1
	광역시	100(2,432)	0.5	1.3	8.6	89.6	0.0
	시군	100(5,610)	0.6	1.0	7.0	91.4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0.6	1.2	7.6	90.6	0.0
	한부모가정	100(743)	0.8	0.9	10.6	87.2	0.4
	조손가정	100(82)	0.0	3.7	8.5	87.8	0.0

(3)-⑬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4.5%, ‘그렇지 않다’는 95.4%가 응답

-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5.4%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상기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들(85.6%)이 남학생들(70.4%)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2.7%)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거주지별로는 시군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동 척도점수에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동일 척도점수에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61】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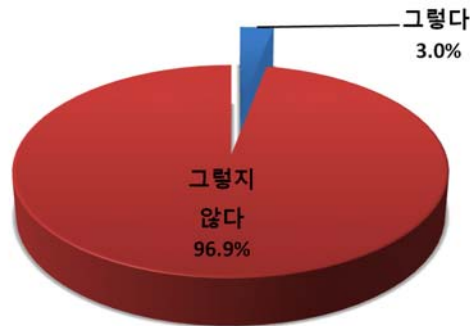
표 II-67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4	3.1	17.6	77.7	0.1
성별	남자	100(4,874)	2.0	4.5	23.0	70.4	0.1
	여자	100(4,561)	0.7	1.7	11.9	85.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6	2.2	13.4	82.7	0.1
	중학교	100(2,844)	1.4	3.9	22.0	72.5	0.1
	고등학교	100(3,648)	1.2	3.3	17.6	77.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5	3.5	18.7	76.1	0.2
	광역시	100(2,432)	1.4	3.4	19.4	75.7	0.2
	시군	100(5,610)	1.4	2.9	16.6	79.1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4	3.1	17.5	78.0	0.1
	한부모가정	100(743)	1.5	4.2	18.2	76.0	0.1
	조손가정	100(82)	1.2	2.4	20.7	75.6	0.0

(3)-㉔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3.0%, ‘그렇지 않다’는 96.9%가 응답

-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96.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여학생들(93.1%)이 남학생들(80.4%) 보다 게임을 못해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거주지별로는 시군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게임을 못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이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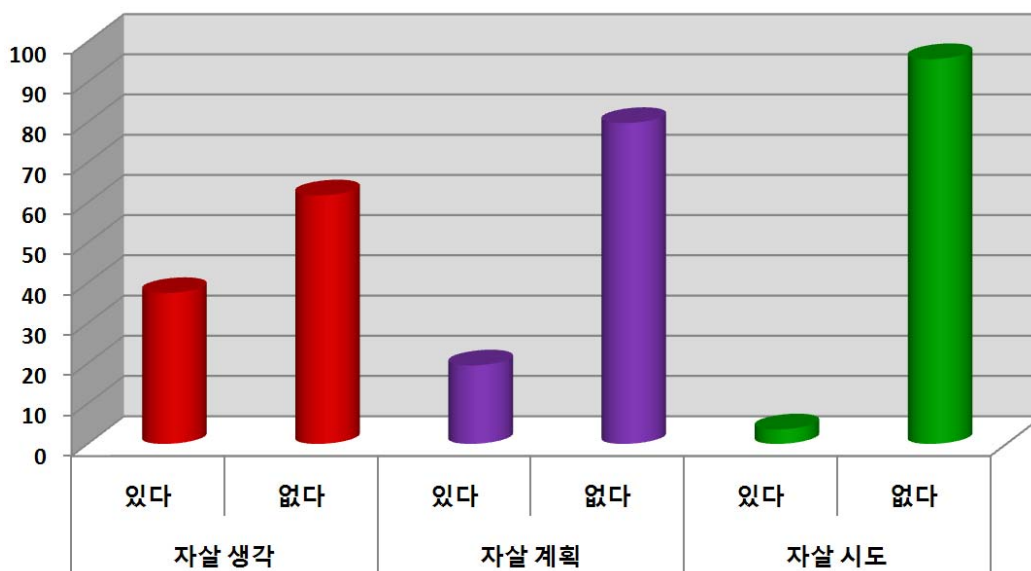
【그림 II-62】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표 II-68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1	2.0	10.4	86.5	0.1
성별	남자	100(4,874)	1.7	2.9	14.9	80.4	0.1
	여자	100(4,561)	0.3	1.0	5.5	93.1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3	1.8	8.6	88.3	0.0
	중학교	100(2,844)	1.0	2.5	13.4	83.0	0.1
	고등학교	100(3,648)	0.9	1.7	9.4	87.9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4	2.3	12.3	83.8	0.1
	광역시	100(2,432)	1.0	2.0	11.4	85.4	0.1
	시군	100(5,610)	1.0	1.9	9.4	87.7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0	1.9	10.3	86.7	0.1
	한부모가정	100(743)	1.5	2.7	10.6	85.1	0.1
	조손가정	100(82)	1.2	2.4	13.4	82.9	0.0

(4) 자살 - 항목별 백분율

자살에 대한 항목별 분석결과 '자살 생각이 있다'가 전체 응답자(N=9,435) 중 37.5%(N=3,540)로 나타났으며,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가 19.5%(N=1,839),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가 3.6%(N=341)로 나타남



【그림 II-63】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표 II-69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문항		전체(N)	있다	없다	무응답
1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9,435 (100.0%)	3,540 (37.5%)	5,829 (61.8%)	66 (0.7%)
2	자살에 대해 계획해본 적이 있다		1,839 (19.5%)	7,515 (79.7%)	81 (0.9%)
3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341 (3.6%)	9,014 (95.5%)	80 (0.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자살에 대한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 변인을 제외한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자살 생각과 자살 계획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교급별로는 자살 생각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자살 계획은 중학생이 초·고등학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거주지 별 분석에서 지역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유형별 분석에서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자살 생각과 자살 계획 영역에서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자살 생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남자보다는 여자가,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고등학교보다, 양부모가정보다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7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70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전체청소년 N=9,435)		자살 생각		응답자의 특성 (자살 생각 청소년 N=3,540)		자살 계획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874)	1.48 (0.80)	-16.608***	성별	남자 (n=1,469)	1.73 (0.83)	-2.401*
	여자 (n=4,561)	1.78 (0.96)			여자 (n=2,071)	1.80 (0.87)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1.43 (0.79)	102.571*** (ab,ac)	교급별	초등학교 (n=776)	1.76 (0.85)	3.009* (-)
	중학교 (n=2,844)	1.71 (0.92)			중학교 (n=1,212)	1.81 (0.85)	
	고등학교 (n=3,648)	1.72 (0.93)			고등학교 (n=1,552)	1.73 (0.85)	
거주지	서울 (n=1,393)	1.65 (0.90)	1.015	거주지	서울 (n=556)	1.74 (0.84)	0.544
	광역시 (n=2,432)	1.62 (0.89)			광역시 (n=904)	1.79 (0.85)	
	시·군 (n=5,610)	1.62 (0.89)			시·군 (n=2,080)	1.77 (0.8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1.60 (0.88)	10.889*** (gh)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3,127)	1.74 (0.84)	6.820*** (gh)
	한부모가정 (n=743)	1.82 (1.01)			한부모가정 (n=338)	1.99 (0.91)	
	조손가정 (n=82)	1.62 (0.92)			조손가정 (n=30)	1.83 (0.83)	
전체 M(SD)		1.62(0.89)		전체 M(SD)		1.77(0.85)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표 II-70-1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의 항목별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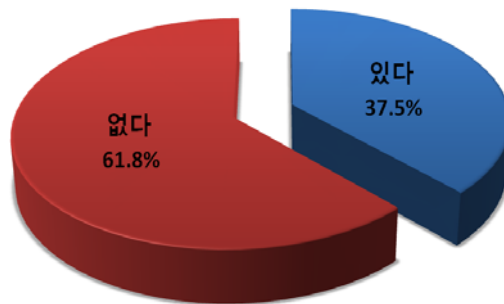
전체 청소년(N=9,435) 대비 자살 생각 청소년 비율			전체 청소년(N=9,435) 대비 자살 계획 청소년 비율			전체 청소년(N=9,435) 대비 자살 시도 청소년 비율					
응답자의 특성		있다	없다	응답자의 특성		있다	없다	응답자의 특성		있다	없다
전체(N=9,435)		3,540 (37.5%)	5,829 (61.8%)	전체(N=9,435)		1,839 (19.5%)	7,515 (79.7%)	전체(N=9,435)		341 (3.6%)	9,014 (95.5%)
성별	남자 (n=4,874)	1,469 (30.2%)	3,360 (68.9%)	남자 (n=4,874)		746 (15.3%)	4,078 (83.7%)	남자 (n=4,874)		97 (2.0%)	4,727 (97.0%)
	여자 (n=4,561)	2,071 (45.4%)	2,469 (54.1%)	여자 (n=4,561)		1,093 (24.0%)	3,437 (75.4%)	여자 (n=4,561)		244 (5.3%)	4,287 (94.0%)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776 (26.4%)	2,145 (72.9%)	초등학교 (n=2,943)		404 (13.7%)	2,513 (85.4%)	초등학교 (n=2,943)		79 (2.7%)	2,838 (96.4%)
	중학교 (n=2,844)	1,212 (42.6%)	1,609 (56.6%)	중학교 (n=2,844)		667 (23.5%)	2,149 (75.6%)	중학교 (n=2,844)		134 (4.7%)	2,683 (94.3%)
	고등학교 (n=3,648)	1,552 (42.5%)	2,075 (56.9%)	고등학교 (n=3,648)		768 (21.1%)	2,853 (78.2%)	고등학교 (n=3,648)		128 (3.5%)	3,493 (95.8%)
거주지	서울 (n=1,393)	556 (39.9%)	829 (59.5%)	서울 (n=1,393)		282 (20.2%)	1,103 (79.2%)	서울 (n=1,393)		59 (4.2%)	1,325 (95.1%)
	광역시 (n=2,432)	904 (37.2%)	1,509 (62.0%)	광역시 (n=2,432)		484 (17.8%)	1,922 (79.0%)	광역시 (n=2,432)		87 (3.6%)	2,320 (95.4%)
	시군 (n=5,610)	2,080 (37.1%)	3,491 (62.2%)	시군 (n=5,610)		1,073 (19.1%)	4,490 (80.0%)	시군 (n=5,610)		195 (3.5%)	5,369 (95.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3,127 (36.7%)	5,331 (62.6%)	양부모가정 (n=8,513)		1,584 (18.6%)	6,861 (80.6%)	양부모가정 (n=8,513)		295 (3.5%)	8,152 (95.8%)
	한부모가정 (n=743)	338 (45.5%)	398 (53.6%)	한부모가정 (n=743)		212 (28.5%)	522 (70.3%)	한부모가정 (n=743)		36 (4.9%)	697 (93.8%)
	조손가정 (n=82)	30 (36.6%)	49 (59.8%)	조손가정 (n=82)		18 (22.0%)	61 (74.4%)	조손가정 (n=82)		5 (6.1%)	74 (90.2%)

자살 생각 청소년(N=3,540) 대비 자살 계획 청소년 비율				자살 생각 청소년(N=3,540) 대비 자살 시도 청소년 비율					
응답자의 특성		있다	없다	무응답	응답자의 특성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N=3,540)		1,839 (52.0%)	1,686 (47.6%)	15 (0.4%)	전체(N=3,540)		341 (9.6%)	3,185 (90.0%)	14 (0.4%)
성별	남자 (n=1,469)	746 (50.8%)	718 (48.9%)	5 (0.3%)	성별	남자 (n=1,469)	97 (6.6%)	1,367 (90.0%)	5 (0.3%)
	여자 (n=2,071)	1,093 (52.8%)	968 (46.7%)	10 (0.5%)		여자 (n=2,071)	244 (11.8%)	1,818 (87.8%)	9 (0.4%)
	초등학교 (n=776)	404 (52.1%)	368 (47.4%)	4 (0.5%)		초등학교 (n=776)	79 (10.2%)	693 (89.3%)	4 (0.5%)
교급별	중학교 (n=1,212)	667 (55.0%)	540 (44.6%)	5 (0.4%)	교급별	중학교 (n=1,212)	134 (11.1%)	1,074 (88.6%)	4 (0.3%)
	고등학교 (n=1,552)	768 (49.5%)	778 (50.1%)	6 (0.4%)		고등학교 (n=1,552)	128 (8.2%)	1,418 (91.4%)	6 (0.4%)
	서울 (n=556)	282 (50.7%)	274 (49.3%)	0 (0.0%)		서울 (n=556)	59 (10.6%)	496 (89.2%)	1 (0.2%)
거주지	광역시 (n=904)	484 (53.5%)	413 (45.7%)	7 (0.8%)	거주지	광역시 (n=904)	87 (9.6%)	811 (89.7%)	6 (0.7%)
	시군 (n=2,080)	1,073 (51.6%)	999 (48.0%)	8 (0.4%)		시군 (n=2,080)	195 (9.4%)	1,878 (90.3%)	7 (0.3%)
	양부모가정 (n=3,127)	1,584 (50.7%)	1,530 (48.9%)	13 (0.4%)		양부모가정 (n=3,127)	295 (9.4%)	2,821 (90.2%)	11 (0.4%)
가족 구성	한부모가정 (n=338)	212 (62.7%)	124 (36.7%)	2 (0.6%)	가족 구성	한부모가정 (n=338)	36 (10.7%)	299 (88.5%)	3 (0.9%)
	조손가정 (n=30)	18 (60.0%)	12 (40.0%)	0 (0.0%)		조손가정 (n=30)	5 (16.7%)	25 (83.3%)	0 (0.0%)

(4)-①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1.8%가 '없다', 37.5%가 '있다'고 응답

- 최근 일 년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37.5%가 '가끔 혹은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였다.
- 여학생(45.4%)이 남학생(30.1%)보다 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에게서, 양부모가정(36.7%)과 조손가정(36.6%)에 비해 한부모가정(45.5%)에서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II-64】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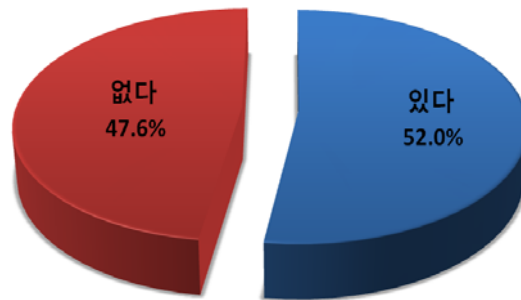
표 II-71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7	16.9	16.9	61.8	0.7
성별	남자	100(4,874)	2.6	11.8	15.8	68.9	0.9
	여자	100(4,561)	4.9	22.4	18.1	54.1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3	11.6	12.5	72.9	0.7
	중학교	100(2,844)	4.3	18.8	19.5	56.6	0.8
	고등학교	100(3,648)	4.4	19.8	18.4	56.9	0.6
거주지	서울	100(1,393)	3.6	17.9	18.4	59.5	0.6
	광역시	100(2,432)	3.8	16.6	16.8	62.0	0.8
	시군	100(5,610)	3.7	16.8	16.6	62.2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3	16.6	16.8	62.6	0.6
	한부모가정	100(743)	7.1	21.3	17.1	53.6	0.9
	조손가정	100(82)	6.1	11.0	19.5	59.8	3.7

(4)-②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 계획 경험

최근 1년간 자살 계획 경험에 대해서
자살 생각 경험자 중 47.6%가 '없다', 52.0%가 '있다'고 응답

-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일 년 동안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52.0%가 '가끔 혹은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였다.
- 여학생(52.8%)이 남학생(50.8%)보다 더 자살 계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양부모가정(50.7%)에 비해 한부모가정(62.7%) 및 조손가정(60.0%)에서 자살 계획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II-65】 최근 1년간 자살 계획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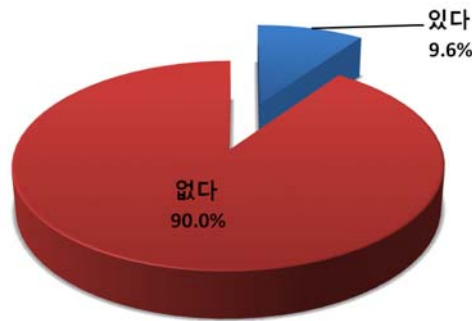
표 II-72 최근 1년간 자살 계획 경험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자주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전체		100(3,540)	2.8	18.9	30.3	47.6	0.4
성별	남자	100(1,469)	2.9	15.8	32.1	48.9	0.3
	여자	100(2,071)	2.7	21.1	29.0	46.7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776)	3.1	17.7	31.3	47.4	0.5
	중학교	100(904)	2.4	21.2	31.4	44.6	0.4
	고등학교	100(1,552)	3.0	17.7	28.9	50.1	0.4
거주지	서울	100(556)	2.5	18.2	30.0	49.3	0.0
	광역시	100(904)	2.9	18.8	31.9	45.7	0.8
	시군	100(2,080)	2.8	19.1	29.7	48.0	0.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3,127)	2.6	18.1	30.0	48.9	0.4
	한부모가정	100(338)	5.0	26.0	31.7	36.7	0.6
	조손가정	100(30)	3.3	16.7	40.0	40.0	0.0

(4)-③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서
자살 생각 경험자 중 90.0%가 '없다', 9.6%가 '있다'고 응답

- 자살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일 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9.6%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0.0%였다.
- 여학생(11.8%)이 남학생(6.6%)보다 자살 시도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8.2%)에 비해 초등학생(10.2%)·중학생(11.1%)에게서, 양부모가정(9.4%) 및 한부모가정(10.7%)에 비해 조손가정(16.7%)에서 자살을 시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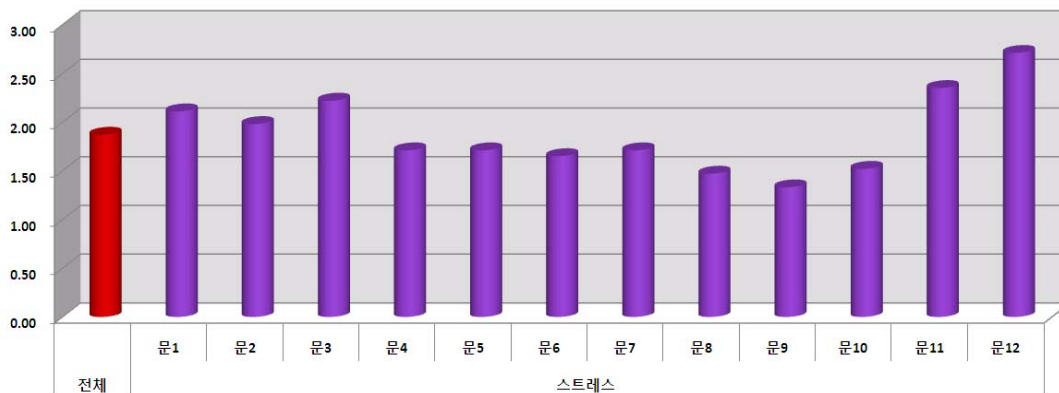
【그림 II-66】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표 II-73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100(3,540)	9.6	90.0	0.4
성별	남자	100(1,469)	6.6	93.1	0.3
	여자	100(2,071)	11.8	87.8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776)	10.2	89.3	0.5
	중학교	100(904)	11.1	88.6	0.3
	고등학교	100(1,552)	8.2	91.4	0.4
거주지	서울	100(556)	10.6	89.2	0.2
	광역시	100(904)	9.6	89.7	0.7
	시군	100(2,080)	9.4	90.3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3,127)	9.4	90.2	0.4
	한부모가정	100(338)	10.7	88.5	0.9
	조손가정	100(30)	16.7	83.3	0.0

(5) 스트레스 -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스트레스에 대한 항목별 평균에서는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M=2.71)’가 가장 높았고 ‘진로문제(M=2.35)’, ‘외모(M=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후배 관계(M=1.33)’가 가장 낮았음



【그림 II-67】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표 II-74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부모님과의 관계	2.11	0.97
2	형제·자매와의 관계	1.98	0.99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2.22	1.00
4	신체건강	1.71	0.89
5	심리건강	1.71	0.92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65	0.88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1.71	0.89
8	이성과의 관계	1.47	0.79
9	선·후배 관계	1.33	0.67
10	선생님과의 관계	1.52	0.84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2.35	1.16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2.71	1.11
스트레스 영역(전체)		1.87	0.5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개인 내(內) 스트레스 심리요인에 대한 12개 하부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그리고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모든 스트레스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선후배 관계를 제외한 11개 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I-7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 관계		형제·자매관계		외모		신체건강		심리건강		가정형편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874)	2.06 (0.97)	-4.892 ***	1.91 (0.99)	-7.201 ***	2.00 (0.97)	-22.767 ***	1.62 (0.86)	-10.275 ***	1.54 (0.82)	-18.331 ***	1.57 (0.84)	-8.449 ***
	여자 (n=4,561)	2.16 (0.97)		2.05 (0.99)		2.46 (0.98)		1.81 (0.90)		1.89 (0.98)		1.73 (0.91)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1.83 (0.95)	176.538 *** (ab,ac, bc)	2.04 (1.06)	41.675 *** (ac,bc)	1.80 (0.96)	492.830 *** (ab,ac, bc)	1.46 (0.79)	265.045 *** (ab,ac, bc)	1.36 (0.73)	428.483 *** (ab,ac, bc)	1.33 (0.69)	434.024 *** (ab,ac, bc)
	중학교 (n=2,844)	2.19 (0.94)		2.06 (0.99)		2.26 (0.98)		1.69 (0.86)		1.70 (0.88)		1.59 (0.82)	
	고등학교 (n=3,648)	2.26 (0.96)		1.86 (0.92)		2.54 (0.93)		1.95 (0.92)		2.00 (0.98)		1.94 (0.96)	
거주지	서울 (n=1,393)	2.14 (0.98)	1.146	1.98 (1.01)	0.502	2.20 (1.01)	0.340	1.70 (0.91)	0.127	1.70 (0.92)	0.114	1.63 (0.89)	3.333 * (ef)
	광역시 (n=2,432)	2.09 (0.97)		1.96 (0.98)		2.22 (0.99)		1.72 (0.87)		1.71 (0.90)		1.69 (0.89)	
	사군 (n=5,610)	2.11 (0.97)		1.98 (0.99)		2.23 (1.00)		1.71 (0.89)		1.71 (0.93)		1.63 (0.8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2.09 (0.97)	10.087 ***	1.98 (0.99)	0.971	2.20 (1.00)	12.286 *** (gh)	1.69 (0.87)	13.462 *** (gh)	1.69 (0.91)	15.780 *** (gh)	1.60 (0.84)	90.068 *** (gh,hi)
	한부모가정 (n=743)	2.26 (1.00)		1.97 (1.00)		2.47 (1.02)		1.94 (0.98)		1.97 (1.00)		2.23 (1.06)	
	조손가정 (n=82)	-		2.14 (1.06)		2.22 (0.99)		1.80 (0.90)		1.73 (0.90)		1.69 (0.89)	
전체 M(SD)		2.11(0.97)		1.98(0.99)		2.22(1.00)		1.71(0.89)		1.71(0.92)		1.65(0.88)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친구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관계		선생님관계		진로문제		학업문제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874)	1.60 (0.83)	-12870 ***	1.46 (0.78)	-2,263 *	1.33 (0.68)	-0.560	1.50 (0.84)	-2,643 **	2.23 (1.15)	-10,430 ***	2.56 (1.13)	-13,767 ***	1.78 (0.56)	-15,882 ***
	여자 (n=4,561)	1.83 (0.93)		1.49 (0.80)		1.34 (0.66)		1.54 (0.83)		2.47 (1.16)		2.87 (1.06)		1.97 (0.59)	
교급 별	초등학교 (n=2,943)	1.57 (0.86)	54,461 *** (ab,ac)	1.27 (0.64)	182,951 *** (ab,ac ,bc)	1.33 (0.71)	10,871 *** (ab,bc)	1.38 (0.78)	66,592 *** (ab,ac ,bc)	1.46 (0.83)	2154. 778 *** (ab,ac ,bc)	2.03 (1.07)	1032. 445 *** (ab,ac ,bc)	1.57 (0.55)	741. 797 *** (ab,ac ,bc)
	중학교 (n=2,844)	1.75 (0.90)		1.48 (0.79)		1.38 (0.71)		1.55 (0.84)		2.41 (1.08)		2.89 (1.02)		1.91 (0.54)	
	고등학교 (n=3,648)	1.79 (0.88)		1.64 (0.87)		1.30 (0.61)		1.61 (0.87)		3.02 (0.95)		3.13 (0.93)		2.08 (0.53)	
거주 지	서울 (n=1,393)	1.70 (0.89)	0.799	1.53 (0.86)	6,871 ** (df)	1.31 (0.65)	1.317	1.52 (0.85)	0.999	2.31 (1.15)	3,375 *	2.73 (1.12)	0.291	1.87 (0.58)	0.025
	광역시 (n=2,432)	1.69 (0.88)		1.49 (0.79)		1.33 (0.66)		1.50 (0.81)		2.40 (1.15)		2.70 (1.09)		1.87 (0.57)	
	시군 (n=5,610)	1.72 (0.89)		1.45 (0.78)		1.34 (0.68)		1.53 (0.84)		2.33 (1.16)		2.71 (1.11)		1.87 (0.5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1.69 (0.88)	6,448 *** (gh)	1.46 (0.78)	6,512 *** (gh)	1.33 (0.67)	3,815 ** (gh)	1.51 (0.83)	1.581	2.32 (1.15)	17,067 *** (gh, hi)	2.70 (1.11)	5,990 *** (gh, hi)	1.85 (0.57)	46,436 ***
	한부모가정 (n=743)	1.86 (0.95)		1.61 (0.88)		1.42 (0.72)		1.58 (0.84)		2.68 (1.15)		2.87 (1.08)		2.07 (0.59)	
	조손가정 (n=82)	1.82 (1.03)		1.47 (0.82)		1.41 (0.79)		1.63 (0.86)		2.11 (1.13)		2.37 (1.12)		-	
전체 M(SD)		1.71(0.89)		1.47(0.79)		1.33(0.67)		1.52(0.84)		2.35(1.16)		2.71(1.11)		1.87(0.5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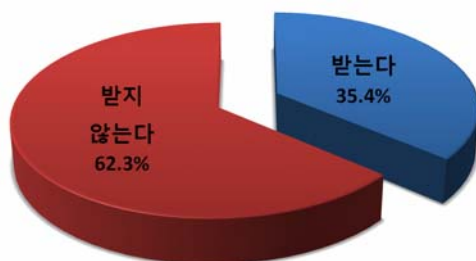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교급별 분석에서 형제·자매 및 선·후배 관계 스트레스를 제외한 10개 영역에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거주지별 분석에서 가정형편, 이성관계, 진로문제 스트레스를 제외한 지역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유형별 분석에서 형제·자매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에서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75>에 제시되어 있다.

(5)-① 스트레스 - 부모님과과의 관계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5.4%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

-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5.4%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62.3%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대체로 남학생들(33.4%)보다는 여학생들(37.4%)이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41.8%), 중학생(38.1%), 초등학생(24.7%) 순으로 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41.5%)이 양부모가정(35.5%)의 청소년들보다 부모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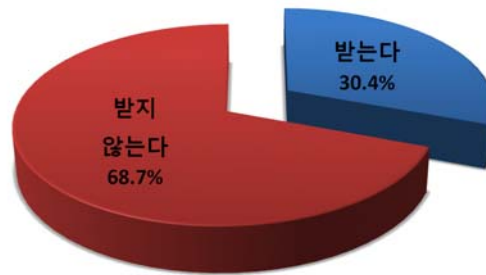
표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8.1	27.2	29.2	33.0	2.4
성별	남자	100(4,874)	7.6	25.8	29.1	35.2	2.3
	여자	100(4,561)	8.7	28.7	29.4	30.8	2.4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3	18.4	25.8	47.3	2.2
	중학교	100(2,844)	8.0	30.1	32.1	27.5	2.3
	고등학교	100(3,648)	9.7	32.1	29.8	25.9	2.5
거주지	서울	100(1,393)	9.6	26.8	30.0	32.1	1.5
	광역시	100(2,432)	7.5	27.5	28.3	33.6	3.1
	시군	100(5,610)	8.0	27.2	29.5	33.1	2.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0	27.6	29.8	34.2	0.4
	한부모가정	100(743)	11.8	29.6	29.5	27.6	1.5
	조손가정	100(82)	0.0	0.0	0.0	0.0	100.0

(5)-② 스트레스 - 형제·자매와의 관계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0.4%가 '받는다', 68.7%가 '받지 않는다'고 응답

-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0.4%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7%였다.
- 성별 간 비교에서 남학생들(27.8%)보다는 여학생들(33.3%)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5%)·중학교(33.2%)·고등학교(25.0%) 순으로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에 비해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동일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6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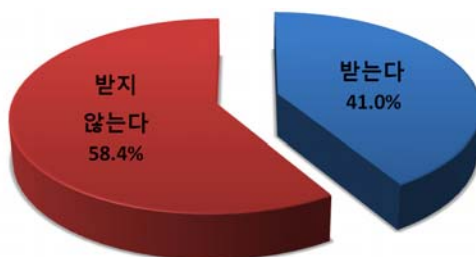
표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8.5	21.9	27.4	41.3	0.9
성별	남자	100(4,874)	8.0	19.7	26.2	45.2	0.8
	여자	100(4,561)	9.1	24.2	28.7	37.1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1.5	23.0	23.1	41.9	0.6
	중학교	100(2,844)	9.4	23.9	29.5	36.6	0.7
	고등학교	100(3,648)	5.5	19.5	29.3	44.4	1.3
거주지	서울	100(1,393)	9.6	21.1	27.0	42.1	0.2
	광역시	100(2,432)	8.0	21.9	27.5	41.9	0.8
	시군	100(5,610)	8.5	22.1	27.5	40.8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5	21.8	27.7	41.2	0.8
	한부모가정	100(743)	8.2	23.1	24.5	42.1	2.0
	조손가정	100(82)	12.2	25.6	24.4	36.6	1.2

(5)-③ 스트레스 -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1.0%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

- '외모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1.0%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받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58.4%였다.
-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들(31.3%)보다는 여학생들(51.5%)이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23.9%)에서 중학생(41.4%), 고등학교(54.6%)으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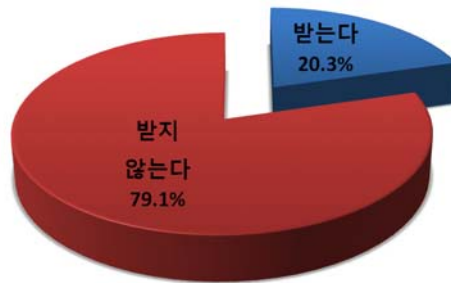
표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1.2	29.9	28.3	30.1	0.6
성별	남자	100(4,874)	7.8	23.5	29.2	39.0	0.5
	여자	100(4,561)	14.8	36.7	27.3	20.6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8	17.1	24.9	50.9	0.3
	중학교	100(2,844)	11.1	30.3	31.4	26.6	0.6
	고등학교	100(3,648)	14.7	39.9	28.6	16.0	0.8
거주지	서울	100(1,393)	11.4	28.5	28.8	31.1	0.2
	광역시	100(2,432)	10.8	30.2	28.6	29.7	0.7
	시군	100(5,610)	11.3	30.1	28.0	30.0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0.7	29.5	28.4	30.9	0.5
	한부모가정	100(743)	16.8	34.1	25.7	21.9	1.5
	조손가정	100(82)	11.0	28.0	31.7	28.0	1.2

(5)-④ 스트레스 - 신체건강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신체건강'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3%가 '받는다', 79.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신체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3%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79.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들(17.1%)보다는 여학생들(23.8%)이 신체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1.8%)에서 중(18.4%)·고등학교(28.7%)로 올라갈수록 신체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서 신체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표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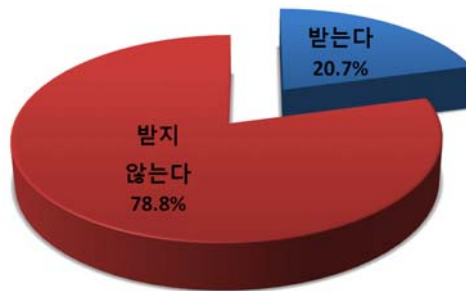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2	16.1	26.0	53.0	0.6
성별	남자	100(4,874)	3.9	13.2	23.8	58.6	0.6
	여자	100(4,561)	4.5	19.3	28.4	47.1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5	8.3	18.2	69.7	0.3
	중학교	100(2,844)	3.7	14.7	27.5	53.5	0.6
	고등학교	100(3,648)	5.2	23.5	31.2	39.3	0.8
거주지	서울	100(1,393)	4.9	15.9	23.5	55.4	0.2
	광역시	100(2,432)	3.8	16.3	27.1	52.0	0.8
	시군	100(5,610)	4.2	16.1	26.1	52.9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9	15.5	26.0	54.0	0.5
	한부모가정	100(743)	7.4	21.9	26.4	42.8	1.5
	조손가정	100(82)	3.7	20.7	26.8	47.6	1.2

(5)-⑤ 스트레스 - 심리건강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심리건강'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7%가 '받는다', 78.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심리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7%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8.8%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들(14.4%)보다는 여학생들(27.4%)이 심리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3%), 중학생(19.1%), 고등학생(31.2%) 순으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심리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한부모가정(30.1%)이 양부모가정(19.9%)이나 조손가정(19.5%)에 비해 심리건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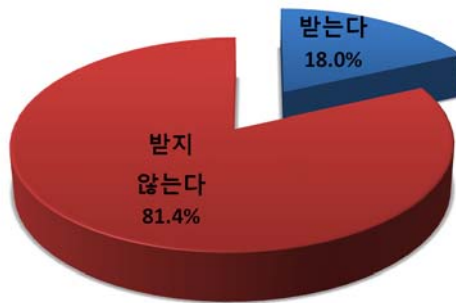
표 II-8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5.5	15.2	23.7	55.0	0.5
성별	남자	100(4,874)	3.5	10.9	21.8	63.3	0.5
	여자	100(4,561)	7.7	19.8	25.8	46.2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0	6.3	14.5	75.9	0.2
	중학교	100(2,844)	4.6	14.5	26.8	53.5	0.6
	고등학교	100(3,648)	8.3	22.8	28.8	39.4	0.7
거주지	서울	100(1,393)	5.5	14.9	24.0	55.5	0.1
	광역시	100(2,432)	5.0	14.7	25.6	54.0	0.7
	시군	100(5,610)	5.8	15.4	22.9	55.4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3	14.6	23.5	56.2	0.4
	한부모가정	100(743)	8.7	21.4	26.0	42.4	1.5
	조손가정	100(82)	4.9	14.6	28.0	51.2	1.2

(5)-⑥ 스트레스 -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가정형편(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8.0%가 '받는다', 81.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가정형편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8.0%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81.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들(15.3%)보다는 여학생들(20.9%)이 가정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2%)에서 중(15.0%)·고등학교(28.2%)으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가정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동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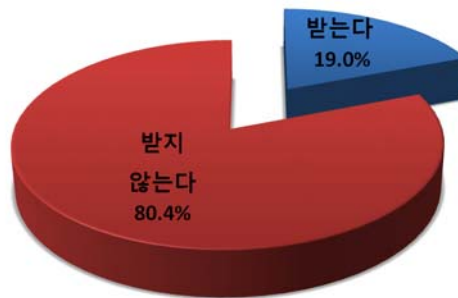
표 II-8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6	13.4	23.7	57.7	0.6
성별	남자	100(4,874)	4.0	11.3	22.3	61.8	0.6
	여자	100(4,561)	5.2	15.7	25.1	53.3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3	5.9	14.5	76.8	0.4
	중학교	100(2,844)	3.3	11.6	25.3	59.1	0.6
	고등학교	100(3,648)	7.3	20.9	29.8	41.2	0.8
거주지	서울	100(1,393)	4.8	13.6	21.0	60.2	0.4
	광역시	100(2,432)	4.8	14.1	25.5	54.8	0.8
	시군	100(5,610)	4.4	13.1	23.5	58.4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7	12.2	23.6	60.0	0.6
	한부모가정	100(743)	13.6	27.7	24.4	32.7	1.6
	조손가정	100(82)	4.9	13.4	26.8	53.7	1.2

(5)-⑦ 스트레스 -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9.0%가 '받는다', 80.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9.0%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80.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들(14.6%)보다는 여학생들(23.7%)이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5.3%)에서 중학생(19.8%), 고등학교(21.2%)으로 올라갈수록 동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25.7%)이 양부모가정(18.3%)이나 조손가정(22.0%)보다 친구 관계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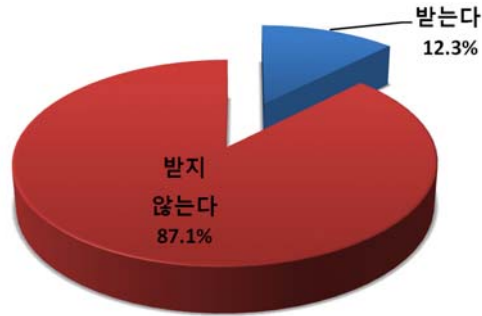
표 II-8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9	14.1	27.6	52.8	0.6
성별	남자	100(4,874)	3.9	10.7	26.2	58.7	0.6
	여자	100(4,561)	5.9	17.7	29.2	46.5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4.8	10.5	21.5	62.8	0.4
	중학교	100(2,844)	5.6	14.2	28.7	50.7	0.8
	고등학교	100(3,648)	4.4	16.8	31.7	46.3	0.7
거주지	서울	100(1,393)	5.2	13.6	27.4	53.6	0.2
	광역시	100(2,432)	4.6	13.4	27.8	53.4	0.7
	시군	100(5,610)	4.9	14.5	27.6	52.3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7	13.7	27.7	53.4	0.6
	한부모가정	100(743)	6.2	19.5	27.1	45.8	1.5
	조손가정	100(82)	11.0	11.0	25.6	51.2	1.2

(5)-⑧ 스트레스 - 이성과의 관계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2.3%가 '받는다', 87.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2.3%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대다수인 87.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들(11.6%)보다는 여학생들(13.1%)이 이성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6.8%)에서 중학생(11.9%), 고등학교(17.1%)으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동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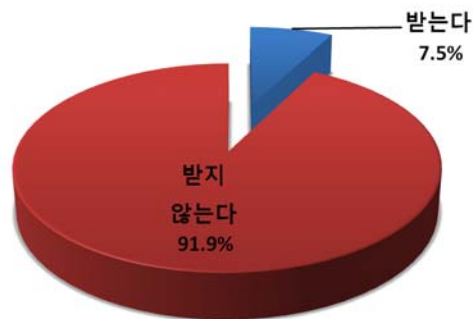
표 II-8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3	9.0	19.1	68.0	0.6
성별	남자	100(4,874)	3.3	8.3	18.7	69.1	0.5
	여자	100(4,561)	3.3	9.8	19.5	66.9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9	4.9	11.1	81.8	0.3
	중학교	100(2,844)	3.3	8.6	20.2	67.3	0.6
	고등학교	100(3,648)	4.4	12.7	24.6	57.5	0.7
거주지	서울	100(1,393)	4.7	10.0	18.7	66.4	0.1
	광역시	100(2,432)	3.2	8.9	21.7	65.5	0.7
	시군	100(5,610)	3.0	8.8	18.1	69.5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1	8.9	18.8	68.8	0.5
	한부모가정	100(743)	5.1	11.3	22.3	59.8	1.5
	조손가정	100(82)	4.9	6.1	19.5	68.3	1.2

(5)-⑨ 스트레스 - 선·후배 관계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대다수인 91.9%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선·후배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5%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91.9%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선·후배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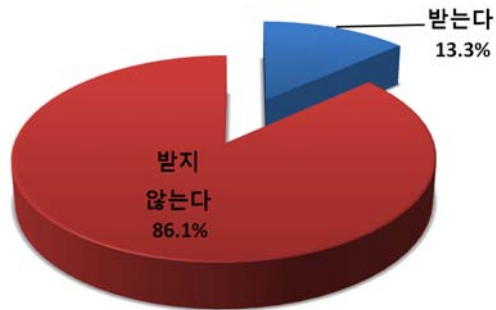
표 II-8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0	5.5	16.2	75.7	0.6
성별	남자	100(4,874)	2.3	5.3	15.3	76.5	0.6
	여자	100(4,561)	1.6	5.7	17.3	74.8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6	6.1	12.8	78.0	0.5
	중학교	100(2,844)	2.4	6.2	18.2	72.6	0.6
	고등학교	100(3,648)	1.2	4.4	17.5	76.1	0.8
거주지	서울	100(1,393)	1.6	5.7	15.0	77.5	0.2
	광역시	100(2,432)	1.8	5.1	16.6	75.7	0.8
	시군	100(5,610)	2.2	5.6	16.4	75.2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0	5.3	15.8	76.4	0.6
	한부모가정	100(743)	1.7	7.9	19.7	69.0	1.6
	조손가정	100(82)	3.7	7.3	14.6	73.2	1.2

(5)-⑩ 스트레스 - 선생님과의 관계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의 86.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3.3%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86.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들(12.8%)보다는 여학생들(13.9%)이 선생님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약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0.1%)에서 중학교(13.5%), 고등학교(15.8%)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동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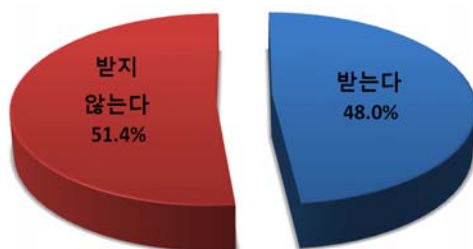
표 II-8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5	8.9	20.5	65.5	0.6
성별	남자	100(4,874)	5.1	7.7	18.8	67.8	0.6
	여자	100(4,561)	3.8	10.1	22.4	63.1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4.1	6.0	13.6	75.9	0.4
	중학교	100(2,844)	4.5	9.0	22.7	63.0	0.7
	고등학교	100(3,648)	4.8	11.0	24.4	59.1	0.7
거주지	서울	100(1,393)	4.9	8.5	20.2	66.2	0.3
	광역시	100(2,432)	4.2	7.7	21.4	65.9	0.7
	시군	100(5,610)	4.5	9.4	20.2	65.2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5	8.7	20.1	66.1	0.5
	한부모가정	100(743)	3.9	11.2	23.0	60.4	1.5
	조손가정	100(82)	6.1	6.1	31.7	54.9	1.2

(5)-⑪ 스트레스 -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1.4%가 '받지 않는다', 48.0%가 '받는다'라고 응답

- '진로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8.0%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51.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들(43.3%)보다는 여학생들(53.0%)이 진로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75.0%), 중학생(49.5%), 초등학생(12.9%)순으로 동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46.9%)이나 조손가정(39.0%)에 비해 한부모가정(61.0%)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문제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그림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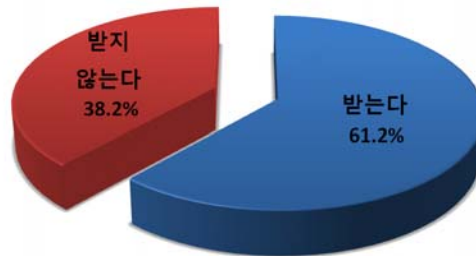
표 II-8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0.8	27.2	16.9	34.5	0.7
성별	남자	100(4,874)	17.8	25.5	17.4	38.7	0.7
	여자	100(4,561)	24.0	28.9	16.3	30.0	0.7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4.6	8.3	14.9	71.6	0.6
	중학교	100(2,844)	18.5	31.0	22.0	27.7	0.7
	고등학교	100(3,648)	35.6	39.4	14.5	9.8	0.7
거주지	서울	100(1,393)	19.7	27.2	17.4	35.6	0.1
	광역시	100(2,432)	21.5	28.7	16.6	32.4	0.8
	시군	100(5,610)	20.8	26.5	16.9	35.1	0.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0.0	26.9	17.2	35.3	0.6
	한부모가정	100(743)	29.7	31.2	13.3	24.2	1.5
	조손가정	100(82)	14.6	24.4	17.1	42.7	1.2

(5)-⑫ 스트레스 -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61.2%가 ‘받는다’라고 응답

- ‘학업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1.2%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2%였다.
-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남학생들(55.0%)보다는 여학생들(67.8%)이 학업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33.3%)에서 중학생(68.5%), 고등학생(78.1%)으로 학령이 올라갈수록 동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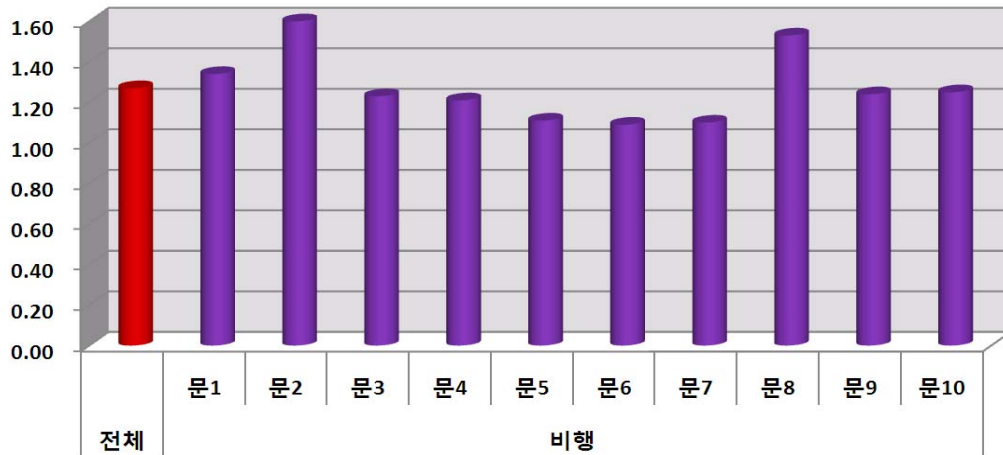
【그림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표 II-8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0.2	31.0	17.6	20.7	0.6
성별	남자	100(4,874)	26.0	29.0	19.2	25.2	0.5
	여자	100(4,561)	34.7	33.1	15.8	15.8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2.8	20.5	23.2	43.2	0.3
	중학교	100(2,844)	33.0	35.5	17.3	13.5	0.7
	고등학교	100(3,648)	42.1	35.9	13.2	8.1	0.7
거주지	서울	100(1,393)	31.5	29.9	17.9	20.5	0.1
	광역시	100(2,432)	28.9	31.5	19.0	19.9	0.7
	시군	100(5,610)	30.5	31.0	16.9	21.0	0.6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9.8	31.1	17.7	21.0	0.5
	한부모가정	100(743)	35.5	30.7	16.0	16.3	1.5
	조손가정	100(82)	19.5	28.0	20.7	30.5	1.2

(6) 비행 -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비행의 항목별 평균에서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M=1.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M=1.53)’,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M=1.34)’순으로 나타남



【그림 II-80】 비행의 항목별 평균

표 II-88 비행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34	0.89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60	0.99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23	0.61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21	0.59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11	0.46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09	0.42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0	0.43
8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1.53	1.04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1.24	0.73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25	0.62
비행 영역(전체)		1.27	0.6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 영역의 항목별 차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영역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89>에 제시되어 있다. 항목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비행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의 비행 경험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흡연과 음주, 무단결석, 가출, 인터넷 성인사이트, 도박 등의 항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점수가 높았고, 절도, 폭력, 갈취경험, 기물파손 항목은 중학생의 점수가 초등학교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89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갈취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874)	1.49 (1.05)	17.925 ***	1.72 (1.08)	12.427 ***	1.29 (0.67)	10.158 ***	1.31 (0.72)	18.186 ***	1.15 (0.54)	8.978 ***
	여자 (n=4,561)	1.17 (.65)		1.48 (.86)		1.16 (.53)		1.09 (0.38)		1.06 (0.35)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1.04 (0.31)	313.907 *** (ab,ac, bc)	1.28 (0.64)	516.080 *** (ab,ac, bc)	1.14 (0.52)	48.295 *** (ab,ac, bc)	1.21 (0.59)	4.944 *** (bc)	1.05 (0.34)	36.923 *** (ab,ac, bc)
	중학교 (n=2,844)	1.33 (0.86)		1.45 (0.84)		1.29 (0.65)		1.23 (0.65)		1.16 (0.50)	
	고등학교 (n=3,648)	1.58 (1.13)		1.98 (1.18)		1.24 (0.63)		1.18 (0.63)		1.11 (0.50)	
거주지	서울 (n=1,393)	1.34 (0.86)	4.517** (ef)	1.59 (0.98)	4.327** (ef)	1.28 (0.69)	10.326 *** (df,ef)	1.24 (0.46)	4.700** (df)	1.12 (0.46)	3.997*
	광역시 (n=2,432)	1.38 (0.93)		1.65 (1.01)		1.24 (0.57)		1.22 (0.51)		1.12 (0.46)	
	시·군 (n=5,610)	1.32 (0.88)		1.59 (0.98)		1.20 (0.60)		1.19 (0.44)		1.10 (0.4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1.31 (0.87)	17.720 *** (gh)	1.58 (0.97)	12.916 *** (gh)	1.22 (0.59)	5.772 *** (gh)	1.20 (0.59)	4.231** (-)	1.10 (0.44)	4.717** (gh)
	한부모가정 (n=743)	1.59 (1.12)		1.83 (1.11)		1.29 (0.71)		1.24 (0.65)		1.16 (0.58)	
	조손가정 (n=82)	1.41 (0.94)		1.60 (1.00)		1.23 (0.55)		1.18 (0.42)		1.18 (0.96)	
전체 M(SD)		1.34(.89)		1.60(.99)		1.23(.61)		1.21(.59)		1.11(.46)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무단결석		가출		인터넷 성인사이트		도박		기물파손		비행(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874)	1.10 (.46)	3,748 ***	1.14 (.51)	8,373 ***	1.91 (1.25)	40,015 ***	1.41 (.92)	23,628 ***	1.34 (.73)	16,024 ***	1.39 (0.50)	29,361 ***
	여자 (n=4,561)	1.07 (.38)		1.07 (.31)		1.13 (.50)		1.07 (.37)		1.14 (.44)		1.14 (0.27)	
교급 별	초등학교 (n=2,943)	1.02 (0.22)	86,342 *** (ab,ac, bc)	1.08 (0.38)	7,968 *** (ab, ac)	1.04 (0.31)	585,222 *** (ab,ac, bc)	1.06 (0.42)	165,072 *** (ab,ac, bc)	1.12 (0.45)	92,818 *** (ab,ac, bc)	1.10 (0.25)	408,390 *** (ab,ac, bc)
	중학교 (n=2,844)	1.07 (0.38)		1.11 (0.44)		1.61 (1.06)		1.25 (0.71)		1.33 (0.67)		1.28 (0.41)	
	고등학교 (n=3,648)	1.15 (0.55)		1.12 (0.45)		1.87 (1.23)		1.39 (0.89)		1.29 (0.67)		1.39 (0.49)	
거주 지	서울 (n=1,393)	1.10 (0.44)	2,145	1.11 (0.46)	1,456	1.62 (1.10)	47,141 *** (df,ef)	1.25 (0.72)	14,731 *** (ef)	1.28 (0.62)	3,291* (df)	1.29 (0.44)	19,180 *** (de,ef)
	광역시 (n=2,432)	1.10 (0.46)		1.11 (0.45)		1.68 (1.13)		1.31 (0.83)		1.25 (0.61)		1.31 (0.43)	
	시군 (n=5,610)	1.08 (0.40)		1.10 (0.41)		1.45 (0.97)		1.21 (0.68)		1.24 (0.62)		1.25 (0.4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1.07 (0.39)	20,109 *** (gh)	1.10 (0.41)	7,406 *** (gh)	1.52 (1.02)	8,244 *** (gh)	1.24 (0.72)	2,455* (gh)	1.24 (0.61)	2,352	1.26 (0.41)	18,646 *** (gh)
	한부모가정 (n=743)	1.20 (0.62)		1.16 (0.58)		1.71 (1.16)		1.31 (0.81)		1.28 (0.66)		1.38 (0.51)	
	조손가정 (n=82)	1.11 (0.47)		1.10 (0.34)		1.38 (0.87)		1.29 (0.71)		1.30 (0.68)		1.28 (0.36)	
전체 M(SD)		1.09(.42)		1.10(.43)		1.53(1.04)		1.24(.73)		1.25(.62)		1.27(.68)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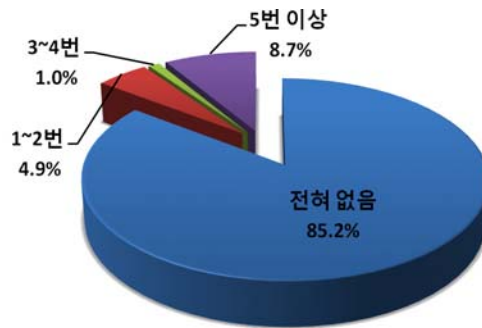
거주지별로는 흡연, 음주, 인터넷 성인사이트, 도박 항목은 광역시가 서울과 시군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절도, 폭력, 기물파손 항목은 서울이, 갈취는 광역시와 시군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 흡연, 음주, 절도, 폭력, 무단결석, 가출, 인터넷 성인사이트, 도박 등 비행 영역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다른 가정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갈취경험 항목에서만 조손가정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행영역(전체)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t=29.361$, $p<.001$), 교급이 높아질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8.390$, $p<.001$). 또한 거주지 별로는 광역시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F=19.180$, $p<.001$), 가족구성별($F=18.646$, $p<.001$) 변인에서 한부모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각 세부 항목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89>에 제시되어 있다.

(6)-① 비행 - 흡연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85.2%로 가장 높았고, ‘5번 이상’ 8.7%, ‘1~2번’ 4.9%, ‘3~4번’ 1.0%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5.2%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8.7%는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92.0%)이 남학생(78.9%)에 비해 담배를 피운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흡연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 흡연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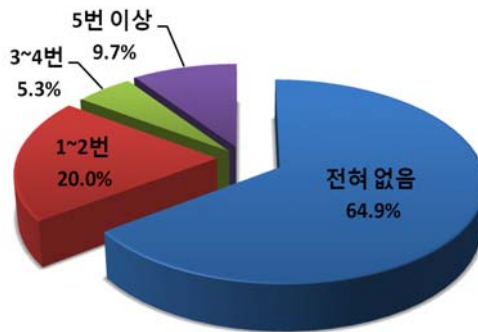
표 II-90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85.2	4.9	1.0	8.7	0.1
성별	남자	100(4,874)	78.9	6.7	1.3	13.1	0.1
	여자	100(4,561)	92.0	3.0	0.8	4.1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7.1	2.3	0.2	0.3	0.1
	중학교	100(2,844)	84.0	6.9	1.4	7.6	0.1
	고등학교	100(3,648)	76.7	5.4	1.5	16.4	0.0
거주지	서울	100(1,393)	84.6	6.2	0.6	8.5	0.0
	광역시	100(2,432)	83.1	5.6	1.2	10.1	0.0
	시군	100(5,610)	86.3	4.3	1.1	8.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6.2	4.8	0.9	8.0	0.1
	한부모가정	100(743)	75.8	5.9	2.2	16.2	0.0
	조손가정	100(82)	80.5	7.3	2.4	9.8	0.0

(6)-② 비행 - 음주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64.9%로 가장 높았고, '1~2번' 20.0%, '5번 이상' 9.7%, '3~4번' 5.3%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4.9%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20.0%는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70.0%)이 남학생(60.1%)에 비해 최근 1년간 음주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음주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음주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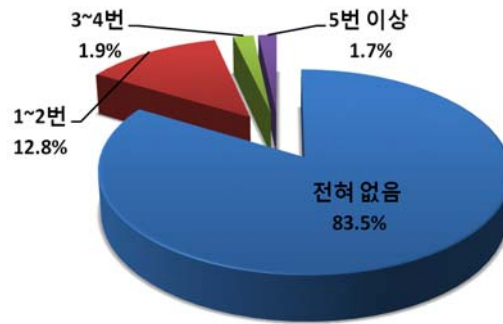
표 II-9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64.9	20.0	5.3	9.7	0.1
성별	남자	100(4,874)	60.1	21.2	5.4	13.2	0.1
	여자	100(4,561)	70.0	18.8	5.1	6.0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8.9	16.6	2.3	2.1	0.1
	중학교	100(2,844)	71.4	18.4	4.5	5.7	0.0
	고등학교	100(3,648)	48.5	24.1	8.3	19.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6.1	19.5	4.6	9.8	0.1
	광역시	100(2,432)	62.5	20.4	6.5	10.6	0.0
	시군	100(5,610)	65.6	20.0	4.9	9.3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5.8	19.9	5.1	9.1	0.1
	한부모가정	100(743)	55.5	21.5	7.3	15.7	0.0
	조손가정	100(82)	67.1	17.1	4.9	11.0	0.0

(6)-③ 비행 - 절도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83.5%로 가장 높았고, '1~2번'이 12.8%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3.5%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2.8%는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더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21.7%)이 초등학교생(10.5%)과 고등학교생(17.1%)에 비해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8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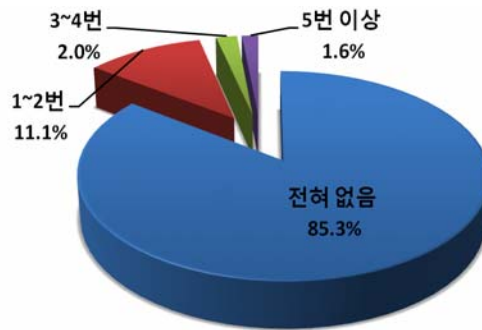
표 II-92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83.5	12.8	1.9	1.7	0.1
성별	남자	100(4,874)	79.3	15.7	2.6	2.4	0.1
	여자	100(4,561)	88.0	9.6	1.2	1.0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9.3	8.9	1.1	0.5	0.2
	중학교	100(2,844)	78.3	17.0	2.4	2.3	0.1
	고등학교	100(3,648)	82.8	12.6	2.3	2.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80.0	14.9	2.5	2.4	0.1
	광역시	100(2,432)	81.4	14.8	2.1	1.7	0.0
	시군	100(5,610)	85.2	11.4	1.7	1.5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3.8	12.7	1.8	1.6	0.1
	한부모가정	100(743)	80.6	13.3	3.2	2.7	0.1
	조손가정	100(82)	81.7	14.6	2.4	1.2	0.0

(6)-④ 비행 - 폭력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85.3%로 가장 높았고, ‘1~2번’ 11.1%, ‘3~4번’ 2.0%, ‘5번 이상’ 1.6%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5.3%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11.1%는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학생(92.7%)이 남학생(78.3%)보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 정보다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폭력경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8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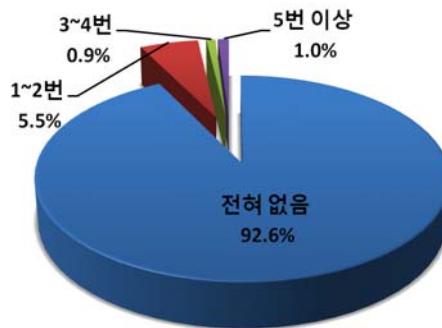
표 II-93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85.3	11.1	2.0	1.6	0.1
성별	남자	100(4,874)	78.3	16.0	2.9	2.6	0.2
	여자	100(4,561)	92.7	5.8	1.0	0.5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4.8	11.6	2.0	1.4	0.1
	중학교	100(2,844)	83.2	12.6	2.6	1.6	0.1
	고등학교	100(3,648)	87.2	9.5	1.5	1.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83.1	11.9	3.2	1.8	0.1
	광역시	100(2,432)	84.0	12.6	1.9	1.4	0.2
	시군	100(5,610)	86.3	10.2	1.8	1.6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5.6	10.9	1.9	1.5	0.1
	한부모가정	100(743)	83.3	12.0	2.8	1.7	0.1
	조손가정	100(82)	82.9	15.9	1.2	0.0	0.0

(6)-⑤ 비행 - 갈취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92.6%로 가장 높았고, '1~2번' 5.5%, '3~4번' 0.9%, '5번 이상' 1.0%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2.6%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5.5%가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95.2%)이 남학생(90.0%)보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가정의 청소년보다 갈취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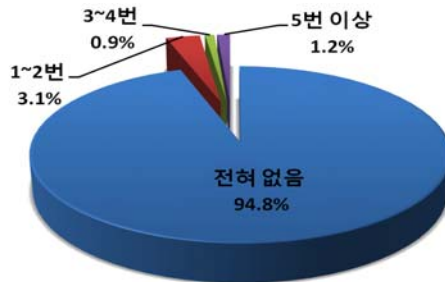
표 II-94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92.6	5.5	0.9	1.0	0.1
성별	남자	100(4,874)	90.0	7.2	1.1	1.6	0.1
	여자	100(4,561)	95.2	3.7	0.6	0.4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6.2	3.0	0.3	0.4	0.1
	중학교	100(2,844)	88.7	8.5	1.4	1.4	0.0
	고등학교	100(3,648)	92.6	5.2	0.9	1.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91.2	6.4	1.1	1.3	0.0
	광역시	100(2,432)	91.5	6.4	1.0	1.0	0.1
	시군	100(5,610)	93.4	4.9	0.7	1.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92.9	5.3	0.8	1.0	0.0
	한부모가정	100(743)	89.2	7.4	1.7	1.5	0.1
	조손가정	100(82)	92.7	4.9	0.0	1.2	1.2

(6)-⑥ 비행 - 무단결석

최근 1년간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94.8%로 가장 높았고, '1~2번' 3.1%, '5번 이상' 1.2%, '3~4번' 0.9%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4.8%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3.1%는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남학생(94.0%)과 여학생(95.6%)이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별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가정에 비해 무단결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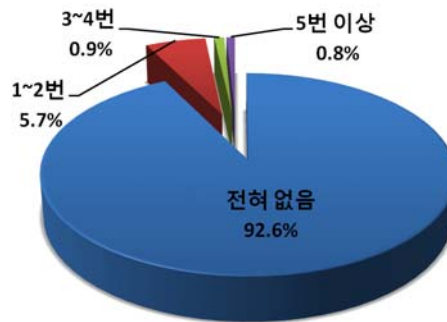
표 II-95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94.8	3.1	0.9	1.2	0.0
성별	남자	100(4,874)	94.0	3.5	1.0	1.5	0.0
	여자	100(4,561)	95.6	2.8	0.7	0.8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8.6	1.2	0.1	0.1	0.0
	중학교	100(2,844)	95.6	2.8	0.7	0.7	0.0
	고등학교	100(3,648)	91.1	4.9	1.6	2.4	0.0
거주지	서울	100(1,393)	94.3	3.3	1.0	1.4	0.0
	광역시	100(2,432)	94.2	3.4	0.9	1.4	0.0
	시군	100(5,610)	95.2	3.0	0.8	1.1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95.5	2.8	0.8	1.0	0.0
	한부모가정	100(743)	88.2	6.9	1.7	3.2	0.0
	조손가정	100(82)	93.9	2.4	2.4	1.2	0.0

(6)-⑦ 비행 - 가출

최근 1년간 '가출을 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92.6%로 가장 높았고, '1~2번' 5.7%, '3~4번' 0.9%, '5번 이상' 0.8%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가출을 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2.6%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5.7%는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9.5%)이 여학생(5.2%)보다 가출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가출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별은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가정의 청소년보다 가출경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8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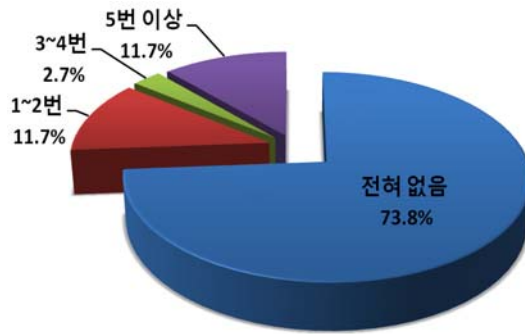
표 II-9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92.6	5.7	0.9	0.8	0.0
성별	남자	100(4,874)	90.4	7.0	1.3	1.1	0.1
	여자	100(4,561)	94.8	4.2	0.6	0.4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4.7	3.9	0.7	0.7	0.0
	중학교	100(2,844)	91.5	6.9	0.9	0.6	0.1
	고등학교	100(3,648)	91.7	6.1	1.1	1.0	0.0
거주지	서울	100(1,393)	91.9	6.1	1.1	0.8	0.1
	광역시	100(2,432)	92.2	5.8	0.9	1.0	0.0
	시군	100(5,610)	92.9	5.5	0.9	0.7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93.0	5.4	0.9	0.7	0.0
	한부모가정	100(743)	89.2	7.5	1.5	1.6	0.1
	조손가정	100(82)	91.5	7.3	1.2	0.0	0.0

(6)-⑧ 비행 - 인터넷 성인사이트 접속

최근 1년간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73.8%로 가장 높았고, '1~2번'과 '5번 이상'이 각각 11.7%, '3~4번'이 2.7%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3.8%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1~2번',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7%이었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42.0%)이 여학생(9.1%)보다 인터넷 성인사이트 접속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88】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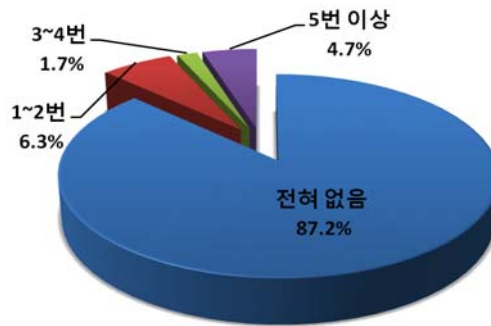
표 II-97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73.8	11.7	2.7	11.7	0.1
성별	남자	100(4,874)	57.8	16.3	4.0	21.7	0.2
	여자	100(4,561)	90.8	6.8	1.3	1.0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7.0	2.1	0.4	0.4	0.0
	중학교	100(2,844)	67.9	16.0	4.1	11.8	0.2
	고등학교	100(3,648)	59.6	16.0	3.5	20.7	0.2
거주지	서울	100(1,393)	70.2	12.8	2.9	14.0	0.1
	광역시	100(2,432)	66.4	15.4	3.4	14.6	0.2
	시군	100(5,610)	77.8	9.8	2.4	9.9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4.6	11.4	2.6	11.3	0.1
	한부모가정	100(743)	65.4	15.2	4.0	15.1	0.3
	조손가정	100(82)	80.5	8.5	3.7	7.3	0.0

(6)-⑨ 비행 - 도박

최근 1년간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87.2%로 가장 높았고, ‘1~2번’ 6.3%, ‘5번 이상’ 4.7%, ‘3~4번’ 1.7%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7.2%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6.3%는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돈내기 도박을 해봤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돈내기 도박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가정의 청소년보다 돈내기 도박을 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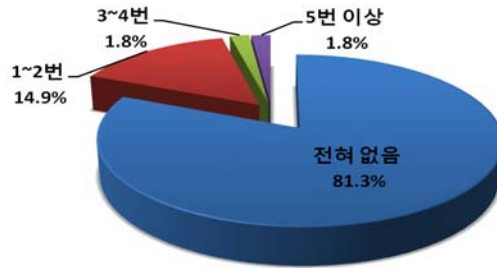
표 II-98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87.2	6.3	1.7	4.7	0.1
성별	남자	100(4,874)	79.4	9.4	2.8	8.3	0.1
	여자	100(4,561)	95.5	2.9	0.6	0.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6.4	2.2	0.5	0.7	0.1
	중학교	100(2,844)	86.2	7.4	2.0	4.4	0.0
	고등학교	100(3,648)	80.5	8.7	2.5	8.3	0.0
거주지	서울	100(1,393)	86.5	6.6	2.2	4.7	0.0
	광역시	100(2,432)	84.7	6.6	2.1	6.5	0.1
	시군	100(5,610)	88.4	6.1	1.5	4.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7.6	6.1	1.7	4.6	0.1
	한부모가정	100(743)	83.8	7.8	1.6	6.7	0.0
	조손가정	100(82)	81.7	11.0	3.7	3.7	0.0

(6)-⑩ 비행 - 기물파손

최근 1년간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혀 없음’이 응답률 81.3%로 가장 높았고, ‘1~2번’ 14.9%, ‘3~4번’과 ‘5번 이상’이 각각 1.8%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1.3%가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14.9%는 ‘1~2번’이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표 II-9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35)	81.3	14.9	1.8	1.8	0.1
성별	남자	100(4,874)	75.5	18.7	2.6	3.1	0.1
	여자	100(4,561)	87.6	10.9	0.9	0.4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9.6	9.6	0.5	0.2	0.1
	중학교	100(2,844)	74.9	20.3	2.5	2.3	0.1
	고등학교	100(3,648)	79.7	15.1	2.3	2.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8.3	17.2	2.3	2.2	0.0
	광역시	100(2,432)	81.4	14.6	1.9	2.0	0.0
	시군	100(5,610)	82.1	14.5	1.6	1.6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1.6	14.9	1.8	1.7	0.1
	한부모가정	100(743)	80.6	14.1	2.2	3.1	0.0
	조손가정	100(82)	78.0	17.1	1.2	3.7	0.0

2) 긍정적 요인

(1) 생활만족도 -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평균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M=3.4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M=3.37)', '건강(M=3.28)'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91】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표 II-100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부모님과의 관계	3.42	1.16
2	경제적인 생활수준	3.18	0.90
3	친구와의 관계	3.37	0.81
4	여가 생활	3.13	0.98
5	선생님과의 관계	3.23	0.91
6	학교생활	3.16	0.93
7	학업성적	2.38	1.08
8	건강	3.28	0.87
생활만족도(전체)		3.14	0.96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II-10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및 여가생활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4가지 항목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도 아래 표에 제시된 4가지 항목 모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지별 분석에서는 친구와의 관계를 제외한 3가지 항목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부모와의 관계의 경우는 광역시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경제적인 생활수준과 여가생활의 경우는 광역시보다 서울시와 시군의 응답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에서는 양부모가정이 다른 가족구성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및 여가생활 등 아래 표에 제시된 4개 영역 모두 양부모가정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표 II-1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여가 생활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i>n</i> =4,874)	3.46 (1.15)	3.804***	3.22 (0.88)	4.847***	3.46 (0.78)	10.612***	3.22 (0.96)	9.643***
	여자 (<i>n</i> =4,561)	3.37 (1.17)		3.13 (0.91)		3.28 (0.84)		3.03 (0.99)	
교급별	초등학교 (<i>n</i> =2,943)	3.71 (1.06)	151.321*** (ab,ac, bc)	3.60 (0.73)	675.365*** (ab,ac, bc)	3.53 (0.83)	91.708*** (ab,ac, bc)	3.58 (0.83)	662.065*** (ab,ac, bc)
	중학교 (<i>n</i> =2,844)	3.34 (1.16)		3.19 (0.86)		3.35 (0.82)		3.14 (0.93)	
	고등학교 (<i>n</i> =3,648)	3.24 (1.20)		2.84 (0.90)		3.27 (0.77)		2.75 (0.98)	
거주지	서울 (<i>n</i> =1,393)	3.34 (1.12)	3.646* (de)	3.19 (0.94)	10.076*** (de,ef)	3.40 (0.80)	1.251	3.16 (0.97)	3.212*
	광역시 (<i>n</i> =2,432)	3.45 (1.24)		3.11 (0.88)		3.36 (0.78)		3.09 (0.99)	
	시군 (<i>n</i> =5,610)	3.42 (1.14)		3.21 (0.89)		3.37 (0.82)		3.14 (0.9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i>n</i> =8,513)	3.33 (0.87)	6.608***	3.23 (0.87)	67.446*** (gh,hi)	3.39 (0.80)	8.299*** (gh)	3.15 (0.97)	8.813*** (gh)
	한부모가정 (<i>n</i> =743)	3.08 (1.00)		2.68 (1.00)		3.22 (0.87)		2.93 (1.06)	
	조손가정 (<i>n</i> =82)	—		3.00 (0.93)		3.26 (0.87)		3.05 (0.94)	
전체 <i>M</i> (<i>SD</i>)		3.42(1.16)		3.18(0.90)		3.37(0.81)		3.13(0.98)	

*p<.05, **p<.01,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		생활만족도 (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874)	3.24 (0.92)	1.685	3.20 (0.93)	4.862 ***	2.46 (1.10)	7.105 ***	3.36 (0.85)	8.679 ***	3.20 (0.64)	9.223 ***
	여자 (n=4,561)	3.21 (0.89)		3.11 (0.94)		2.30 (1.05)		3.20 (0.89)		3.08 (0.66)	
교급 별	초등학교 (n=2,943)	3.58 (0.80)	401.163 *** (ab,ac, bc)	3.52 (0.81)	410.425 *** (ab,ac, bc)	3.14 (0.99)	1462.310 *** (ab,ac, bc)	3.64 (0.72)	542.740 *** (ab,ac, bc)	3.54 (0.59)	1115.802 *** (ab,ac, bc)
	중학교 (n=2,844)	3.18 (0.92)		3.14 (0.94)		2.19 (0.97)		3.32 (0.84)		3.11 (0.61)	
	고등학교 (n=3,648)	2.97 (0.89)		2.89 (0.92)		1.92 (0.88)		2.97 (0.90)		2.85 (0.57)	
거주 지	서울 (n=1,393)	3.25 (0.93)	2.027	3.24 (0.89)	6.112* (de,df)	2.36 (1.09)	.337	3.33 (0.88)	4.465* (de)	3.16 (0.65)	2.192
	광역시 (n=2,432)	3.20 (0.89)		3.13 (0.94)		2.38 (1.07)		3.25 (0.87)		3.12 (0.64)	
	시군 (n=5,610)	3.23 (0.91)		3.15 (0.94)		2.39 (1.08)		3.29 (0.87)		3.15 (0.6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3.24 (0.90)	5.961 *** (gh)	3.18 (0.93)	12.448 *** (gh)	2.40 (1.08)	10.074 *** (gh)	3.31 (0.86)	16.498 *** (gh)	3.15 (0.64)	71.230 *** (gh,gi, hi)
	한부모가정 (n=743)	3.08 (0.91)		2.95 (0.96)		2.15 (1.06)		3.04 (0.94)		2.89 (0.66)	
	조손가정 (n=82)	3.06 (1.14)		2.87 (1.10)		2.29 (1.05)		3.18 (0.97)		3.71 (0.61)	
전체 <i>M</i> (<i>SD</i>)		3.23(0.91)		3.16(0.93)		2.38(1.08)		3.28(0.87)		3.14(0.9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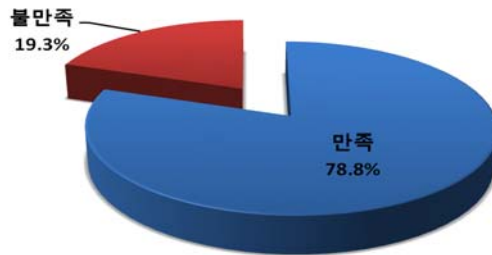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생활만족도 영역의 또 다른 세부영역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선생님과의 관계의 경우 교급별, 가족구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급이 높아질수록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도에 대해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가정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학업성적, 그리고 건강의 영역에서는 성별, 교급별, 그리고 가족구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과 건강의 경우 거주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영역에서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세 영역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사후검증결과가 <표 II-101>에 제시되어 있다.

(1)-① 생활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8%가 만족한다고 응답

- ‘부모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8.8%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3%만이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0.7%)이 여학생(76.8%)보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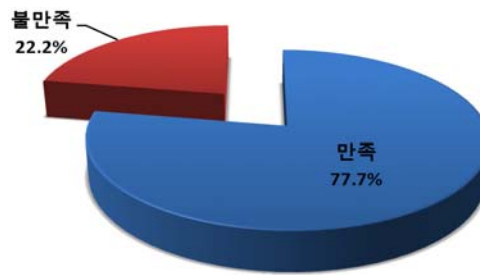
표 II-10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100(9,435)	4.0	15.3	25.0	53.7	1.9
성별	남자	100(4,874)	3.9	13.5	24.9	55.8	1.9
	여자	100(4,561)	4.2	17.2	25.2	51.6	1.8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5	7.2	17.0	71.3	2.1
	중학교	100(2,844)	4.1	17.5	27.5	49.1	1.8
	고등학교	100(3,648)	5.2	20.1	29.7	43.3	1.8
거주지	서울	100(1,393)	4.8	16.3	25.4	52.1	1.4
	광역시	100(2,432)	3.9	15.3	25.3	52.9	2.5
	시군	100(5,610)	3.9	15.0	24.8	54.5	1.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8	14.9	25.5	55.7	0.0
	한부모가정	100(743)	7.1	22.6	25.8	44.3	0.1

(1)-② 생활만족도 - 경제적인 생활수준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7.7%가 만족한다고 응답

-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7.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22.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91.9%)에서 고등학교(65.1%)으로 올라갈수록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56.3%)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79.7%)과 조손가정(72.0%)의 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3】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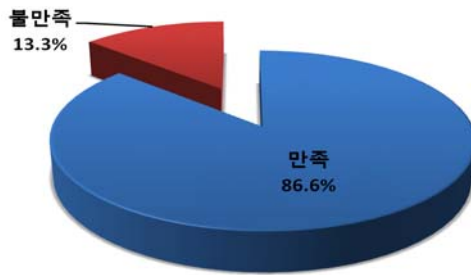
표 II-103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100(9,435)	4.6	17.6	33.2	44.5	0.1
성별	남자	100(4,874)	4.3	16.0	33.2	46.5	0.1
	여자	100(4,561)	5.0	19.3	33.3	42.3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2	5.8	22.9	69.0	0.3
	중학교	100(2,844)	3.9	16.8	36.0	43.3	0.0
	고등학교	100(3,648)	7.2	27.6	39.5	25.6	0.0
거주지	서울	100(1,393)	5.7	16.8	30.9	46.4	0.1
	광역시	100(2,432)	4.6	20.2	34.5	40.6	0.0
	시·군	100(5,610)	4.4	16.6	33.3	45.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9	16.3	33.3	46.4	0.1
	한부모가정	100(743)	12.7	31.0	33.2	23.0	0.1
	조손가정	100(82)	7.3	20.7	36.6	35.4	0.0

(1)-③ 생활만족도 -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만족한다고 응답

-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대다수인 86.6%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3.3%만이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9.5%)이 여학생(83.6%)보다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4】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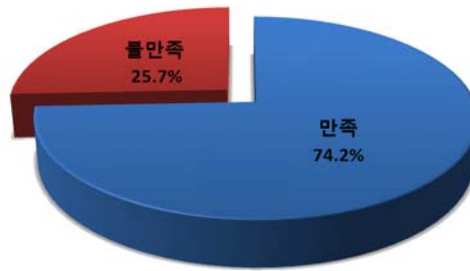
표 II-104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100(9,435)	3.3	10.0	33.2	53.3	0.1
성별	남자	100(4,874)	2.9	7.5	31.0	58.5	0.1
	여자	100(4,561)	3.7	12.7	35.7	47.9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7	7.3	22.0	66.7	0.2
	중학교	100(2,844)	3.8	10.5	33.1	52.6	0.0
	고등학교	100(3,648)	2.5	11.8	42.5	43.2	0.0
거주지	서울	100(1,393)	3.4	9.7	30.1	56.9	0.0
	광역시	100(2,432)	3.3	9.0	35.6	52.0	0.0
	시군	100(5,610)	3.2	10.5	33.1	53.1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2	9.5	33.1	54.1	0.1
	한부모가정	100(743)	3.9	15.9	35.5	44.5	0.1
	조손가정	100(82)	6.1	9.8	36.6	47.6	0.0

(1)-④ 생활만족도 - 여가 생활

‘여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2%가 만족한다고 응답

- ‘여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4.2%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25.7%가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77.6%)이 여학생(70.5%)보다 여가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89.0%)에서 고등학교(60.9%)으로 갈수록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5】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표 II-105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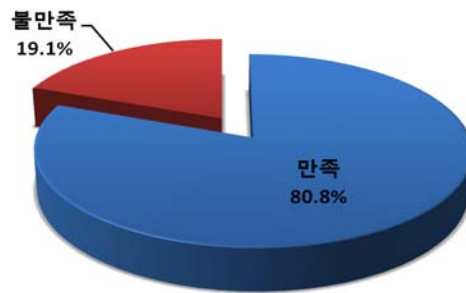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100(9,435)	7.4	18.3	29.2	45.0	0.1
성별	남자	100(4,874)	6.6	15.6	27.7	49.9	0.2
	여자	100(4,561)	8.3	21.0	30.8	39.7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6	7.2	18.2	70.8	0.3
	중학교	100(2,844)	6.3	17.6	32.1	44.0	0.0
	고등학교	100(3,648)	11.4	27.6	35.9	24.9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3	17.2	28.0	47.5	0.1
	광역시	100(2,432)	7.7	19.4	30.3	42.4	0.2
	시군	100(5,610)	7.3	18.0	29.1	45.5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2	17.7	28.9	46.0	0.1
	한부모가정	100(743)	10.1	23.0	32.8	33.6	0.4
	조손가정	100(82)	7.3	19.5	34.1	39.0	0.0

(1)-⑤ 생활만족도 -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

○ ‘선생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0.8%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1%만이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89.6%)에서 고등학생(74.3%)으로 갈수록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되었고,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96】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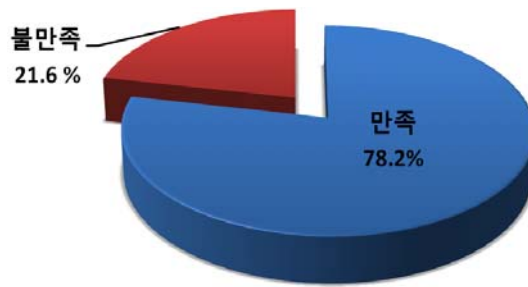
표 II-106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100(9,435)	5.9	13.2	33.7	47.1	0.1
성별	남자	100(4,874)	6.5	12.0	32.7	48.6	0.1
	여자	100(4,561)	5.2	14.5	34.8	45.4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4.0	6.3	18.0	71.6	0.1
	중학교	100(2,844)	6.5	13.5	36.0	44.0	0.1
	고등학교	100(3,648)	7.0	18.6	44.6	29.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0	13.1	31.5	49.2	0.1
	광역시	100(2,432)	6.1	12.8	36.8	44.2	0.0
	시군	100(5,610)	5.8	13.4	32.9	47.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8	12.8	33.2	48.0	0.1
	한부모가정	100(743)	6.2	17.2	39.3	37.1	0.1
	조손가정	100(82)	7.3	20.7	36.6	34.1	1.2

(1)-⑥ 생활만족도 -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2%가 만족한다고 응답

-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2%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21.6%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8.5%)에서 고등학교(70.5%)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97】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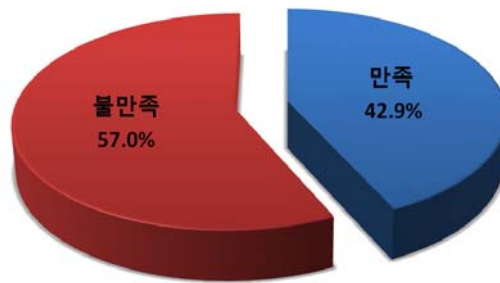
표 II-107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100(9,435)	6.6	15.0	34.8	43.5	0.1
성별	남자	100(4,874)	6.4	13.7	33.6	46.2	0.1
	여자	100(4,561)	6.9	16.4	36.0	40.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7	7.7	22.0	66.5	0.1
	중학교	100(2,844)	6.8	15.5	35.8	41.7	0.2
	고등학교	100(3,648)	8.9	20.4	44.3	26.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3	13.7	33.4	47.5	0.1
	광역시	100(2,432)	6.8	15.0	37.6	40.3	0.2
	시군	100(5,610)	6.9	15.3	33.9	43.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3	14.6	34.4	44.5	0.1
	한부모가정	100(743)	8.9	19.8	39.0	32.2	0.1
	조손가정	100(82)	17.1	15.9	30.5	36.6	0.0

(1)-⑦ 생활만족도 - 학업성적

‘학업성적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만족한다’의 응답률이 42.9%, ‘만족하지 않는다’는 57.0%로 응답

- ‘학업성적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2.9%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57.0%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45.6%)보다 여학생(40.0%)의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75.8%)에서 고등학교(22.6%)으로 갈수록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가족구성별은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8】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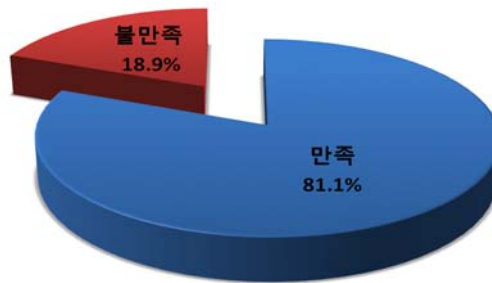
표 II-108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100(9,435)	24.8	32.2	23.7	19.2	0.1
성별	남자	100(4,874)	23.0	31.2	23.4	22.2	0.1
	여자	100(4,561)	26.7	33.3	24.0	15.9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6	16.4	31.2	44.6	0.2
	중학교	100(2,844)	27.3	37.9	23.9	10.9	0.1
	고등학교	100(3,648)	36.7	40.6	17.5	5.1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5.4	33.3	21.9	19.2	0.1
	광역시	100(2,432)	24.1	33.2	23.5	19.1	0.1
	시·군	100(5,610)	24.9	31.5	24.2	19.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4.1	31.9	24.1	19.8	0.1
	한부모가정	100(743)	31.5	36.2	19.7	12.4	0.3
	조손가정	100(82)	25.6	37.8	18.3	18.3	0.0

(1)-⑧ 생활만족도 - 건강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1.1%가 만족한다고 응답

-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1.1%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8.9%만이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3.7%)이 여학생(78.3%)보다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92.2%)에서 고등학교(70.4%)로 갈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81.9%)이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정(72.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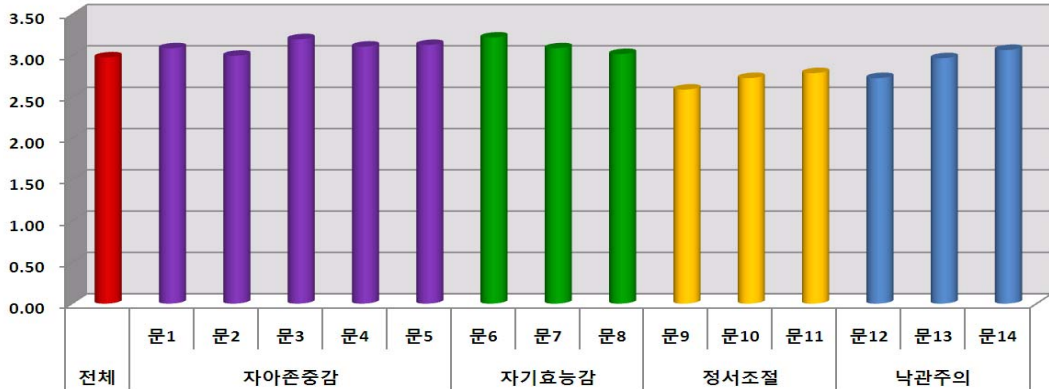
【그림 II-99】 건강에 대한 만족도

표 II-109 건강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무응답
전체		100(9,435)	4.3	14.6	29.6	51.5	0.0
성별	남자	100(4,874)	3.8	12.5	28.0	55.7	0.1
	여자	100(4,561)	4.8	16.9	31.3	47.0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7	5.1	17.9	74.3	0.1
	중학교	100(2,844)	3.6	13.1	31.4	51.9	0.0
	고등학교	100(3,648)	6.1	23.5	37.7	32.7	0.0
거주지	서울	100(1,393)	4.2	13.8	27.1	54.9	0.1
	광역시	100(2,432)	4.3	15.6	31.2	48.9	0.0
	시·군	100(5,610)	4.3	14.4	29.5	51.7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0	14.1	29.3	52.6	0.0
	한부모가정	100(743)	7.0	20.7	33.4	38.9	0.0
	조손가정	100(82)	8.5	13.4	29.3	48.8	0.0

(2)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2-1 자아존중감/2-2 자기효능감/2-3 정서조절/2-4 낙관주의)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아존중감(M=3.11)’, ‘자기효능감(M=3.11)’, ‘낙관주의(M=2.92)’, ‘정서조절(M=2.7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0】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항목별 평균

표 II-110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자아 존중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9	0.84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00	0.85
	3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3.20	0.79
	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11	0.85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13	0.85
소계		3.11	0.84
자기 효능감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3.22	0.72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3.09	0.78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02	0.79
소계		3.11	0.76
정서 조절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2.59	0.93
	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2.73	0.92
	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2.79	0.90
소계		2.70	0.92
낙관 주의	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2.73	0.89
	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97	0.87
	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3.07	0.79
소계		2.92	0.85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2.98	0.84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111>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 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모두 성별, 교급별, 거주지, 그리고 가족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 분석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광역시와 시군의 응답자보다 서울의 응답자가 더 높은 평균점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가지 요인 모두 양부모가정의 응답자가 한부모가정보다는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11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개인내(内)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874)	3.13 (0.72)	3.267**	3.15 (0.68)	4.969***	2.79 (0.77)	11.329***	2.96 (0.72)	5.423***	2.96 (0.64)	8.281***
	여자 (n=4,561)	3.08 (0.70)		3.08 (0.67)		2.61 (0.77)		2.88 (0.71)		2.86 (0.64)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3.24 (0.77)	79.822*** (ab,ac)	3.33 (0.69)	239.890*** (ab,ac,bc)	3.07 (0.78)	599.390*** (ab,ac,bc)	3.20 (0.75)	365.847*** (ab,ac,bc)	3.20 (0.67)	502.432*** (ab,ac,bc)
	중학교 (n=2,844)	3.07 (0.70)		3.05 (0.68)		2.65 (0.72)		2.85 (0.69)		2.85 (0.61)	
	고등학교 (n=3,648)	3.03 (0.65)		2.99 (0.63)		2.45 (0.70)		2.75 (0.64)		2.72 (0.57)	
거주지	서울 (n=1,393)	3.17 (0.69)	6.147** (de,df)	3.19 (0.66)	11.507*** (de,df)	2.77 (0.77)	6.981* (de,df)	2.97 (0.74)	3.983* (de,df)	2.98 (0.64)	8.653*** (de,df)
	광역시 (n=2,432)	3.10 (0.73)		3.10 (0.69)		2.70 (0.79)		2.90 (0.72)		2.90 (0.66)	
	시군 (n=5,610)	3.09 (0.71)		3.10 (0.67)		2.69 (0.77)		2.92 (0.71)		2.90 (0.64)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3.12 (0.71)	12.045*** (gh)	3.13 (0.67)	11.301*** (gh)	2.72 (0.77)	16.600*** (gh)	2.94 (0.71)	10.454*** (gh)	2.93 (0.64)	15.689*** (gh)
	한부모가정 (n=743)	2.95 (0.71)		2.96 (0.69)		2.50 (0.78)		2.77 (0.72)		2.74 (0.65)	
	조손가정 (n=82)	2.91 (0.78)		2.95 (0.75)		2.57 (0.88)		2.79 (0.86)		2.77 (0.75)	
전체 <i>M</i> (<i>SD</i>)		3.11(0.84)		3.11(0.68)		2.70(0.78)		2.92(0.72)		2.9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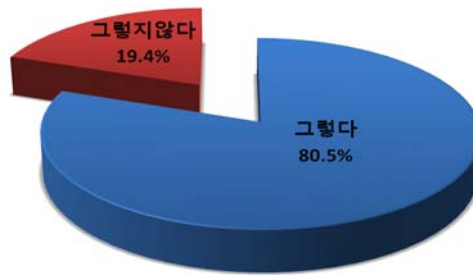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1)-① 자아존중감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0.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0.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4%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중학생(79.6%)이 초등학교(81.6%)와 고등학교(80.4%)에 비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1.3%)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73.6%)과 조손가정(72.0%)의 청소년에 비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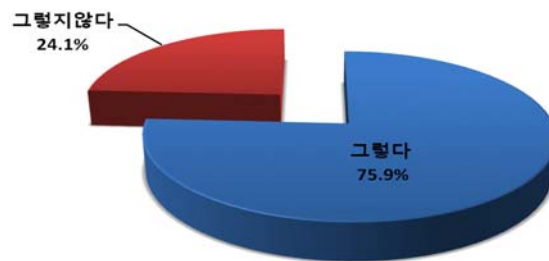
표 II-11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5.4	14.0	46.7	33.8	0.1
성별	남자	100(4,874)	6.3	13.6	45.4	34.6	0.1
	여자	100(4,561)	4.5	14.4	48.2	32.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6	9.8	38.7	42.9	0.1
	중학교	100(2,844)	5.2	15.2	47.0	32.5	0.0
	고등학교	100(3,648)	3.0	16.5	53.0	27.4	0.1
거주지	서울	100(1,393)	4.3	12.7	45.2	37.8	0.0
	광역시	100(2,432)	6.0	13.6	47.5	32.8	0.1
	시군	100(5,610)	5.5	14.5	46.8	33.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3	13.4	46.7	34.6	0.0
	한부모가정	100(743)	6.9	19.4	47.8	25.8	0.1
	조손가정	100(82)	9.8	18.3	42.7	29.3	0.0

(2-1)-② 자아존중감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5.9%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5.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4.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중학생(73.0%)이 초등학교(77.3%)와 고등학교(77.0%)에 비해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고,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76.6%)의 청소년이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손가정(63.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10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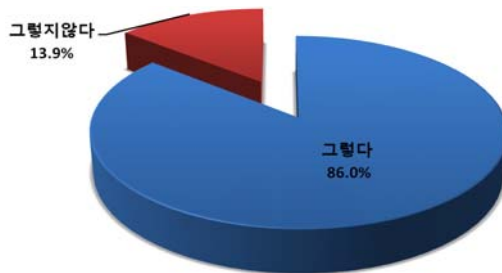
표 II-11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5.6	18.5	46.8	29.1	0.1
성별	남자	100(4,874)	6.2	16.9	45.3	31.5	0.1
	여자	100(4,561)	5.0	20.1	48.4	26.5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8.4	14.2	40.1	37.2	0.1
	중학교	100(2,844)	5.7	21.3	47.5	25.5	0.0
	고등학교	100(3,648)	3.3	19.6	51.6	25.5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8	15.9	46.8	33.5	0.0
	광역시	100(2,432)	6.1	17.3	46.1	30.5	0.1
	시·군	100(5,610)	5.8	19.6	47.0	27.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5	17.8	46.8	29.8	0.1
	한부모가정	100(743)	5.8	24.9	47.6	21.5	0.1
	조손가정	100(82)	11.0	25.6	39.0	24.4	0.0

(2-1)-③ 자아존중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6.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6.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3.9%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5.0%)이 여학생(87.0%)에 비해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낮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73.2%)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86.5%)과 한부모가정(82.4%)의 청소년에 비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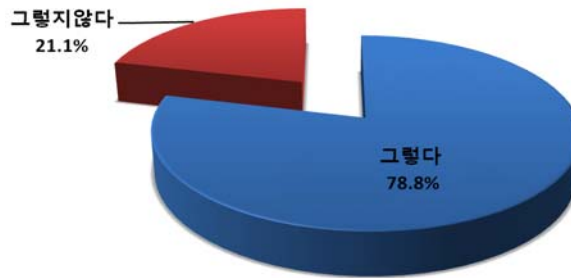
표 II-11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7	10.2	48.8	37.2	0.1
성별	남자	100(4,874)	4.1	10.7	47.5	37.6	0.1
	여자	100(4,561)	3.2	9.7	50.2	36.8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9	7.9	37.2	48.9	0.2
	중학교	100(2,844)	3.6	11.3	50.7	34.4	0.1
	고등학교	100(3,648)	1.9	11.3	56.7	30.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5	9.5	45.7	41.3	0.0
	광역시	100(2,432)	4.2	10.3	48.6	36.8	0.1
	시군	100(5,610)	3.5	10.4	49.6	36.3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7	9.8	48.3	38.2	0.1
	한부모가정	100(743)	3.2	14.1	54.5	27.9	0.3
	조손가정	100(82)	7.3	19.5	51.2	22.0	0.0

(2-1)-④ 자아존중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8%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1.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0.7%)이 여학생(76.8%)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3.5%)에서 중학생(78.2%), 고등학교(75.5%)으로 갈수록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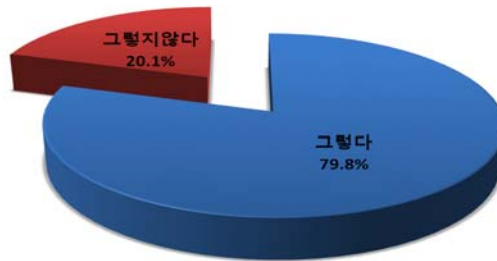
표 II-11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3	16.8	43.6	35.2	0.1
성별	남자	100(4,874)	4.4	14.8	43.6	37.0	0.2
	여자	100(4,561)	4.1	19.0	43.7	33.2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2	11.1	37.3	46.2	0.2
	중학교	100(2,844)	3.7	18.0	44.5	33.6	0.1
	고등학교	100(3,648)	3.9	20.6	48.1	27.4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9	15.9	41.1	39.2	0.0
	광역시	100(2,432)	4.6	16.7	44.3	34.1	0.2
	시군	100(5,610)	4.2	17.1	44.0	34.6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1	16.1	43.7	36.1	0.1
	한부모가정	100(743)	5.8	24.5	42.5	27.1	0.1
	조손가정	100(82)	7.3	19.5	46.3	26.8	0.0

(2-1)-⑤ 자아존중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8%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9.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2.6%)이 여학생(76.8%)보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87.8%)에서 중학생(78.8%), 고등학생(74.1%)으로 갈수록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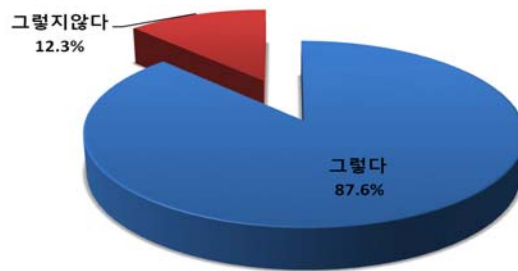
표 II-11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5	15.6	43.0	36.8	0.1
성별	남자	100(4,874)	4.2	13.1	42.7	39.9	0.1
	여자	100(4,561)	4.8	18.3	43.3	33.5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4.6	7.4	31.9	55.9	0.2
	중학교	100(2,844)	4.7	16.5	44.9	33.9	0.0
	고등학교	100(3,648)	4.3	21.5	50.4	23.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9	16.2	39.2	40.7	0.0
	광역시	100(2,432)	5.1	15.4	43.4	35.9	0.1
	시군	100(5,610)	4.4	15.6	43.7	36.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5	14.9	42.8	37.7	0.1
	한부모가정	100(743)	4.4	23.6	44.1	27.7	0.1
	조손가정	100(82)	4.9	15.9	47.6	31.7	0.0

(2-2)-① 자기효능감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7.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7.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2.3%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8.0%)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84.8%)과 조손가정(84.1%)의 청소년보다 자신이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림 II-106】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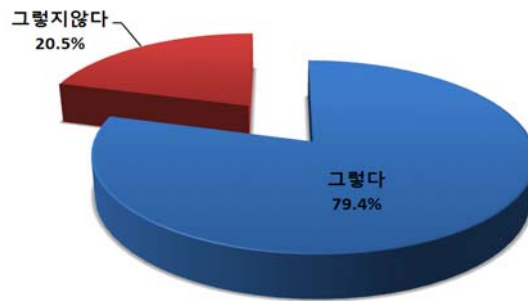
표 II-11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1	10.2	51.1	36.5	0.0
성별	남자	100(4,874)	2.5	9.6	49.9	38.0	0.1
	여자	100(4,561)	1.7	10.9	52.3	35.1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4	6.6	38.1	52.8	0.1
	중학교	100(2,844)	2.1	11.8	53.2	32.8	0.0
	고등학교	100(3,648)	1.8	11.9	59.9	26.5	0.0
거주지	서울	100(1,393)	1.4	9.2	48.2	41.3	0.0
	광역시	100(2,432)	2.8	10.4	50.5	36.2	0.0
	시·군	100(5,610)	1.9	10.4	52.0	35.6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0	9.9	50.5	37.5	0.0
	한부모가정	100(743)	2.4	12.7	57.9	26.9	0.1
	조손가정	100(82)	3.7	12.2	56.1	28.0	0.0

(2-2)-②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4%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5%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1.6%)이 여학생(77.1%)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하였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7.8%)에서 중학생(77.3%), 고등학교(74.4%)으로 갈수록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응답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가정에 비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07】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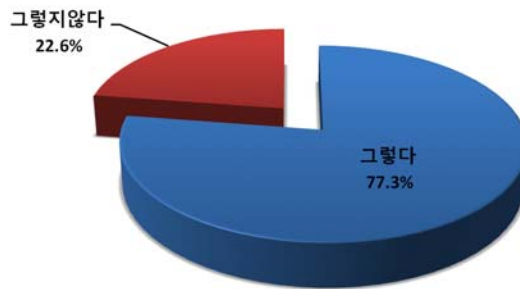
표 II-11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6	17.9	48.0	31.4	0.1
성별	남자	100(4,874)	2.5	15.8	48.5	33.1	0.1
	여자	100(4,561)	2.7	20.2	47.5	29.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4	9.8	39.4	48.4	0.1
	중학교	100(2,844)	3.0	19.7	50.0	27.2	0.1
	고등학교	100(3,648)	2.4	23.1	53.4	21.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9	13.8	46.7	36.6	0.0
	광역시	100(2,432)	2.8	17.2	48.8	31.0	0.1
	시군	100(5,610)	2.4	19.3	48.0	30.3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4	17.3	48.0	32.2	0.0
	한부모가정	100(743)	3.2	24.9	48.6	23.1	0.1
	조손가정	100(82)	6.1	20.7	48.8	24.4	0.0

(2-2)-③ 자기효능감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7.3%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7.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2.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79.5%)이 여학생(74.9%)보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08】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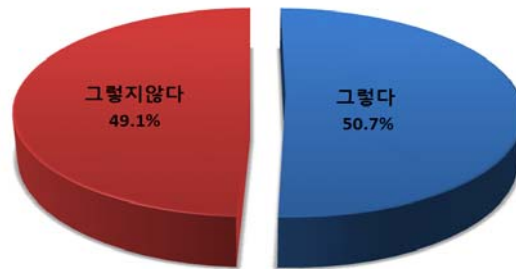
표 II-11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0	19.6	49.8	27.5	0.1
성별	남자	100(4,874)	2.9	17.5	49.8	29.8	0.1
	여자	100(4,561)	3.1	21.9	49.8	25.1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0	13.3	42.2	41.5	0.1
	중학교	100(2,844)	3.5	21.9	50.1	24.4	0.0
	고등학교	100(3,648)	2.6	22.9	55.7	18.7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9	16.1	48.0	33.0	0.0
	광역시	100(2,432)	3.2	19.3	50.2	27.2	0.1
	시군	100(5,610)	2.9	20.6	50.0	26.3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9	18.9	49.9	28.2	0.1
	한부모가정	100(743)	3.8	26.5	50.1	19.5	0.1
	조손가정	100(82)	7.3	25.6	42.7	24.4	0.0

(2-3)-① 정서조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50.7%, ‘그렇지 않다’는 49.1%로 응답

-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0.7%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9.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75.1%)에서 중학생(48.9%), 고등학생(32.5%)으로 갈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9】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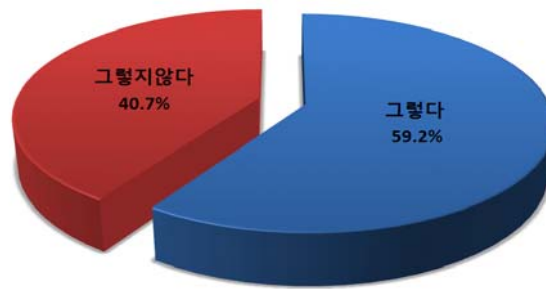
표 II-12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0.7	38.4	33.0	17.7	0.1
성별	남자	100(4,874)	9.6	36.1	34.5	19.6	0.2
	여자	100(4,561)	11.9	40.9	31.5	15.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2	19.5	40.0	35.1	0.2
	중학교	100(2,844)	10.6	40.5	35.8	13.1	0.1
	고등학교	100(3,648)	15.3	52.1	25.3	7.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8.6	38.0	33.8	19.5	0.1
	광역시	100(2,432)	11.1	38.1	32.2	18.5	0.1
	시·군	100(5,610)	11.1	38.6	33.3	16.9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0.2	37.6	33.7	18.3	0.1
	한부모가정	100(743)	14.5	46.8	27.3	10.9	0.4
	조손가정	100(82)	15.9	42.7	26.8	14.6	0.0

(2-3)-② 정서조절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59.2%, ‘그렇지 않다’는 40.7%로 응답

-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9.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0.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학생(65.3%)이 여학생(52.6%)보다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5.3%)에서 중학생(57.6%), 고등학생(47.5%)으로 갈수록 좌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슬프거나 힘들 때에 좌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0】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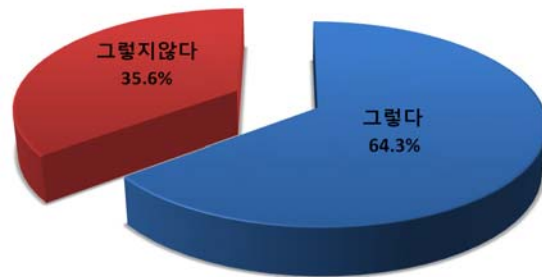
표 II-12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8.5	32.2	37.6	21.6	0.1
성별	남자	100(4,874)	7.0	27.5	40.3	25.0	0.1
	여자	100(4,561)	10.0	37.3	34.8	17.8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7	17.9	37.3	37.9	0.2
	중학교	100(2,844)	8.2	34.1	40.2	17.4	0.1
	고등학교	100(3,648)	10.0	42.3	35.9	11.6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3	30.4	37.6	24.6	0.1
	광역시	100(2,432)	8.1	33.4	36.9	21.5	0.2
	시군	100(5,610)	8.9	32.2	38.0	20.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8.0	31.7	38.2	22.0	0.1
	한부모가정	100(743)	12.4	39.2	32.6	15.6	0.3
	조손가정	100(82)	14.6	28.0	26.8	30.5	0.0

(2-3)-③ 정서조절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64.3%, ‘그렇지 않다’는 35.6%로 응답

-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응답자 중 64.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5.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68.6%)이 여학생(59.8%)보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5.9%)에서 중학생(63.2%), 고등학생(55.8%)으로 갈수록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림 II-III】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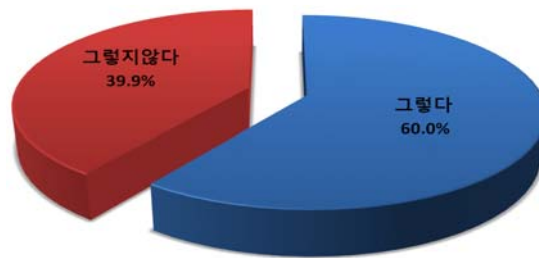
표 II-12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8.2	27.4	42.0	22.3	0.1
성별	남자	100(4,874)	7.6	23.8	42.9	25.7	0.1
	여자	100(4,561)	8.9	31.2	41.0	18.8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9	18.0	40.2	35.7	0.1
	중학교	100(2,844)	7.7	29.1	43.1	20.1	0.0
	고등학교	100(3,648)	10.5	33.6	42.5	13.3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8	25.2	42.9	25.0	0.1
	광역시	100(2,432)	8.6	27.5	41.5	22.4	0.1
	시군	100(5,610)	8.4	27.9	41.9	21.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7	26.9	42.3	23.0	0.1
	한부모가정	100(743)	12.1	33.0	39.3	15.5	0.1
	조손가정	100(82)	18.3	26.8	32.9	22.0	0.0

(2-4)-① 낙관주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60.0%, ‘그렇지 않다’는 39.9%로 응답

-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9.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63.9%)이 여학생(55.8%)에 비해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8.3%)에서 중학생(57.5%), 고등학생(47.1%)으로 갈수록 더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12】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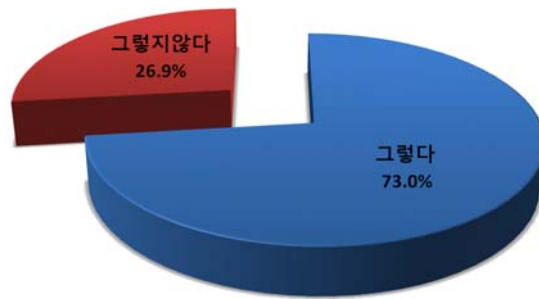
표 II-12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7.9	32.0	39.9	20.1	0.1
성별	남자	100(4,874)	7.2	28.9	41.1	22.8	0.1
	여자	100(4,561)	8.6	35.5	38.6	17.2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5	16.1	41.3	37.0	0.1
	중학교	100(2,844)	7.6	34.8	40.9	16.6	0.1
	고등학교	100(3,648)	10.0	42.8	37.9	9.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7.8	30.7	37.9	23.4	0.1
	광역시	100(2,432)	8.1	32.8	39.3	19.7	0.0
	시군	100(5,610)	7.7	32.1	40.6	19.5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6	31.6	40.1	20.6	0.1
	한부모가정	100(743)	10.2	37.6	38.1	13.9	0.3
	조손가정	100(82)	9.8	26.8	41.5	20.7	1.2

(2-4)-② 낙관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3.0%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73.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6.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78.5%)이 중학생(69.8%), 고등학생(71.1%)에 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73.9%)이 한부모가정(65.4%)과 조손가정(57.3%)에 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크게 차이하지 않았다.



【그림 II-11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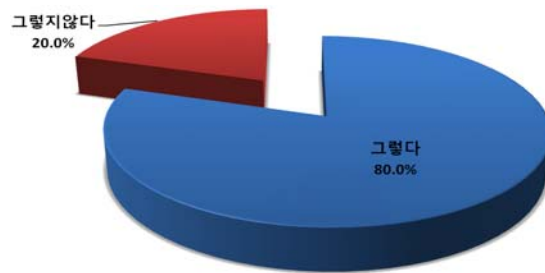
표 II-12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5.6	21.3	44.2	28.8	0.1
성별	남자	100(4,874)	6.0	20.6	43.4	30.0	0.1
	여자	100(4,561)	5.3	21.9	45.1	27.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3	15.1	36.3	42.2	0.2
	중학교	100(2,844)	6.1	24.1	46.0	23.8	0.0
	고등학교	100(3,648)	4.8	24.0	49.2	22.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0	18.7	41.6	33.7	0.0
	광역시	100(2,432)	5.8	21.6	44.9	27.7	0.0
	시군	100(5,610)	5.5	21.7	44.5	28.1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4	20.6	44.2	29.7	0.1
	한부모가정	100(743)	6.5	28.0	45.5	19.9	0.1
	조손가정	100(82)	17.1	25.6	30.5	26.8	0.0

(2-4)-③ 낙관주의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에
전체 응답자 중 80.0%가 그렇다고 응답

-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0%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1.4%)이 여학생(78.6%)보다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6.9%)에서 중학생(78.4%), 고등학생(75.7%)으로 갈수록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이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보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I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표 II-12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0	16.0	49.8	30.2	0.0
성별	남자	100(4,874)	3.9	14.7	49.3	32.0	0.0
	여자	100(4,561)	4.0	17.4	50.2	28.3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8	9.2	37.0	49.9	0.1
	중학교	100(2,844)	3.9	17.6	53.0	25.4	0.0
	고등학교	100(3,648)	4.1	20.2	57.5	18.1	0.0
거주지	서울	100(1,393)	4.5	15.4	45.7	34.4	0.0
	광역시	100(2,432)	3.7	17.0	49.2	30.0	0.0
	시군	100(5,610)	4.0	15.7	51.0	29.3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8	15.5	49.7	30.9	0.0
	한부모가정	100(743)	4.8	20.2	52.4	22.5	0.1
	조손가정	100(82)	6.1	26.8	40.2	26.8	0.0

2. 가족영역

1) 부모의 지원 -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부모의 지원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경제적 지원(M=3.4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M=3.27)', '정보적 지원(M=3.24)'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115】 부모의 지원의 항목별 평균

표 II-126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정서적 지원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3.23	1.15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3.22	1.17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40	1.07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3.17	1.21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3.34	1.13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3.26	1.17
소계			3.27	1.15
정보적 지원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3.26	1.17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3.28	1.16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3.12	1.24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3.31	1.17
소계			3.24	1.18
경제적 지원	11	용돈을 주신다	3.37	1.17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3.58	1.03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3.62	1.01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3.41	1.12
소계			3.49	1.08
부모의 지원 영역(전체)			3.33	1.14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지원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127>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지원의 세부 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정서적 지원의 경우 성별($t=2.211$, $p<.05$), 교급별($F=198.249$, $p<.001$) 그리고 가족구성별($t=8.072$, $p<.001$)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정보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의 경우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으며, 가족구성별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 각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교급별($F=181.235$, $p<.001$) 및 가족구성별($t=9.788$,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7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지원(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874)	3.30 (1.08)	2,211*	3.26 (1.10)	1.606	3.48 (0.98)	- 1.330	3.34 (1.00)	1.167
	여자 (n=4,561)	3.25 (1.08)		3.22 (1.10)		3.51 (0.94)		3.31 (0.99)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3.58 (1.02)	198,249 *** (ab,ac, bc)	3.59 (1.02)	262,041 *** (ab,ac, bc)	3.62 (0.96)	44,721 *** (ab,ac, bc)	3.59 (0.96)	181,235 *** (ab,ac, bc)
	중학교 (n=2,844)	3.21 (1.05)		3.22 (1.06)		3.48 (0.93)		3.29 (0.96)	
	고등학교 (n=3,648)	3.07 (1.08)		2.98 (1.11)		3.40 (0.97)		3.14 (1.00)	
거주지	서울 (n=1,393)	3.27 (1.01)	.394	3.28 (1.00)	1.168	3.46 (0.88)	1.011	3.33 (0.91)	.181
	광역시 (n=2,432)	3.29 (1.17)		3.24 (1.19)		3.50 (1.06)		3.34 (1.09)	
	시·군 (n=5,610)	3.27 (1.05)		3.23 (1.08)		3.50 (0.94)		3.32 (0.9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3.18 (0.73)	8.072***	3.16 (0.76)	10,274 ***	3.40 (0.59)	7.295***	3.24 (0.61)	9.788***
	한부모가정 (n=743)	2.95 (0.81)		2.86 (0.82)		3.24 (0.68)		3.01 (0.68)	
전체 <i>M</i> (<i>SD</i>)		3.27(1.15)		3.24(1.18)		3.49(1.08)		3.33(1.1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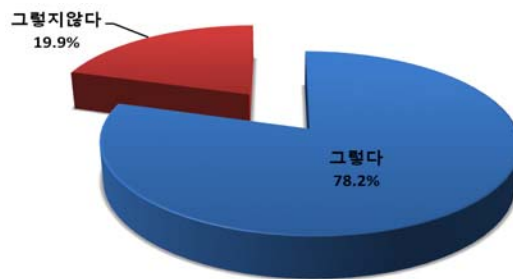
*주1: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주2: 가족구성의 조손가정은 무응답으로 처리

1)-①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2%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78.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9%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87.6%)에서 중학생(77.3%), 고등학생(71.4%)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아졌고, 남학생의 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부모님께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한부모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6】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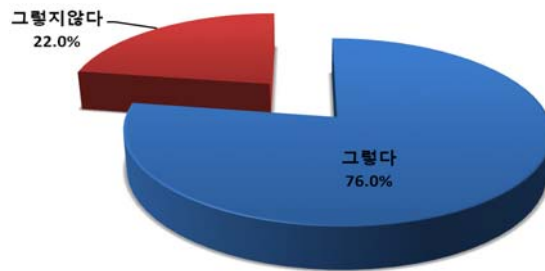
표 II-128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2	15.7	42.3	36.0	1.9
성별	남자	100(4,874)	4.5	14.2	41.9	37.5	1.9
	여자	100(4,561)	3.9	17.2	42.7	34.3	1.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0	7.3	31.3	56.3	2.1
	중학교	100(2,844)	4.1	16.9	45.0	32.3	1.7
	고등학교	100(3,648)	5.3	21.4	49.0	22.4	1.9
거주지	서울	100(1,393)	5.2	14.6	41.3	37.5	1.4
	광역시	100(2,432)	4.4	15.5	42.1	35.4	2.5
	시군	100(5,610)	3.9	16.0	42.6	35.8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0	15.4	43.0	37.5	0.1
	한부모가정	100(743)	7.0	22.3	43.9	26.6	0.1

1)-②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0%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76.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2.0%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6.6%)에서 고등학생(68.7%)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78.4%) 청소년의 응답률이 한부모가정(67.2%)의 응답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I7】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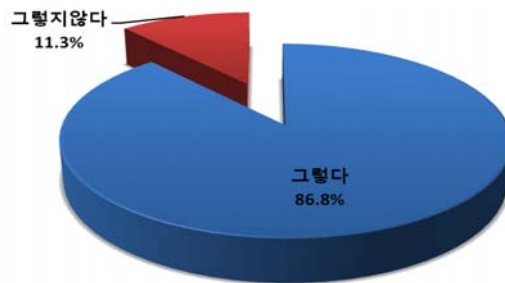
표 II-129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3	17.7	39.5	36.5	2.0
성별	남자	100(4,874)	3.9	16.0	39.5	38.7	2.0
	여자	100(4,561)	4.7	19.6	39.5	34.2	2.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4	8.9	29.2	57.4	2.1
	중학교	100(2,844)	4.3	19.4	41.5	33.1	1.8
	고등학교	100(3,648)	5.8	23.6	46.3	22.4	1.9
거주지	서울	100(1,393)	4.7	16.9	38.1	38.6	1.6
	광역시	100(2,432)	4.6	17.2	39.9	35.9	2.5
	시군	100(5,610)	4.0	18.2	39.7	36.3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1	17.5	40.2	38.1	0.1
	한부모가정	100(743)	7.5	24.9	40.1	27.1	0.4

1)-③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6.8%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1.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90.7%)에서 중학생(85.8%), 고등학생(84.5%)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9.0%)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82.6%)의 청소년보다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성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118】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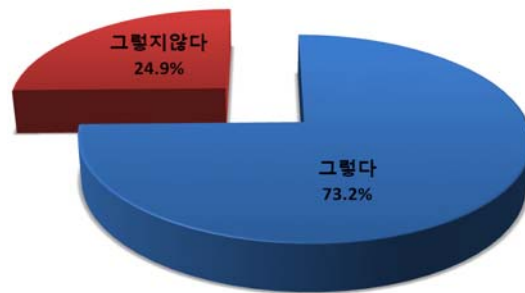
표 II-130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7	8.6	44.4	42.4	1.9
성별	남자	100(4,874)	2.7	8.4	43.9	43.0	1.9
	여자	100(4,561)	2.6	8.8	44.8	41.8	1.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0	5.3	30.2	60.5	2.1
	중학교	100(2,844)	2.7	9.7	46.7	39.1	1.8
	고등학교	100(3,648)	3.2	10.5	54.0	30.5	1.9
거주지	서울	100(1,393)	3.3	7.3	42.9	45.0	1.4
	광역시	100(2,432)	2.9	8.8	44.5	41.4	2.5
	시군	100(5,610)	2.4	8.9	44.7	42.3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5	8.4	44.9	44.0	0.1
	한부모가정	100(743)	4.6	12.7	48.5	34.2	0.1

1)-④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3.2%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4.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83.7%)에서 중학생(71.8%), 고등학생(65.8%)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75.6%)이 한부모가정(62.7%)보다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I9】 고민을 들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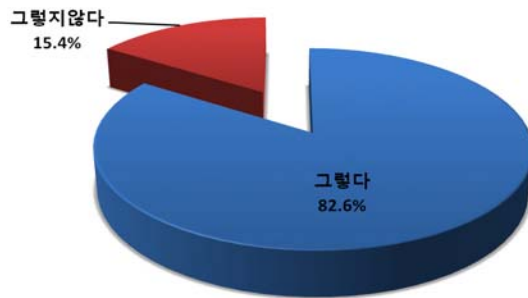
표 II-131 고민을 들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0	18.9	36.9	36.3	1.9
성별	남자	100(4,874)	5.9	18.5	36.6	37.0	2.0
	여자	100(4,561)	6.1	19.3	37.2	35.6	1.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9	10.2	28.3	55.5	2.1
	중학교	100(2,844)	6.5	20.0	39.2	32.6	1.8
	고등학교	100(3,648)	7.3	24.9	42.0	23.8	1.9
거주지	서울	100(1,393)	7.0	18.2	34.0	39.5	1.4
	광역시	100(2,432)	5.8	19.7	37.0	35.0	2.5
	시군	100(5,610)	5.9	18.6	37.5	36.1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9	18.4	37.6	38.0	0.1
	한부모가정	100(743)	8.7	28.1	36.5	26.2	0.4

1)-⑤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2.6%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5.4%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0.2%)에서 중학생(81.7%), 고등학생(77.2%)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5.0%)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74.7%)의 청소년보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0】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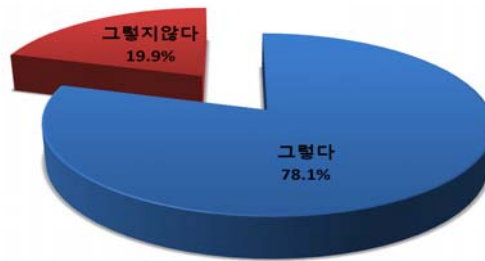
표 II-13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7	11.7	40.8	41.8	2.0
성별	남자	100(4,874)	3.8	10.8	40.6	42.9	2.0
	여자	100(4,561)	3.8	12.6	41.0	40.6	2.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1	5.6	27.7	62.5	2.1
	중학교	100(2,844)	4.1	12.4	43.6	38.1	1.9
	고등학교	100(3,648)	4.9	16.0	49.3	27.9	1.9
거주지	서울	100(1,393)	4.2	10.6	38.8	44.8	1.6
	광역시	100(2,432)	4.1	12.5	41.5	39.4	2.5
	시군	100(5,610)	3.5	11.6	41.0	42.0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5	11.4	41.6	43.3	0.1
	한부모가정	100(743)	7.1	17.9	40.9	33.8	0.3

1)-⑥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1%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86.2%)에서 중학생(77.1%), 고등학생(72.3%)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0.5%)이 한부모가정(69.0%)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21】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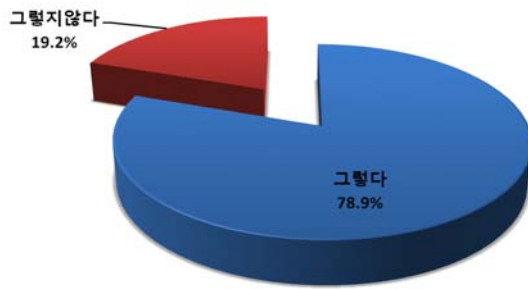
표 II-13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8	15.1	39.6	38.5	2.0
성별	남자	100(4,874)	4.6	14.5	38.9	39.9	2.0
	여자	100(4,561)	5.0	15.9	40.3	36.9	1.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2	8.5	27.9	58.3	2.1
	중학교	100(2,844)	5.2	15.9	42.2	34.8	1.8
	고등학교	100(3,648)	5.7	20.0	47.0	25.3	2.0
거주지	서울	100(1,393)	5.6	13.2	38.5	41.2	1.5
	광역시	100(2,432)	5.1	16.2	38.4	37.7	2.6
	시군	100(5,610)	4.5	15.2	40.4	38.1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6	14.8	40.4	40.1	0.1
	한부모가정	100(743)	8.2	22.5	39.8	29.2	0.3

1)-⑦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9%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7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9.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85.6%)에서 중학생(78.8%), 고등학생(73.6%)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았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1.2%)이 한부모가정(71.3%)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122】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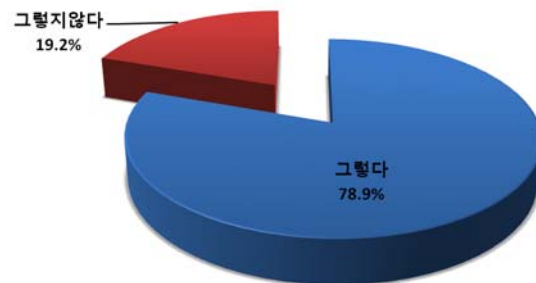
표 II-13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5.1	13.9	40.2	38.7	1.9
성별	남자	100(4,874)	5.3	13.3	39.5	40.0	1.9
	여자	100(4,561)	5.2	14.6	40.9	37.4	1.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4.2	8.2	30.8	54.8	2.1
	중학교	100(2,844)	4.6	14.9	41.1	37.7	1.8
	고등학교	100(3,648)	6.6	17.9	47.1	26.6	1.9
거주지	서울	100(1,393)	5.2	12.0	38.7	42.8	1.4
	광역시	100(2,432)	5.9	14.1	40.3	37.2	2.5
	시·군	100(5,610)	4.9	14.3	40.5	38.4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5.1	13.6	40.8	40.4	0.1
	한부모가정	100(743)	7.7	20.7	42.7	28.7	0.3

1)-⑧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9%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9.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89.8%)에서 중학생(79.2%), 고등학생(69.8%)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비율이 낮아졌고, 남학생(79.4%)이 여학생(78.2%)에 비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3】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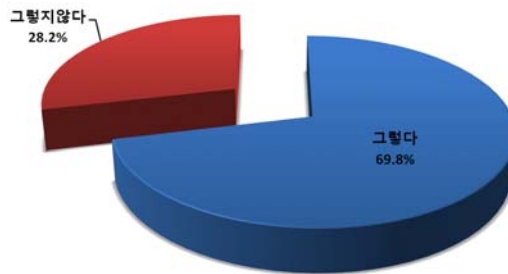
표 II-13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6	14.6	38.6	40.3	2.0
성별	남자	100(4,874)	4.7	14.0	37.7	41.7	1.9
	여자	100(4,561)	4.5	15.3	39.4	38.8	2.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6	5.6	28.0	61.7	2.1
	중학교	100(2,844)	4.2	14.9	41.6	37.6	1.8
	고등학교	100(3,648)	6.5	21.7	44.6	25.2	2.0
거주지	서울	100(1,393)	4.5	12.6	38.2	43.4	1.4
	광역시	100(2,432)	4.8	15.6	38.3	38.7	2.5
	시군	100(5,610)	4.5	14.7	38.8	40.2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4	14.2	39.0	42.3	0.1
	한부모가정	100(743)	7.5	23.4	41.9	26.9	0.3

1)-⑨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8%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8.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6.8%)에서 중학생(71.3%), 고등학생(54.9%)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는 응답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72.6%)의 응답률이 한부모가정(5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4】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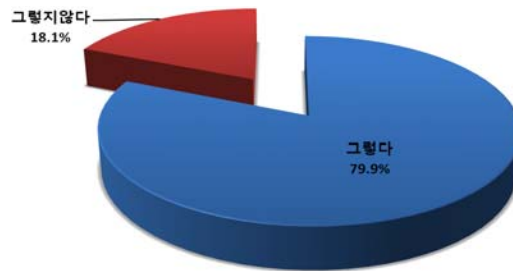
표 II-136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9	21.3	34.6	35.2	1.9
성별	남자	100(4,874)	7.2	20.0	33.8	37.1	1.9
	여자	100(4,561)	6.7	22.6	35.5	33.2	1.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2	7.8	28.3	58.5	2.1
	중학교	100(2,844)	6.2	20.7	38.6	32.7	1.8
	고등학교	100(3,648)	10.6	32.6	36.7	18.3	1.9
거주지	서울	100(1,393)	6.2	18.6	33.2	40.5	1.4
	광역시	100(2,432)	7.5	22.4	34.2	33.3	2.5
	시·군	100(5,610)	6.9	21.5	35.2	34.7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6	20.7	35.5	37.1	0.1
	한부모가정	100(743)	12.1	33.6	32.4	21.7	0.1

1)-⑩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9%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8.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89.4%)에서 중학생(80.5%), 고등학생(71.7%)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2.3%)의 응답률이 한부모가정(7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25】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표 II-137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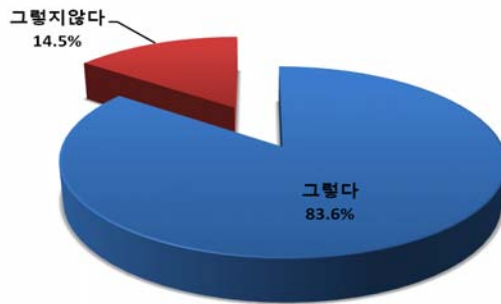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7	13.4	38.5	41.4	2.0
성별	남자	100(4,874)	4.9	12.8	38.4	42.0	2.0
	여자	100(4,561)	4.4	14.3	38.5	40.8	2.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5	5.9	28.3	61.1	2.1
	중학교	100(2,844)	4.4	13.2	41.6	38.9	1.9
	고등학교	100(3,648)	6.6	19.8	44.2	27.5	2.0
거주지	서울	100(1,393)	3.9	11.3	38.0	45.2	1.6
	광역시	100(2,432)	5.3	14.3	37.9	39.9	2.6
	시군	100(5,610)	4.5	13.7	38.8	41.1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5	13.0	38.9	43.4	0.1
	한부모가정	100(743)	7.3	22.1	41.7	28.7	0.3

1)-⑪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6%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4.5%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는 응답률이 여학생(84.3%)이 남학생(82.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80.2%)에서 중학생(83.0%), 고등학교(86.7%)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족구성별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26】 용돈을 주신다

표 II-138 용돈을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4	8.1	36.9	46.6	1.9
성별	남자	100(4,874)	7.4	7.7	36.6	46.2	2.0
	여자	100(4,561)	5.4	8.5	37.2	47.1	1.9
교육급별	초등학교	100(2,943)	8.8	8.9	28.2	52.0	2.1
	중학교	100(2,844)	6.6	8.6	36.3	46.7	1.8
	고등학교	100(3,648)	4.4	7.0	44.4	42.3	1.9
거주지	서울	100(1,393)	9.1	8.7	35.2	45.7	1.4
	광역시	100(2,432)	6.3	8.4	35.9	46.8	2.5
	시·군	100(5,610)	5.8	7.8	37.8	46.8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6	8.1	37.1	48.0	0.1
	한부모가정	100(743)	5.8	9.2	43.1	41.7	0.3

1)-⑫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1.0%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0%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92.6%)이 남학생(89.6%)보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93.1%)이 한부모가정(88.3%)보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7】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표 II-139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0	5.0	36.5	54.5	2.0
성별	남자	100(4,874)	2.4	5.9	36.6	53.0	2.1
	여자	100(4,561)	1.4	4.1	36.3	56.2	1.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7	3.2	28.1	64.7	2.4
	중학교	100(2,844)	1.8	5.1	37.9	53.5	1.8
	고등학교	100(3,648)	2.2	6.5	42.2	47.2	1.9
거주지	서울	100(1,393)	2.0	4.4	34.8	57.2	1.6
	광역시	100(2,432)	2.5	5.8	36.3	52.8	2.5
	시군	100(5,610)	1.6	4.8	36.9	54.7	1.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8	4.9	36.6	56.5	0.2
	한부모가정	100(743)	3.4	8.1	43.7	44.5	0.3

1)-⑬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2.7%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9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3%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93.6%)이 남학생(91.8%)에 비해 준비물이 필요할 때 부모님께서 돈을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91.7%)에서 중학생(92.8%), 고등학교(93.5%)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28】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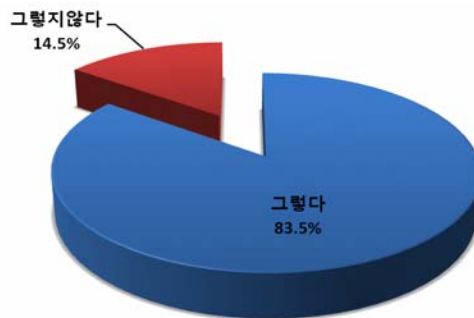
표 II-140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9	3.4	35.6	57.1	2.0
성별	남자	100(4,874)	2.5	3.7	35.7	56.1	2.0
	여자	100(4,561)	1.4	3.0	35.5	58.1	2.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5	3.5	25.2	66.5	2.2
	중학교	100(2,844)	1.7	3.8	36.5	56.3	1.8
	고등학교	100(3,648)	1.7	2.9	43.4	50.1	1.9
거주지	서울	100(1,393)	2.4	3.7	33.5	59.0	1.4
	광역시	100(2,432)	2.2	3.5	36.1	55.6	2.5
	시군	100(5,610)	1.7	3.2	36.0	57.2	1.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9	3.5	35.7	58.7	0.1
	한부모가정	100(743)	2.4	3.4	43.1	50.9	0.3

1)-⑭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5%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4.5%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90.8%)에서 중학생(85.2%), 고등학생(76.3%)으로 갈수록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는 비율이 낮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6.4%)이 한부모가정(70.8%)보다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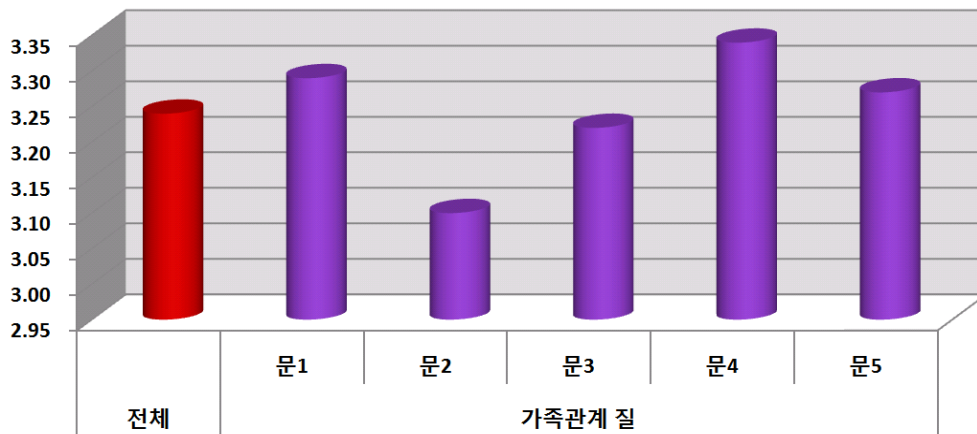
【그림 II-129】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표 II-141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4	11.1	36.5	47.0	2.0
성별	남자	100(4,874)	3.4	10.4	36.6	47.6	2.0
	여자	100(4,561)	3.6	11.8	36.3	46.5	1.9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9	5.1	27.0	63.8	2.1
	중학교	100(2,844)	3.0	10.0	39.8	45.4	1.8
	고등학교	100(3,648)	5.1	16.7	41.5	34.8	1.9
거주지	서울	100(1,393)	3.9	11.3	32.6	50.8	1.4
	광역시	100(2,432)	3.8	12.1	36.5	45.1	2.5
	시·군	100(5,610)	3.2	10.6	37.4	46.9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1	10.4	37.0	49.4	0.1
	한부모가정	100(743)	7.9	21.0	39.3	31.5	0.3

2) 가족관계 질 -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가족관계 질에 대한 항목별 평균에서는
 ‘우리 가족은 친하다(M=3.34)’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M=3.29)’,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M=3.27)’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130】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표 II-142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 편차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3.29	0.75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3.10	0.89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3.22	0.81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3.34	0.78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3.27	0.81
가족관계 질 영역(전체)		3.24	0.8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II-143>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는 항목에서 교급별, 가족구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고,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는 교급별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3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서로 아껴줌		함께 시간을 보냄		서로 의지하고 도와줌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874)	3.31 (0.76)	1.571	3.11 (0.89)	.691	3.23 (0.81)	1.809
	여자 (n=4,561)	3.28 (0.74)		3.10 (0.89)		3.20 (0.81)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3.53 (0.68)	229.533*** (ab,ac,bc)	3.44 (0.80)	358.956*** (ab,ac,bc)	3.50 (0.72)	303.822*** (ab,ac,bc)
	중학교 (n=2,844)	3.22 (0.75)		3.05 (0.86)		3.17 (0.79)	
	고등학교 (n=3,648)	3.16 (0.77)		2.87 (0.90)		3.02 (0.82)	
거주지	서울 (n=1,393)	3.31 (0.73)	.834	3.13 (0.88)	1.028	3.24 (0.80)	.780
	광역시 (n=2,432)	3.28 (0.76)		3.09 (0.91)		3.21 (0.81)	
	시군 (n=5,610)	3.30 (0.76)		3.10 (0.88)		3.21 (0.8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3.32 (0.74)	22.832*** (gh)	3.13 (0.88)	26.299*** (gh)	3.24 (0.79)	22.317*** (gh)
	한부모가정 (n=743)	3.07 (0.80)		2.80 (0.95)		2.97 (0.88)	
	조손가정 (n=82)	3.20 (0.76)		2.89 (0.93)		3.00 (0.85)	
전체 <i>M</i> (<i>SD</i>)		3.29(0.75)		3.10(0.89)		3.22(0.81)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친밀함		서로에게 관심이 많음		가족관계 질 (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874)	3.34 (0.79)	- .365	3.29 (0.81)	2.340*	3.25 (0.71)	1.372
	여자 (n=4,561)	3.34 (0.78)		3.25 (0.82)		3.23 (0.71)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3.56 (0.69)	192.495*** (ab,ac,bc)	3.51 (0.73)	210.779*** (ab,ac,bc)	3.51 (0.62)	338.078*** (ab,ac,bc)
	중학교 (n=2,844)	3.30 (0.77)		3.21 (0.80)		3.19 (0.69)	
	고등학교 (n=3,648)	3.19 (0.82)		3.12 (0.84)		3.07 (0.73)	
거주지	서울 (n=1,393)	3.35 (0.77)	.274	3.31 (0.81)	2.174	3.27 (0.70)	1.137
	광역시 (n=2,432)	3.33 (0.78)		3.26 (0.83)		3.23 (0.72)	
	시군 (n=5,610)	3.34 (0.79)		3.26 (0.81)		3.24 (0.71)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3.36 (0.77)	16.312*** (gh)	3.29 (0.80)	25.170*** (gh)	3.27 (0.70)	28.783*** (gh)
	한부모가정 (n=743)	3.14 (0.84)		3.00 (0.88)		3.00 (0.76)	
	조손가정 (n=82)	3.23 (0.81)		3.01 (0.90)		3.07 (0.76)	
전체 <i>M</i> (<i>SD</i>)		3.34(0.78)		3.27(0.81)		3.24(0.71)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우리 가족은 친하다’ 항목에서는 교급별($F=192.495$, $p<.001$), 가족구성별($F=16.312$, $p<.001$)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교급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점수는 감소하였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이 다른 가정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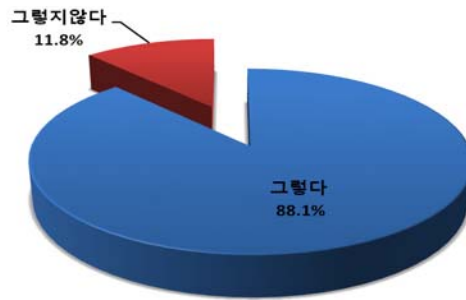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항목은 성별($t=2.340$, $p<.05$), 교급별($F=210.779$, $p<.001$), 가족구성별($F=25.170$,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질(전체)의 경우 교급별($F=338.078$, $p<.001$) 및 가족구성별($t=28.783$, $p<.001$)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각 세부 항목별 평균의 차이와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143>에 제시되어 있다.

2)-①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8.1%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8.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1.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93.4%)에서 중학생(86.4%), 고등학생(85.2%)으로 갈수록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8.8%)이 한부모가정(81.2%)과 조손가정(84.1%)에 비해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3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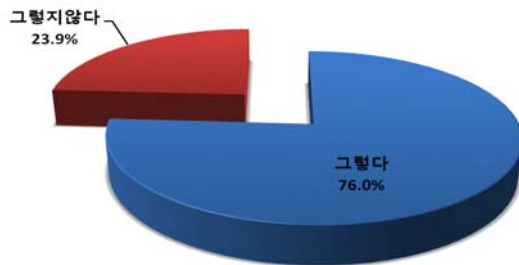
표 II-144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5	9.3	44.8	43.3	0.1
성별	남자	100(4,874)	2.8	8.9	43.6	44.6	0.1
	여자	100(4,561)	2.3	9.6	46.1	42.0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5	5.0	32.6	60.9	0.1
	중학교	100(2,844)	2.9	10.8	47.9	38.5	0.0
	고등학교	100(3,648)	3.1	11.5	52.2	33.1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7	7.9	44.9	44.5	0.0
	광역시	100(2,432)	2.7	9.5	45.2	42.5	0.1
	시군	100(5,610)	2.4	9.5	44.5	43.5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3	8.8	44.3	44.5	0.1
	한부모가정	100(743)	5.0	13.9	50.2	31.0	0.0
	조손가정	100(82)	2.4	13.4	46.3	37.8	0.0

2)-②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0%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3.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8.0%)에서 중학생(74.9%), 고등학생(67.1%)으로 갈수록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는 응답률이 낮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77.1%)이 한부모가정(64.5%)과 조손가정(68.3%)에 비해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3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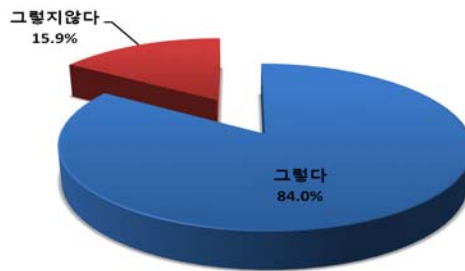
표 II-145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8	19.1	37.5	38.5	0.1
성별	남자	100(4,874)	4.9	18.3	38.2	38.4	0.1
	여자	100(4,561)	4.6	20.1	36.7	38.5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5	9.3	30.9	57.1	0.2
	중학교	100(2,844)	4.6	20.5	40.0	34.9	0.0
	고등학교	100(3,648)	6.7	26.1	40.9	26.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0	18.1	35.7	41.3	0.0
	광역시	100(2,432)	5.3	18.8	38.3	37.4	0.2
	시군	100(5,610)	4.5	19.6	37.6	38.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3	18.5	37.2	39.9	0.1
	한부모가정	100(743)	9.8	25.6	40.1	24.4	0.1
	조손가정	100(82)	8.5	23.2	39.0	29.3	0.0

2)-③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0%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4.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5.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91.6%)에서 중학생(83.8%), 고등학생(78.1%)으로 갈수록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응답률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75.0%)과 조손가정(79.3%)에 비해 양부모가정(84.9%)의 청소년이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3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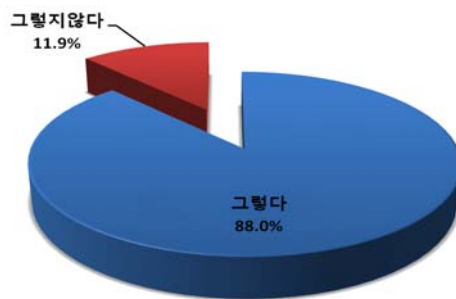
표 II-146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4	12.5	43.7	40.3	0.1
성별	남자	100(4,874)	3.4	11.7	43.8	41.0	0.1
	여자	100(4,561)	3.4	13.4	43.5	39.7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7	6.5	32.7	59.0	0.1
	중학교	100(2,844)	3.8	12.4	46.5	37.3	0.0
	고등학교	100(3,648)	4.4	17.3	50.3	27.8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4	12.8	40.0	43.7	0.0
	광역시	100(2,432)	3.3	13.1	43.5	40.0	0.1
	시군	100(5,610)	3.4	12.1	44.7	39.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1	12.0	43.3	41.6	0.1
	한부모가정	100(743)	6.7	18.2	47.5	27.5	0.1
	조손가정	100(82)	7.3	13.4	51.2	28.0	0.0

2)-④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8.0%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8.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1.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92.8%)에서 중학생(87.8%), 고등학생(84.2%)으로 갈수록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8.6%)이 한부모가정(81.7%)과 조손가정(84.1%)에 비해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3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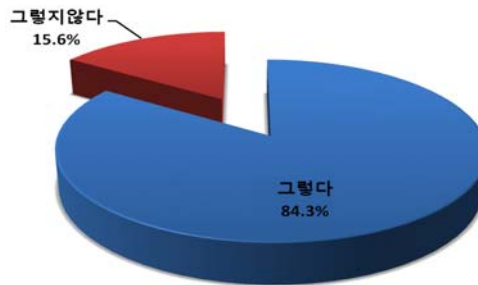
표 II-147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7	9.2	40.1	47.9	0.1
성별	남자	100(4,874)	2.9	8.7	41.1	47.2	0.2
	여자	100(4,561)	2.5	9.8	39.0	48.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6	5.6	28.6	64.2	0.1
	중학교	100(2,844)	2.5	9.6	43.5	44.3	0.1
	고등학교	100(3,648)	3.8	11.8	46.7	37.5	0.2
거주지	서울	100(1,393)	2.7	8.9	39.3	49.0	0.1
	광역시	100(2,432)	2.8	8.7	41.4	46.9	0.1
	시군	100(5,610)	2.6	9.5	39.7	48.0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4	8.8	39.7	48.9	0.1
	한부모가정	100(743)	5.2	13.1	44.1	37.6	0.0
	조손가정	100(82)	3.7	12.2	41.5	42.7	0.0

2)-⑤ 가족관계 질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4.3%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4.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5.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85.2%)이 여학생(83.3%)보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91.1%)이 중학생(82.4%), 고등학생(80.3%)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5.2%)이 한부모가정(75.8%)과 조손가정(73.2%)에 비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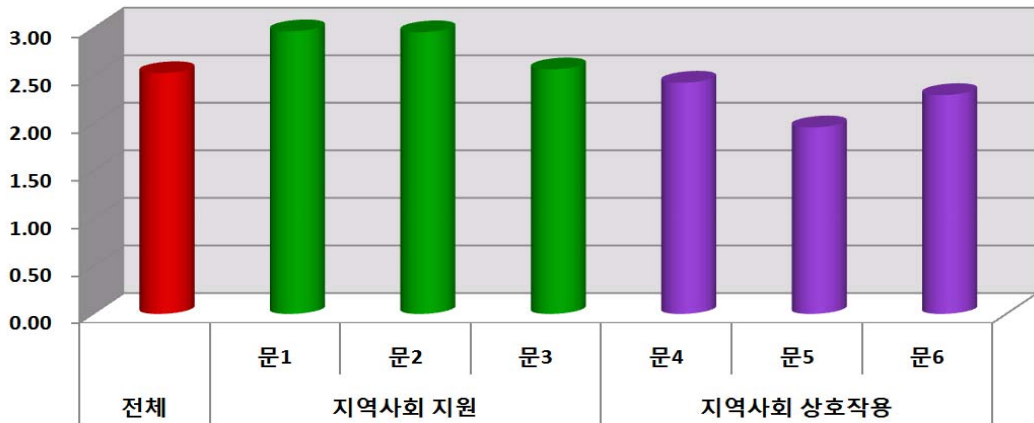
【그림 II-13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표 II-148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2	12.4	39.4	44.9	0.1
성별	남자	100(4,874)	3.2	11.5	39.5	45.8	0.1
	여자	100(4,561)	3.2	13.5	39.3	44.0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2	6.6	29.6	61.6	0.1
	중학교	100(2,844)	3.2	14.4	40.9	41.5	0.0
	고등학교	100(3,648)	4.0	15.6	46.1	34.2	0.2
거주지	서울	100(1,393)	3.3	11.8	35.6	49.2	0.0
	광역시	100(2,432)	3.5	12.5	39.3	44.5	0.1
	시·군	100(5,610)	3.0	12.5	40.3	44.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7	12.0	39.0	46.2	0.1
	한부모가정	100(743)	7.3	17.0	43.9	31.9	0.0
	조손가정	100(82)	6.1	20.7	39.0	34.1	0.0

3. 지역사회 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지역사회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지역사회 지원(M=2.83)',
'지역사회 상호작용(M=2.23)'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136】 지역사회 영역의 항목별 평균

표 II-149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지역사회 지원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2.97	1.00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96	1.00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2.57	1.05
소계		2.83	1.02
지역사회 상호작용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2.43	0.97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96	0.94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2.30	1.10
소계		2.23	1.00
지역사회 영역(전체)		2.53	1.0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지역사회 영역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150>과 같다. 지역사회 지원의 경우, 성별($t=6.036$, $p<.001$), 교급별($F=520.790$, $p<.001$), 가족구성별($F=5.790$, $p<.00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자($M=2.89$)의 평균점수가 여자($M=2.78$)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졌다. 또한 가족구성별에서는 조손가정의 평균점수가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상호작용의 경우, 교급별($F=324.337$, $p<.001$), 거주지별($F=7.136$, $p<.01$), 가족구성별($F=9.972$, $p<.001$)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교급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점수가 감소하였고, 거주지별로는 서울시($M=2.30$), 시·군($M=2.23$), 광역시($M=2.20$)순으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각 세부 요인별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15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50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 영역(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i>n</i> =4,874)	2.89 (0.87)	6.036***	2.24 (0.86)	1.516	2.56 (0.75)	4.495***
	여자 (<i>n</i> =4,561)	2.78 (0.89)		2.22 (0.78)		2.50 (0.72)	
교급별	초등학교 (<i>n</i> =2,943)	3.21 (0.80)	520.790*** (ab,ac,bc)	2.52 (0.85)	324.337*** (ab,ac,bc)	2.87 (0.70)	586.468*** (ab,ac,bc)
	중학교 (<i>n</i> =2,844)	2.82 (0.85)		2.19 (0.80)		2.50 (0.70)	
	고등학교 (<i>n</i> =3,648)	2.54 (0.86)		2.02 (0.75)		2.28 (0.68)	
거주지	서울 (<i>n</i> =1,393)	2.86 (0.88)	.791	2.30 (0.84)	7.136** (de,df)	2.58 (0.74)	3.334*
	광역시 (<i>n</i> =2,432)	2.84 (0.88)		2.20 (0.82)		2.52 (0.73)	
	시·군 (<i>n</i> =5,610)	2.83 (0.88)		2.23 (0.82)		2.53 (0.7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i>n</i> =8,513)	2.84 (0.88)	5.790*** (gh)	2.24 (0.83)	9.972*** (gh)	2.54 (0.73)	10.252*** (gh,hi)
	한부모가정 (<i>n</i> =743)	2.70 (0.88)		2.08 (0.75)		2.39 (0.68)	
	조손가정 (<i>n</i> =82)	2.96 (0.77)		2.35 (0.79)		2.66 (0.67)	
전체 <i>M</i> (<i>SD</i>)		2.83(0.88)		2.23(0.82)		2.53(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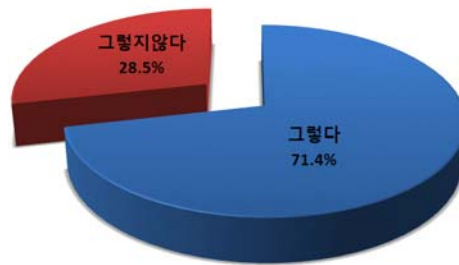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4%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1.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8.5%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74.6%)이 여학생(68.0%)보다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4.5%)에서 중학생(71.7%), 고등학교(60.7%)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은 조손가정(78.0%)이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정(66.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137】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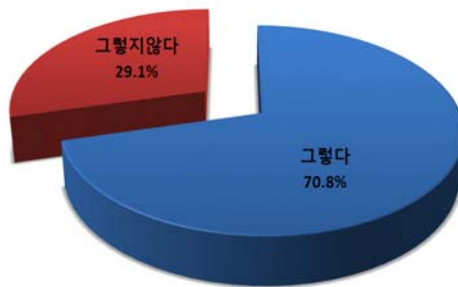
표 II-15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1.2	17.3	35.3	36.1	0.0
성별	남자	100(4,874)	10.3	15.0	37.5	37.2	0.0
	여자	100(4,561)	12.2	19.8	33.0	34.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6.5	9.0	32.3	52.2	0.0
	중학교	100(2,844)	10.1	18.2	37.4	34.3	0.0
	고등학교	100(3,648)	15.9	23.3	36.2	24.5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1.3	17.1	34.3	37.3	0.0
	광역시	100(2,432)	10.9	17.1	36.2	35.8	0.0
	시·군	100(5,610)	11.3	17.5	35.2	35.9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1.0	17.2	35.3	36.5	0.0
	한부모가정	100(743)	13.9	19.8	35.0	31.4	0.0
	조손가정	100(82)	9.8	12.2	42.7	35.4	0.0

1)-②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0.8%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9.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73.5%)이 여학생(67.9%)보다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4.4%)에서 중학생(69.5%), 고등학생(60.8%)으로 갈수록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은 조손가정(84.1%)이 다른 가정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II-138】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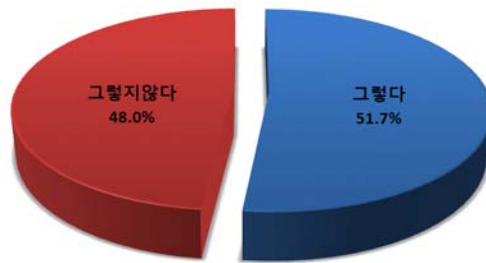
표 II-15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0.7	18.4	35.3	35.5	0.1
성별	남자	100(4,874)	10.1	16.4	37.5	36.0	0.1
	여자	100(4,561)	11.5	20.5	32.8	35.1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7	9.8	31.8	52.6	0.1
	중학교	100(2,844)	10.1	20.4	36.8	32.7	0.0
	고등학교	100(3,648)	15.4	23.7	36.8	24.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0.9	16.9	34.3	37.8	0.0
	광역시	100(2,432)	11.1	17.3	36.1	35.4	0.1
	시·군	100(5,610)	10.6	19.2	35.1	35.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0.6	18.3	35.1	36.0	0.1
	한부모가정	100(743)	12.8	20.5	36.3	30.3	0.1
	조손가정	100(82)	4.9	11.0	43.9	40.2	0.0

1)-③ 지역사회 지원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률이 51.7%, ‘그렇지 않다’ 48.0%로 응답

-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1.7%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8.0%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70.8%)에서 중학생(53.1%), 고등학생(35.3%)으로 갈수록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고 하였고, 남학생(55.8%)이 여학생(47.4%)보다 도움을 받을 기관 및 시설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은 한부모가정(44.8%)이 양부모가정(52.2%)과 조손가정(54.9%)에 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고 하였다.



【그림 II-139】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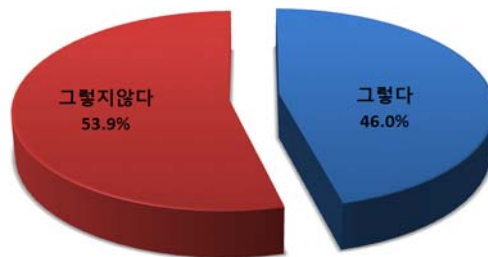
표 II-15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6.7	31.3	31.3	20.4	0.3
성별	남자	100(4,874)	16.4	27.4	33.5	22.4	0.3
	여자	100(4,561)	17.1	35.3	29.0	18.4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9.7	19.1	33.8	37.0	0.4
	중학교	100(2,844)	15.4	31.3	35.1	18.0	0.2
	고등학교	100(3,648)	23.5	41.0	26.4	9.0	0.2
거주지	서울	100(1,393)	17.2	28.7	31.2	22.8	0.1
	광역시	100(2,432)	16.7	30.5	32.3	20.1	0.5
	시군	100(5,610)	16.6	32.2	30.9	20.0	0.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6.5	31.0	31.2	21.0	0.3
	한부모가정	100(743)	20.2	34.7	31.1	13.7	0.3
	조손가정	100(82)	11.0	34.1	32.9	22.0	0.0

2)-①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은 46.0%, ‘그렇지 않다’ 53.9%로 응답

-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6.0%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53.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고 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56.9%)에서 중학생(44.9%), 고등학교(38.1%)으로 갈수록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구성별은 조손가정(50.0%)이 양부모가정(46.8%)과 한부모가정(38.1%)보다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0】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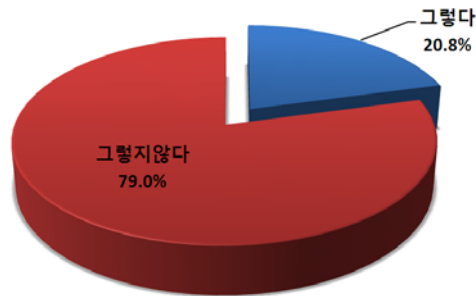
표 II-15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8.2	35.7	31.4	14.6	0.1
성별	남자	100(4,874)	20.0	34.9	29.3	15.7	0.1
	여자	100(4,561)	16.1	36.6	33.6	13.5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3.9	29.1	33.2	23.8	0.1
	중학교	100(2,844)	18.0	37.0	31.5	13.5	0.0
	고등학교	100(3,648)	21.7	40.1	29.9	8.2	0.2
거주지	서울	100(1,393)	17.1	32.4	31.8	18.6	0.1
	광역시	100(2,432)	19.6	36.0	30.7	13.6	0.1
	시·군	100(5,610)	17.8	36.4	31.6	14.1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7.8	35.3	31.6	15.3	0.1
	한부모가정	100(743)	22.5	41.0	28.5	7.9	0.0
	조손가정	100(82)	14.6	35.4	36.6	13.4	0.0

2)-②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79.0%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24.5%)이 여학생(17.0%)보다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32.3%)이 중학생(19.6%), 고등학생(12.6%)보다 높았다. 가족구성별은 한부모가정(14.4%)이 양부모가정(21.4%)과 조손가정(22.0%)에 비해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1】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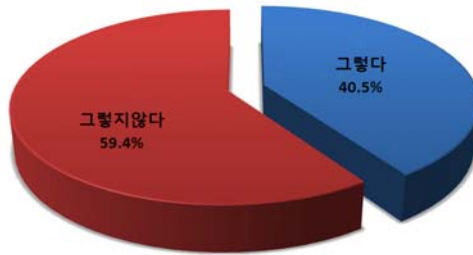
표 II-15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4.6	44.4	12.0	8.8	0.1
성별	남자	100(4,874)	35.1	40.3	13.9	10.5	0.1
	여자	100(4,561)	34.2	48.8	10.1	6.9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7.3	40.3	15.9	16.3	0.2
	중학교	100(2,844)	35.4	45.0	11.8	7.8	0.0
	고등학교	100(3,648)	40.1	47.2	9.1	3.4	0.2
거주지	서울	100(1,393)	34.5	42.4	12.8	10.2	0.1
	광역시	100(2,432)	35.4	43.7	12.2	8.8	0.0
	시군	100(5,610)	34.4	45.2	11.8	8.4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4.4	44.2	12.2	9.2	0.1
	한부모가정	100(743)	38.5	46.8	10.2	4.2	0.3
	조손가정	100(82)	30.5	47.6	11.0	11.0	0.0

2)-③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은 40.5%, ‘그렇지 않다’는 59.4%로 응답

-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에 대해서, 40.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59.4%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56.3%)이 중학생(39.1%), 고등학생(28.9%)보다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조손가정(50.0%)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40.8%)과 한부모가정(35.5%)의 청소년보다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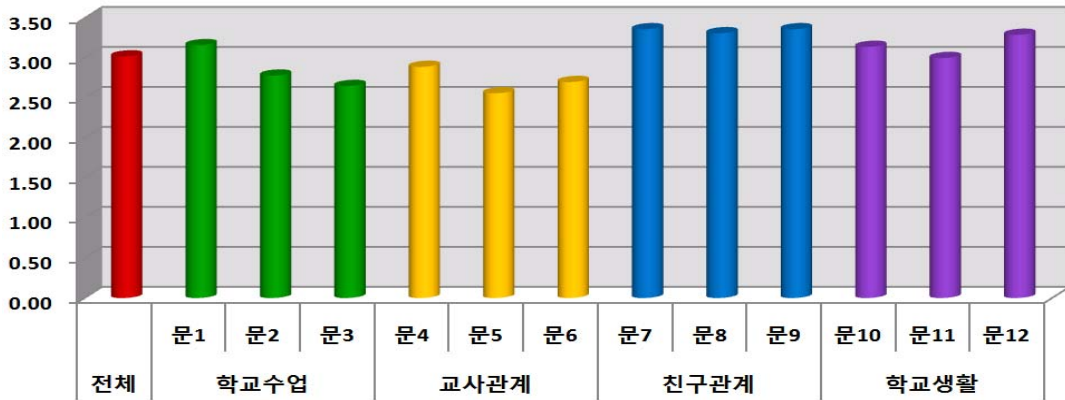
【그림 II-142】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표 II-15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9.6	29.8	21.7	18.8	0.1
성별	남자	100(4,874)	31.2	27.1	22.1	19.6	0.1
	여자	100(4,561)	27.9	32.8	21.3	18.0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0.5	23.2	25.2	31.0	0.0
	중학교	100(2,844)	31.6	29.3	21.9	17.2	0.0
	고등학교	100(3,648)	35.4	35.6	18.7	10.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8.5	27.4	21.8	22.3	0.0
	광역시	100(2,432)	31.2	29.9	21.5	17.4	0.0
	시군	100(5,610)	29.1	30.5	21.8	18.5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9.6	29.6	21.8	18.9	0.0
	한부모가정	100(743)	31.4	33.1	19.2	16.3	0.0
	조손가정	100(82)	18.3	31.7	26.8	23.2	0.0

4. 학교영역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친구관계(M=3.3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M=3.14)’, ‘학교수업(M=2.87)’, ‘교사관계(M=2.71)’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143】 학교영역의 항목별 평균

표 II-157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학교 수업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3.16	0.72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2.78	0.83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2.65	0.85
	소계	2.87	0.80
교사 관계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2.89	0.90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2.56	1.00
	6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70	0.98
	소계	2.71	0.96
친구 관계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3.36	0.75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3.31	0.77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3.36	0.77
	소계	3.34	0.76
학교 생활	10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3.14	0.77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 한다	3.00	0.80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3.29	0.85
	소계	3.14	0.81
학교영역(전체)		3.02	0.81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158>와 같다.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의 경우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여자보다 더 낮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별에서는 서울이 광역시와 시군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가족구성별은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의 경우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졌다.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친구관계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밖에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15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58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학교영역(전체)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i>M</i> (<i>SD</i>)	<i>t, F</i> (Sheffé)
성별	남자 (n=4,874)	2.84 (0.71)	- 3.382 **	2.75 (0.87)	4.663 ***	3.32 (0.68)	- 3.253 **	3.13 (0.66)	- 2.581 *	3.01 (0.57)	- .940
	여자 (n=4,561)	2.89 (0.66)		2.67 (0.88)		3.37 (0.65)		3.16 (0.62)		3.02 (0.54)	
교급별	초등학교 (n=2,943)	3.16 (0.66)	449.314 *** (ab,ac, bc)	3.18 (0.80)	724.975 *** (ab,ac, bc)	3.50 (0.66)	157.741 *** (ab,ac, bc)	3.32 (0.62)	177.351 *** (ab,ac, bc)	3.29 (0.55)	629.507 *** (ab,ac, bc)
	중학교 (n=2,844)	2.79 (0.66)		2.59 (0.83)		3.34 (0.66)		3.09 (0.65)		2.95 (0.52)	
	고등학교 (n=3,648)	2.69 (0.66)		2.43 (0.81)		3.21 (0.66)		3.04 (0.63)		2.84 (0.50)	
거주지	서울 (n=1,393)	2.94 (0.69)	9.617 *** (de,df)	2.77 (0.86)	2.950	3.38 (0.67)	3.953* (de)	3.19 (0.64)	4.076* (df)	3.07 (0.55)	6.949** (de,df)
	광역시 (n=2,432)	2.86 (0.67)		2.70 (0.85)		3.32 (0.66)		3.14 (0.64)		3.01 (0.54)	
	시·군 (n=5,610)	2.85 (0.69)		2.71 (0.89)		3.35 (0.67)		3.13 (0.65)		3.01 (0.5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513)	2.89 (0.69)	25.214 *** (gh)	2.73 (0.87)	14.570 *** (gh)	3.35 (0.66)	12.574 *** (gh)	3.16 (0.64)	18.132 *** (gh)	3.03 (0.55)	28.026 *** (gh)
	한부모가정 (n=743)	2.65 (0.65)		2.50 (0.89)		3.21 (0.71)		2.98 (0.65)		2.84 (0.52)	
	조손가정 (n=82)	2.74 (0.68)		2.68 (0.82)		3.28 (0.68)		3.01 (0.68)		2.93 (0.56)	
전체 <i>M</i> (<i>SD</i>)		2.87(0.69)		2.71(0.87)		3.34(0.67)		3.14(0.64)		3.02(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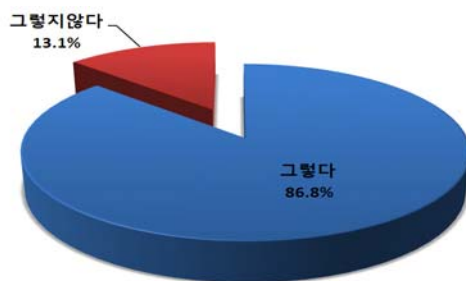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학교수업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6.8%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2.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88.7%)이 남학생(85.1%)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가족구성별은 양부모가정(87.7%)이 한부모가정(79.0%)과 조손가정(79.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44】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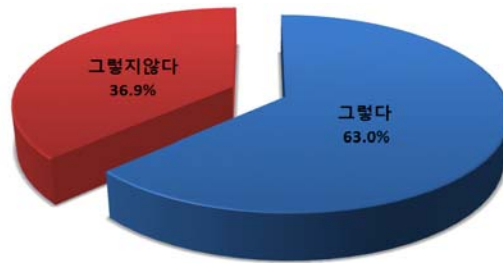
표 II-15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4	10.7	55.3	31.5	0.1
성별	남자	100(4,874)	3.0	11.9	54.9	30.2	0.1
	여자	100(4,561)	1.8	9.5	55.8	32.9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3	5.8	44.3	48.5	0.0
	중학교	100(2,844)	2.6	11.3	57.5	28.7	0.0
	고등학교	100(3,648)	3.1	14.3	62.5	20.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3	9.5	53.5	34.7	0.1
	광역시	100(2,432)	2.3	11.2	55.7	30.8	0.0
	시군	100(5,610)	2.4	10.9	55.6	31.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2	10.1	55.2	32.5	0.0
	한부모가정	100(743)	4.0	17.0	57.6	21.4	0.0
	조손가정	100(82)	4.9	15.9	56.1	23.2	0.0

1)-② 학교수업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3.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3.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6.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66.8%)이 남학생(59.4%)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은 양부모가정(64.0%)의 청소년이 다른 가정의 청소년보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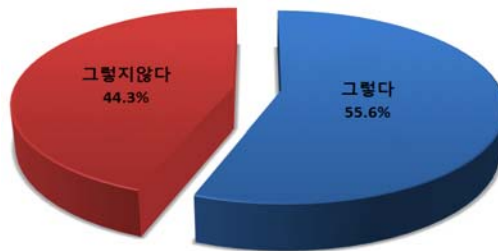
표 II-16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4.5	32.4	43.6	19.4	0.1
성별	남자	100(4,874)	5.5	35.0	40.8	18.6	0.1
	여자	100(4,561)	3.5	29.6	46.7	20.1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5	21.6	42.7	33.0	0.1
	중학교	100(2,844)	5.1	36.5	42.7	15.6	0.1
	고등학교	100(3,648)	5.7	38.0	45.1	11.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4.7	27.9	44.7	22.6	0.1
	광역시	100(2,432)	4.2	33.2	42.9	19.6	0.1
	시·군	100(5,610)	4.7	33.2	43.7	18.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4.3	31.6	44.0	20.0	0.1
	한부모가정	100(743)	6.5	41.0	39.8	12.7	0.0
	조손가정	100(82)	4.9	35.4	43.9	15.9	0.0

1)-③ 학교수업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은 55.6%, ‘그렇지 않다’ 44.3%로 응답

-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5.6%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4.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듣는다는 응답이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고, 남학생(56.2%)이 여학생(55.0%)보다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듣는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57.1%)이 한부모가정(41.5%)과 조손가정(47.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6】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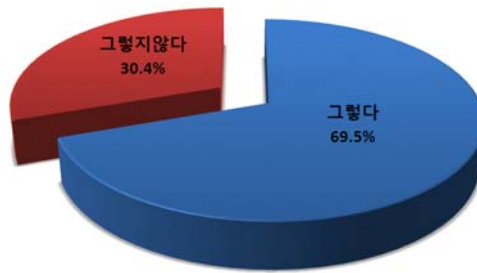
표 II-161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6.7	37.6	40.4	15.2	0.1
성별	남자	100(4,874)	6.8	36.8	39.9	16.2	0.1
	여자	100(4,561)	6.5	38.4	41.0	14.0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6	22.4	47.4	27.5	0.1
	중학교	100(2,844)	7.1	42.1	39.0	11.7	0.1
	고등학교	100(3,648)	9.6	46.4	36.0	7.9	0.1
거주지	서울	100(1,393)	5.8	31.9	44.2	17.9	0.1
	광역시	100(2,432)	5.8	38.7	40.1	15.2	0.2
	시군	100(5,610)	7.2	38.5	39.7	14.4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6.4	36.4	41.2	15.9	0.1
	한부모가정	100(743)	9.4	49.1	33.8	7.7	0.0
	조손가정	100(82)	6.1	46.3	35.4	12.2	0.0

2)-① 교사관계

‘나는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9.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0.4%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70.5%)이 여학생(68.5%)보다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6.7%)에서 중학생(65.8%), 고등학교(58.6%)으로 갈수록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7】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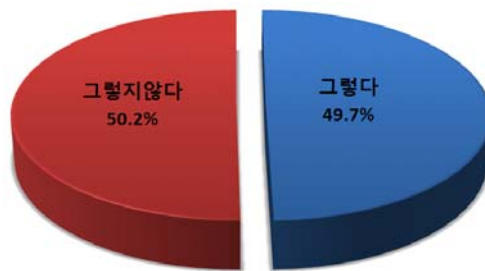
표 II-162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7.5	22.9	43.2	26.3	0.1
성별	남자	100(4,874)	7.3	22.1	43.6	26.8	0.1
	여자	100(4,561)	7.7	23.7	42.8	25.7	0.0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3.7	9.5	38.9	47.8	0.1
	중학교	100(2,844)	8.6	25.7	44.9	20.9	0.0
	고등학교	100(3,648)	9.8	31.5	45.4	13.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6.7	19.7	42.6	30.9	0.1
	광역시	100(2,432)	7.4	23.4	44.9	24.3	0.0
	시군	100(5,610)	7.8	23.4	42.7	26.0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7.1	22.3	43.5	27.0	0.1
	한부모가정	100(743)	11.0	28.4	40.8	19.7	0.1
	조손가정	100(82)	8.5	29.3	40.2	22.0	0.0

2)-② 교사관계

‘나는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49.7%, ‘그렇지 않다’는 50.2%로 응답

- ‘나는 학교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9.7%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0.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53.2%)이 여학생(46.0%)에 비해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은 초등학생(70.3%)이 중학생(44.3%)과 고등학생(37.3%)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148】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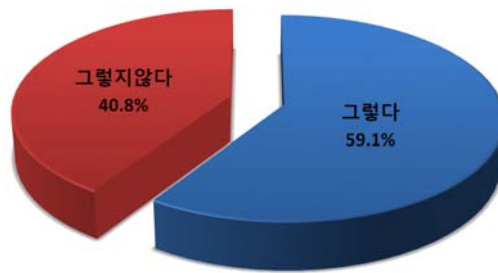
표 II-163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5.3	34.8	29.2	20.5	0.1
성별	남자	100(4,874)	14.3	32.3	31.7	21.5	0.1
	여자	100(4,561)	16.4	37.5	26.6	19.4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7.7	21.8	32.1	38.3	0.1
	중학교	100(2,844)	17.0	38.7	28.8	15.5	0.0
	고등학교	100(3,648)	20.3	42.3	27.2	10.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5.6	32.1	30.3	21.8	0.1
	광역시	100(2,432)	14.9	34.4	31.1	19.5	0.1
	시군	100(5,610)	15.5	35.7	28.1	20.6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4.7	34.6	29.5	21.1	0.1
	한부모가정	100(743)	22.2	38.1	25.8	13.5	0.4
	조손가정	100(82)	11.0	37.8	34.1	17.1	0.0

2)-③ 교사관계

‘나는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그렇다’의 응답률이 59.1%, ‘그렇지 않다’는 40.8%로 응답

- ‘나는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9.1%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0.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 보면, 남학생(62.0%)이 여학생(56.0%)에 비해 학교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0.7%)에서 중학생(54.1%), 고등학생(45.6%)으로 올라갈수록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149】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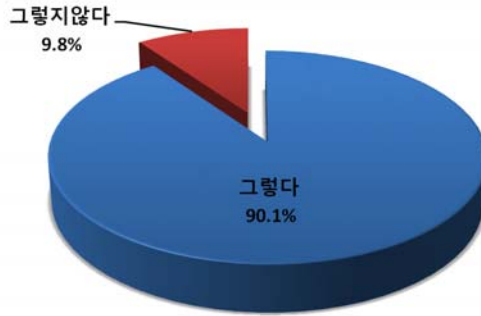
표 II-164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12.8	28.0	36.8	22.3	0.1
성별	남자	100(4,874)	12.0	25.9	38.9	23.1	0.1
	여자	100(4,561)	13.5	30.3	34.6	21.5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5.2	14.0	37.8	42.9	0.1
	중학교	100(2,844)	14.4	31.4	37.6	16.6	0.1
	고등학교	100(3,648)	17.6	36.7	35.5	10.1	0.1
거주지	서울	100(1,393)	12.6	26.3	37.3	23.8	0.0
	광역시	100(2,432)	12.7	27.6	38.4	21.3	0.0
	시군	100(5,610)	12.8	28.6	36.0	22.3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12.4	27.5	37.0	23.0	0.1
	한부모가정	100(743)	17.1	33.2	34.2	15.3	0.1
	조손가정	100(82)	9.8	29.3	41.5	19.5	0.0

3)-① 친구관계

‘나는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0.1%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0.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9.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 보면, 여학생(90.9%)이 남학생(89.4%)에 비해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9.9%)이 중·고등학생(88.9%)보다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비해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50】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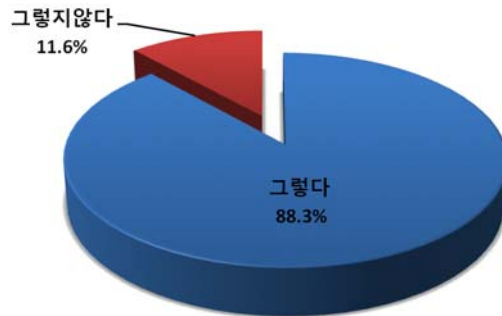
표 II-165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9	6.9	41.5	48.6	0.1
성별	남자	100(4,874)	3.4	7.2	42.9	46.5	0.0
	여자	100(4,561)	2.4	6.6	40.1	50.8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8	5.4	30.9	60.9	0.0
	중학교	100(2,844)	3.1	6.9	42.6	47.3	0.0
	고등학교	100(3,648)	2.9	8.1	49.3	39.6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4	7.0	38.3	51.3	0.0
	광역시	100(2,432)	3.0	7.2	43.3	46.5	0.0
	시군	100(5,610)	2.8	6.8	41.6	48.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8	6.7	41.3	49.2	0.0
	한부모가정	100(743)	4.3	9.4	42.9	43.3	0.0
	조손가정	100(82)	6.1	2.4	47.6	43.9	0.0

3)-② 친구관계

‘나는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8.3%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8.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1.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생(90.9%)이 중학생(87.8%)과 고등학생(86.8%)보다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51】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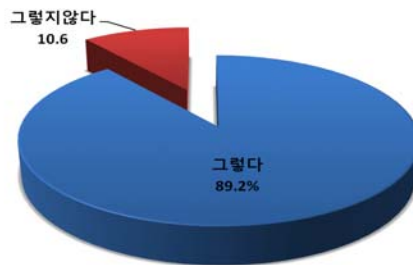
표 II-166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9	8.7	43.8	44.5	0.1
성별	남자	100(4,874)	3.2	8.8	44.4	43.5	0.1
	여자	100(4,561)	2.6	8.5	43.1	45.6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5	6.5	32.0	58.8	0.1
	중학교	100(2,844)	3.0	9.2	43.7	44.1	0.0
	고등학교	100(3,648)	3.2	10.0	53.4	33.4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8	7.5	41.9	47.7	0.1
	광역시	100(2,432)	2.9	8.5	46.1	42.4	0.0
	시군	100(5,610)	2.9	9.0	43.3	44.7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7	8.3	43.7	45.2	0.1
	한부모가정	100(743)	4.4	12.4	46.4	36.7	0.0
	조손가정	100(82)	3.7	8.5	46.3	41.5	0.0

3)-③ 친구관계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9.2%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9.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0.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86.4%)이 초등학생(91.5%)과 중학생(90.4%)에 비해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9.5%)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85.9%)과 조손가정(87.8%)의 청소년에 비해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152】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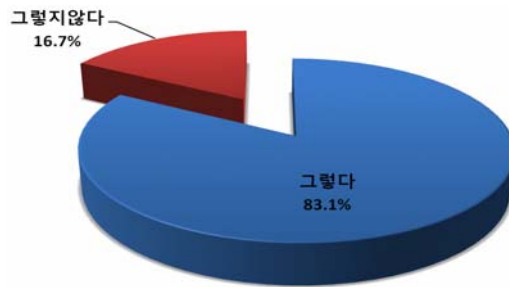
표 II-167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7	7.9	41.1	48.1	0.2
성별	남자	100(4,874)	2.8	8.1	42.2	46.6	0.2
	여자	100(4,561)	2.5	7.7	39.9	49.8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5	5.7	29.2	62.4	0.2
	중학교	100(2,844)	2.3	7.0	41.4	49.0	0.2
	고등학교	100(3,648)	3.0	10.4	50.4	36.0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9	7.4	37.5	52.0	0.3
	광역시	100(2,432)	3.0	7.8	42.5	46.7	0.0
	시군	100(5,610)	2.5	8.1	41.4	47.8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5	7.8	40.7	48.9	0.2
	한부모가정	100(743)	4.3	9.7	45.5	40.4	0.1
	조손가정	100(82)	3.7	8.5	43.9	43.9	0.0

4)-① 학교생활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1%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6.7%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84.4%)이 남학생(81.9%)보다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학교 규칙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83.7%)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77.4%)과 조손가정(78.0%)의 청소년에 비해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53】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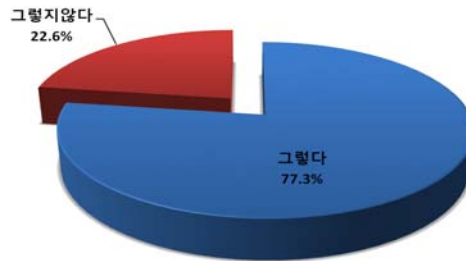
표 II-168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2.5	14.2	51.2	31.9	0.1
성별	남자	100(4,874)	3.1	14.9	49.8	32.1	0.1
	여자	100(4,561)	1.9	13.5	52.7	31.7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8	11.8	46.7	39.5	0.3
	중학교	100(2,844)	3.0	15.4	51.4	30.0	0.1
	고등학교	100(3,648)	2.8	15.2	54.7	27.2	0.1
거주지	서울	100(1,393)	2.0	11.2	49.9	36.8	0.1
	광역시	100(2,432)	2.7	14.6	50.8	31.8	0.1
	시·군	100(5,610)	2.6	14.8	51.7	30.7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2.4	13.7	51.1	32.6	0.2
	한부모가정	100(743)	3.5	19.1	53.2	24.2	0.0
	조손가정	100(82)	3.7	18.3	50.0	28.0	0.0

4)-② 학교생활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7.3%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7.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2.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79.2%)이 남학생(75.4%)보다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고 하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7.9%)에서 중학생(73.1%), 고등학생(71.9%)으로 올라갈수록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보다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림 II-154】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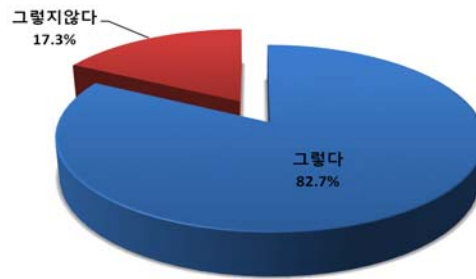
표 II-169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9	18.7	51.0	26.3	0.1
성별	남자	100(4,874)	4.7	19.8	48.7	26.7	0.1
	여자	100(4,561)	3.1	17.6	53.5	25.7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1.8	10.2	45.2	42.7	0.1
	중학교	100(2,844)	5.2	21.7	50.7	22.4	0.0
	고등학교	100(3,648)	4.7	23.3	56.0	15.9	0.1
거주지	서울	100(1,393)	4.2	17.3	48.6	29.8	0.1
	광역시	100(2,432)	3.5	19.1	50.8	26.5	0.0
	시군	100(5,610)	4.0	18.9	51.7	25.2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9	18.0	51.0	27.1	0.1
	한부모가정	100(743)	4.0	26.8	51.8	17.4	0.0
	조손가정	100(82)	7.3	22.0	46.3	24.4	0.0

4)-③ 학교생활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2.7%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7.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교급별 응답결과에서는 초등학교(86.5%)에서 중학생(82.2%), 고등학교(80.0%)으로 올라갈수록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83.3%)과 조손가정(80.5%)에 비해 한부모가정(76.2%)의 청소년이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55】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표 II-170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00(9,435)	3.9	13.4	32.8	49.9	0.1
성별	남자	100(4,874)	4.5	13.3	32.1	50.1	0.0
	여자	100(4,561)	3.2	13.5	33.5	49.7	0.1
교급별	초등학교	100(2,943)	2.5	11.0	29.4	57.1	0.0
	중학교	100(2,844)	4.4	13.4	34.0	48.2	0.0
	고등학교	100(3,648)	4.6	15.3	34.5	45.4	0.1
거주지	서울	100(1,393)	3.9	13.5	31.8	50.7	0.1
	광역시	100(2,432)	3.9	12.8	33.6	49.8	0.0
	시군	100(5,610)	3.9	13.6	32.7	49.8	0.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513)	3.6	13.0	32.7	50.6	0.0
	한부모가정	100(743)	6.6	17.2	33.6	42.5	0.0
	조손가정	100(82)	7.3	12.2	40.2	40.2	0.0

.....

부록

부 록

ID -

2011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최인재 박사 (02)2188-8876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임상철 대리/염숙희 팀장 (02)3014-0081/0131

조사학교 ID									
조사 일시	2011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정신건강-1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1)	① 나는 슬프지 않다 ② 나는 슬프다 ③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④ 나는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③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①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③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④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①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③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①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③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④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①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③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④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③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8)	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②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③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④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9)	①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① 나는 평소 우는 것 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③ 나는 요즘 항상 운다 ④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대답해야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④에, ‘별로 그렇지 않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②에, ‘매우 그렇다’면 ①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⑤’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답에 다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 항
11)	① 나는 평소 짜증을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③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②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①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②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③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④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14)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③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④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①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③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④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①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②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③ 나는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④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①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④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①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②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③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①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②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③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④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20)	①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③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④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①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②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④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정신건강-2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 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3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①	②	③	④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①	②	③	④
6)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①	②	③	④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①	②	③	④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4

문 4.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문 4-1.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문 5로 이동**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문 4-2.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문 4-3.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정신건강-5

문 5. 아래의 각 항목과 관련해서 자신이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1) 부모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2) 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①	②	③	④
4) 신체건강	①	②	③	④
5) 심리건강	①	②	③	④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①	②	③	④
8) 이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9) 선·후배 관계	①	②	③	④
10)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①	②	③	④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①	②	③	④

정신건강-6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	①	②	③	④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7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경제적인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여가 생활	①	②	③	④
5) 선생님과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6)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7) 학업성적	①	②	③	④
8) 건강	①	②	③	④

정신건강-8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9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①	②	③	④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1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2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3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배경질문

배문1. 성별은? ()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아래에서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1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배문 8. 전반적인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한 편이다

배문 9.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과 본인의 관심정도는?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2) 본인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mental health improvement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Statistics

It developed survey instrument to understand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conducted nationwide survey. This year of 2011 is the first year surve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two consecutive and repetitive cross-sectional researches are planned to be conducted from 2012 to 2013.

Population for the surve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i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nation and investigation method is to conduct nationwide sampling investigation with annals of educational statistics as the sampling frame by using stratified multi-stage sampling. Population is boys and girls elementary school students(elementary school 4th ~ 6th grade), middle school (1st ~ 3rd grade), and high school students (1st ~ 3rd grade) including general high school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in 16 cities and provinces of nation.

Investigation area composing the survey instrument is classified into 4 large areas such as personal, family, school, and local community area. The personal area in the large area was composed of negative elements with depression, anxiety, game addiction, suicide, stress, and misdeed and positive elements with life satisfaction, self-respect, self-efficiency, emotional control, and optimism. Family area was composed of parents' support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and local community area comprised support of local community and interaction of local community. At last, school area comprised school classes,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school life.

The investigation result will be accumulated as a time series cross-section data and also monitoring materials to understand changes of our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can be utilized to establish efficient policy and set up promotion direction.

Key words: actual situation of mental health, repetitive cross-section investigation, aspect of changes, sampling investigation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해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Ⅱ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Ⅱ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연구보고 11-R22-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 조사 결과 자료집 -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1. 8. 24 제13-726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85-1

978-89-7816-983-7(세트)

